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 오후1시30분~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는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2015년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진행순서

1부.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13:30~13:40	10분	여는 시간	[진행자] ■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3:40~14:00	20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발표자] ■ 사카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4:00~14:15	15분	심층인터뷰 사례발표	[발표자] ■ 루블릿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4:15~14:30	15분	질의응답	
14:30~14:40	10분	쉬는시간	

2부. 토론 '학습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

14:40~14:45	5분	토론 안내	[진행자] ■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4:45~15:00	15분	발제 : 실태조사를 통해 보는 '학습시간 줄이기'의 의미와 실현 방안	[발제자] ■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5:00~15:20	20분	토론자 토론	[토론자]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5:20~15:50	30분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15:50~16:00	10분	마무리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자료순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장. 서론	8~9
1절. 실태조사 개요	8
2절.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8
3절. 실태조사 방법	8~9
4절. 연구의 제한점	9
2장. 설문조사 결과	10~41
1절. 설문조사 개요.	10~12
1. 설문조사 방법	10
2. 설문참여 현황	10~12
2절. 기본설문분석	13~41
1. 학습시간	13~32
2. 생활시간	32~36
3. 감정	36~41
3절.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42~76
1. 학습시간과 학습부담	42~45
2. 강제학습과 학습부담	45~51
3. 학습부담과 사교육	51~54
4. 학습부담과 주변환경	54~64
5. 휴일/심야학습과 학습부담	64~71
6. 지역별 조례 등 제도의 영향	71~76
3장. 심층인터뷰 결과	77~129
1절. 심층인터뷰 개요	77~78
1. 심층인터뷰방법	77
2. 피면접자 기본정보	77~78
2절. 심층인터뷰 내용	78~129
1. 대구 초등생학생 - 학원 덜 힘든 곳, 시험 안치는 곳으로 전학가고 싶다	78~95
2. 경기 혁신중학생 -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는 나나들	96~102
3. 서울 자율형사립고학생 - 사회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103~111
4. 광주 일반고학생 - 야자 제발 자율로 해줬으면, 제발제발제발	112~119
5. 울산 일반고학생 - 점심시간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강제학습... 고3이라는 이유로	120~129
4장. 조사결과 요약및 시사점	130~132

‘학습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 토론자료

발제.	실태조사를 통해 보는 학습시간 줄이기의 의미와 실현방안 - 공현	134~143
토론1.	학생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돌려주자 - 박고형준	144~149
토론2.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한다 - 김진우	150~158
토론3.	학습부담의 근본적 감축은 교육과정 개편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 신성호	159~168

표 차례

[표 1] 학교급에 따른 학생 분포	10
[표 2] 학년에 따른 학생 분포	10
[표 3] 성별에 따른 학생 분포	11
[표 4] 지역에 따른 학생 분포	11
[표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규정 또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하라고 합니까?	13
[표 6]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규정 또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하라고 합니까?	14
[표 7] 현재 등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표 8] 평소 정규 수업과 종례 및 보충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이 끝나고,	15
[표 9] 평소 정규 수업과 종례 및 보충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이 끝나고,	15
[표 10] 현재 하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
[표 11]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하교시간 - 등교시간으로 산출)	16
[표 12]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표 13]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표 14]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
[표 15] 평소 학교 수업 내용의 어려운 정도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18
[표 16] 아프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자유롭게 학교에서 병결 또는 조퇴를 할 수 있습니까?	19
[표 17] 다음 중 자신이 느끼기에 병결이나 조퇴를 어렵게 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를 2개 골라주십시오.	19
[표 18]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오후보충수업(방과후학교 포함)	20
[표 19]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야간자율학습	21
[표 20]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아침자율/보충학습	23
[표 21]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점심자율학습	24
[표 22]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주말보충/자율학습	25
[표 23] 올해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26
[표 24] 사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2개 선택해주세요.	27
[표 25] 평일에 요일 별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더해서 적어주세요.	27
[표 26] 평일에 학원 또는 개인과외 등의 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은 몇 시인가요?	28
[표 27] 평일에 학원 또는 개인 과외 등의 일정이 끝나는 시간 (구간별)	28
[표 28] 자신이 아프거나 원할 때, 자유롭게 학원 수업을 조퇴하거나 빠질 수 있습니까?	29
[표 29]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29
[표 30] 현재 자신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양과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
[표 31]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
[표 32]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표 33] 학교 수업 및 보충자율학습, 사교육 등을 제외하고	31
[표 34] 현재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
[표 35] 평일에 수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32
[표 36] 현재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33
[표 37] 수면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4
[표 38] 수면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4
[표 39] 평일에 휴식 및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35

[표 40] 최근 휴식 및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낍니까?	35
[표 41] 자유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5
[표 42] 자유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6
[표 43]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6
[표 44]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수업 내용과 시설차별	37
[표 45]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8
[표 46]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공개	38
[표 47]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급식 순서	39
[표 48] 현재 당신의 학습시간과 양에, 부모 등 보호자는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39
[표 49]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부와 성적을 이유로 압박을 받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40
[표 50] 쉬고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40
[표 51]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41
[표 52]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초등학생	42
[표 53]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중학생	42
[표 54]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43
[표 55]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44
[표 56]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 평균 / 초등학생	44
[표 57]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 평균 / 중학생	45
[표 58]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45
[표 59]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초등학생	45
[표 60]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중학생	46
[표 61]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46
[표 62]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46
[표 63]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47
[표 64]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47
[표 65]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여부 / 초등학생	47
[표 66]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여부 / 중학생	48
[표 67]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48
[표 68]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주말 공휴일 사교육 참여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49
[표 69]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교	50
[표 70]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50
[표 71]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51
[표 72] 사교육 참여이유에 따른 학교 학습시간과 양 적절도	52
[표 73] 사교육 참여이유에 따른 학교 수업 난이도의 적절도	53
[표 74] 사교육 참여 이유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53
[표 75]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전체	54
[표 76]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55
.....	55
[표 78]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55
[표 79]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전체	56
[표 80]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초등학생	57
[표 81]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57
[표 82]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	

고 학생	57
[표 83]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58
[표 84]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초등학생	59
[표 85]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59
[표 86]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60
[표 87]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60
[표 88]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61
[표 89]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62
[표 90]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63
[표 91]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지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 특성화고 학생	63
[표 92]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초등학생	64
[표 93]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중학생	65
[표 94]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65
[표 95]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66
[표 96] 주말 학습강요 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66
[표 97] 주말과 공휴일 사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67
[표 98] 주말과 공휴일 사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67
[표 99]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초등학생	68
[표 100]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중학생	68
[표 101]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69
[표 102]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69
[표 103]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평균 / 초등학생	69
[표 104]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평균 / 중학생	70
[표 105]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70
[표 106]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보충수업 강제 여부 / 중학생	71
[표 107]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보충수업 강제 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71
[표 108]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71
[표 109] 지역별 학교급에 따른 학원교습 규제 시간기준	72
[표 110]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분포 / 초등학생	73
[표 111]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분포 / 중학생	73
[표 112]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분포 / 인문계열고 학생	73
[표 113] 학원심야교습금지조례 준수율	74
[표 114]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74
[표 115]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초등학생	74
[표 116]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75
[표 117]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75

1부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장. 서론

1절.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명 :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 조사기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후원 : 공익재단법인 동천
- 도움주신 단체 : 교육공동체 벗,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인권교육센터 들
- 조사기간 : 2015년 4월 24일 - 8월 4일

2절.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세계 최장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진행한 ‘2014 학생 휴식에 관한 서울지역학생 실태조사’, ‘2014 학생 휴식에 관한 인천지역학생 실태조사’ 및 ‘2014 대전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를 통해서도 장시간 학습, 강제학습 등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심각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태조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부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과도한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기획,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 규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영역 또한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일상생활 전반으로, 학습 및 생활시간 그리고 학습의 유형, 휴식의 양과 질,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및 압박, 학생들의 스트레스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3절. 실태조사 방법

1.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시간, 생활시간 구성과 학습의 강제성, 성적으로 인한 차별경험이나 학업스트레스, 감정 등에 관한 질문 3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지에 학생들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3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거리캠페인을 통한 참여, 두 번째로는 전국 각지의 교육·청소년·교사 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학교를 배정하여 설문 참여,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커뮤니티카페 및 SNS 홍보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2.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

설문조사지 응답으로는 도출해 낼 수 없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겪는 맥락과 처지, 나아가 학생들의 심리 상태 및 의견을 설명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고, 지역과 학교 등을 고려하여 면접 대상을 선정하였다.

4절. 연구의 제한점.

- ① 지역별 경향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참여자가 적어 각 지역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 ② 설문조사지 10번 문항에서 학교의 정규수업 외 학습 강요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을 방과후학교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답변한 학생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③ 특성화고 학생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표본 수가 적어 사교육과 관련된 분석에서 제외했다.
- ④ 설문조사지 23번 문항의 경우, 설문 설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평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주5일 동안 매일 참여하는 기준인지, 자신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사교육 참여 시간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2장. 설문조사 결과

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방법

- 설문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30일
- 설문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 (36개 문항)
- 설문참여인원 : 전국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261명
- 분석도구 : IBM SPSS Statistics 22
- 오차범위 : 신뢰도 95% 기준 $\pm 1.2\%p$

2. 설문 참여 현황

[표 1] 학교급에 따른 학생 분포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초등학교	1593	25.4	25.4	25.4
중학교	1917	30.6	30.6	56.1
인문계열고	2366	37.8	37.8	93.9
특성화고	385	6.1	6.1	100.0
총계	6261	100.0	100.0	

[표 2] 학년에 따른 학생 분포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초4	406	6.5	6.5	6.5
초5	436	7.0	7.0	13.5
초6	748	11.9	12.0	25.4
중1	463	7.4	7.4	32.8
중2	625	10.0	10.0	42.8
중3	823	13.1	13.2	56.0

고1	1006	16.1	16.1	72.1
고2	895	14.3	14.3	86.4
고3	848	13.5	13.6	100.0
총계	6250	99.8	100.0	
결측값	11	.2		
총계	6261	100.0		

[표 3] 성별에 따른 학생 분포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남성	2685	42.9	43.1	43.1
여성	3535	56.5	56.7	99.8
기타	13	.2	.2	100.0
총계	6233	99.6	100.0	
결측값	28	.4		
총계	6261	100.0		

[표 4] 지역에 따른 학생 분포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강원도	389	6.2	6.2	6.2
경기도	607	9.7	9.7	15.9
경상남도	362	5.8	5.8	21.7
경상북도	383	6.1	6.1	27.8
광주광역시	452	7.2	7.2	35.0
대구광역시	246	3.9	3.9	39.0
대전광역시	429	6.9	6.9	45.8
부산광역시	325	5.2	5.2	51.0
서울특별시	905	14.5	14.5	65.5
세종특별자치시	49	.8	.8	66.2
울산광역시	299	4.8	4.8	71.0
인천광역시	308	4.9	4.9	75.9

전라남도	456	7.3	7.3	83.2
전라북도	333	5.3	5.3	88.5
제주특별자치도	168	2.7	2.7	91.2
충청남도	264	4.2	4.2	95.4
충청북도	286	4.6	4.6	100.0
총계	6261	100.0	100.0	

2절. 기본 설문 분석

1. 학습시간

[1] 학교

① 등교 시간 : 8시 이전의 이른 등교, 인문계열고 학생 35.5%

9시 등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평균 등교시간은 9시보다 한참 이른 8시 22분이었다. 등교시간이 가장 늦은 초등학교도 평균 8시 40분에 등교했다. 중학생의 평균 등교시간은 8시 27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8시 6분, 특성화고 학생은 8시 13분이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간화하여 살펴본 결과,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이 각각 인문계열고 학생 35.5%, 특성화고 학생 20.8%나 되었다.

자신의 등교시간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등교시간이 이르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44.5(조금 이르다+너무 이르다)%였다. 반면 자신의 등교시간이 늦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4.6(조금 늦다+너무 늦다)%에 불과했다. 자신의 등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 68%, 중학생 52.4%, 인문계열고 학생 38.7%, 특성화고 학생 47.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표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규정 또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하라고 합니까?

학교급		등교시간
초등학교	평균	8시 40분
	N	1587
	표준편차	0:13
중학교	평균	8시 27분
	N	1915
	표준편차	0:14
인문계열고	평균	8시 06분
	N	2363
	표준편차	0:22
특성화고	평균	8시 13분
	N	385
	표준편차	0:23
총계	평균	8시 22분
	N	6250
	표준편차	0:23

[표 6]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규정 또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하라고 합니까?

		7:59 이전	8:00 - 8:59	9:00 이후 등교	총계
초등학교	개수	9	1343	235	1587
	%	0.6%	84.6%	14.8%	100.0%
중학교	개수	41	1800	74	1915
	%	2.1%	94.0%	3.9%	100.0%
인문계열고	개수	840	1487	36	2363
	%	35.5%	62.9%	1.5%	100.0%
특성화고	개수	80	292	13	385
	%	20.8%	75.8%	3.4%	100.0%
총계	개수	970	4922	358	6250
	%	15.5%	78.8%	5.7%	100.0%

[표 7] 현재 등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이르다	조금이르다	적절하다	조금늦다	너무늦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83	276	1064	115	27	1565
	%	5.3%	17.6%	68.0%	7.3%	1.7%	100.0%
중학교	개수	270	556	995	66	13	1900
	%	14.2%	29.3%	52.4%	3.5%	0.7%	100.0%
인문계열고	개수	511	880	914	50	6	2361
	%	21.6%	37.3%	38.7%	2.1%	0.3%	100.0%
특성화고	개수	63	129	184	7	1	384
	%	16.4%	33.6%	47.9%	1.8%	0.3%	100.0%
총계	개수	927	1841	3157	238	47	6210
	%	14.9%	29.6%	50.8%	3.8%	0.8%	100.0%

② 하교시간 : 인문계열고 학생의 41.3% “밤 10시 넘어서야 하교”

하교시간의 경우 요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늦게 끝나는 요일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평균 하교시간은 17시 37분이었다.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초등학생이 15시 1분, 중학생이 16시 30분, 인문계열 고등학생이 20시 8분, 특성화고 학생이 18시 17분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열과 특성화 모두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 등에 따른 하교시간의 차이가 커서, 표준편차가 2시간을 넘겼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일반적 퇴근시간인 18시 이후에 하교하는 학생이 전체의 72.6%나 되어서, 대다수가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2시 이후의 늦은 시각에 하교하는 학생도 41.3%나 되었다.

현재 하교시간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조금 늦다 + 너무 늦다)%의 학생들이 하교시간이 늦다고 응답했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61.3%가 자신의 하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학생과 인문계열고 학생은 34.9%만이 자신의 하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하교시간이 이르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전체의 2(조금 이르다+너무 이르다)% 뿐이었다.

[표 8] 평소 정규 수업과 종례 및 보충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이 끝나고, 자유롭게 하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몇 시부터입니까?

학교급		하교시간
초등학교	평균	15시 01분
	N	1561
	표준편차	1:02
중학교	평균	16시 30분
	N	1897
	표준편차	0:49
인문계열고	평균	20시 08분
	N	2359
	표준편차	2:24
특성화고	평균	18시 17분
	N	385
	표준편차	2:11
총계	평균	17시 37분
	N	6202
	표준편차	2:44

[표 9] 평소 정규 수업과 종례 및 보충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이 끝나고, 자유롭게 하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몇 시부터입니까? (구간별)

		17:59 이전	18:00 - 21:59	22:00 이후 하교	총계
초등학교	개수	1519	41	1	1561
	%	97.3%	2.6%	0.1%	100.0%
중학교	개수	1820	66	11	1897
	%	95.9%	3.5%	0.6%	100.0%
인문계열고	개수	647	738	974	2359
	%	27.4%	31.3%	41.3%	100.0%
특성화고	개수	224	137	24	385
	%	58.2%	35.6%	6.2%	100.0%

총계	개수	4210	982	1010	6202
	%	67.9%	15.8%	16.3%	100.0%

[표 10] 현재 하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이르다	조금이르다	적절하다	조금늦다	너무늦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3	23	971	440	138	1585
	%	0.8%	1.5%	61.3%	27.8%	8.7%	100.0%
중학교	개수	10	24	665	785	424	1908
	%	0.5%	1.3%	34.9%	41.1%	22.2%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4	36	825	742	745	2362
	%	0.6%	1.5%	34.9%	31.4%	31.5%	100.0%
특성화고	개수	2	4	163	108	108	385
	%	0.5%	1.0%	42.3%	28.1%	28.1%	100.0%
총계	개수	39	87	2624	2075	1415	6240
	%	0.6%	1.4%	42.1%	33.3%	22.7%	100.0%

③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 : 하루의 절반을 학교에서 보내는 인문계열고 학생

응답한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산출했다. 가장 하교시간이 늦은 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은 굉장히 긴 시간 학교에 있었다. 초등학생은 6시간 20분, 중학생은 8시간 3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12시간 1분, 특성화고 학생은 10시간 4분을 학교에서 보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졌다. 중학생은 법정 근로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인문계열고 학생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셈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도 약 10시간의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다.

[표 11]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하교시간 - 등교시간으로 산출)

학교급	평균	N	표준편차
초등학교	6시간 20분	1557	1:05
중학교	8시간 03분	1895	0:53
인문계열고	12시간 01분	2357	2:29
특성화고	10시간 04분	385	2:21
총계	9시간 15분	6194	2:57

전체 학생들 중 46.8(너무 많다+조금 많다)%가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과 양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은 27.7%가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많다고 응답했는데, 중학생은 같은 응답이 21.5%p 높은 49.2%로 급증했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9%의 학생이 자신의 학교 학습시간과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학교 학습시간과 양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학교급을 통틀어 3.6(조금 부족하다 + 너무 부족하다)%에 불과했다.

[표 12]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많다	조금많다	적절하다	조금부족하다	너무부족하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74	363	1093	44	7	1581
	%	4.7%	23.0%	69.1%	2.8%	0.4%	100.0%
중학교	개수	256	683	919	43	8	1909
	%	13.4%	35.8%	48.1%	2.3%	0.4%	100.0%
인문계열고	개수	495	871	890	97	10	2363
	%	20.9%	36.9%	37.7%	4.1%	0.4%	100.0%
특성화고	개수	58	116	194	16	1	385
	%	15.1%	30.1%	50.4%	4.2%	0.3%	100.0%
총계	개수	883	2033	3096	200	26	6238
	%	14.2%	32.6%	49.6%	3.2%	0.4%	100.0%

④ 원하는 학교 학습시간 :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학습시간은 5~7시간 수준

학생들은 학교에서 5시간 정도(22.9%)에서 6시간 정도(22.4%) 학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적은 초등학생도 평균 6시간 20분 동안 학교에 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학교 학습시간은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게 과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5시간 정도(37.3%), 중학생은 6시간 정도(30.4%), 인문계열고 학생은 7시간 정도(18.4%), 특성화고 학생은 6시간 정도(24.2%)의 학교 학습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3]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시간 이하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약12시간 이상	총계
초등학교	개수	217	360	586	296	67	32	3	4	3	8	1576
	%	13.8%	22.8%	37.2%	18.8%	4.3%	2.0%	0.2%	0.3%	0.2%	0.5%	100.0%
중학교	개수	130	194	495	575	337	113	30	14	0	7	1895
	%	6.8%	10.2%	26.1%	30.4%	17.8%	6.0%	1.6%	0.7%	0.0%	0.4%	100.0%
인문계열고	개수	78	145	282	425	432	389	198	237	67	100	2353
	%	3.3%	6.2%	12.0%	18.1%	18.4%	16.5%	8.4%	10.1%	2.8%	4.2%	100.0%
특성화고	개수	28	28	58	93	67	57	31	16	3	4	385
	%	7.3%	7.3%	15.1%	24.2%	17.4%	14.8%	8.1%	4.2%	0.8%	1.0%	100.0%
총계	개수	453	727	1421	1389	903	591	262	271	73	119	6209
	%	7.3%	11.7%	22.9%	22.4%	14.5%	9.5%	4.2%	4.4%	1.2%	1.9%	100.0%

‘3시간 미만’을 3시간으로, ‘12시간 이상’을 12시간으로 바꾸어 평균값을 구해 보았다. 초등학생은 평균 4시간 53분, 중학생은 평균 5시간 43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평균 7시간 13분, 특성화고 학생은 평균 6시간 27분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모두 학습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에 비해 실제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심각하게 길었고 이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졌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평균 12시간 1분을 학교에 머무르므로,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학습시간인 7시간 13분과는 4시간 48분이나 차이가 났다.

[표 14]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열고	특성화고
유효응답수	1576	1895	2353	385
평균	4시간 53분	5시간 43분	7시간 13분	6시간 27분
표준편차	1:18	1:25	2:09	1:54

⑤ 학교 수업의 난이도 : 인문계열 고등학생 절반 “학교수업 난이도 부담스럽다.”

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40.1(조금 부담스럽다 + 너무 부담스럽다)%의 학생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 수업의 난이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초등학생의 63.3%가 학교 수업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중학생은 50.3%,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47.8%만이 같은 답을 했다. 특히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49.4(조금 부담스럽다 + 너무 부담스럽다)%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난이도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응답하여, 난이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자를 넘어섰다.

학생들은 구체적 사례 응답을 통해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부담 외에도 진도가 너무 빨라서 이해할 수 없고, 교과 과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모두 마치기 위해 진도를 빨리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표 15] 평소 학교 수업 내용의 어려운 정도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 부담스럽다	적당하다	조금쉽다	너무쉽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33	305	998	185	56	1577
	%	2.1%	19.3%	63.3%	11.7%	3.6%	100.0%
중학교	개수	133	712	963	91	14	1913
	%	7.0%	37.2%	50.3%	4.8%	0.7%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84	983	1129	57	11	2364
	%	7.8%	41.6%	47.8%	2.4%	0.5%	100.0%
특성화고	개수	29	122	210	20	3	384
	%	7.6%	31.8%	54.7%	5.2%	0.8%	100.0%
총계	개수	379	2122	3300	353	84	6238
	%	6.1%	34.0%	52.9%	5.7%	1.3%	100.0%

⑥조퇴 : ‘휴식권/건강권보다 입시와 성적이 우선’ 조퇴조차 마음껏 하지 못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조퇴가 자유롭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30%의 학생이 눈치가 보이고 조건이 까다로워 불확실하다, 혹은 조퇴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조퇴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초등학교 10.8%, 중학생 28.1%, 인문계열고 학생 42.7%, 특성화고 학생 39.6%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조퇴를 할 때 망설이거나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개까지 복수응답을 받아 조사했다. 첫 번째로 수업 등이 뒤쳐질까 걱정됨(48.9%), 두 번째로는 입시나 취업 등에 손해나 불이익이 걱정됨(32.4%)이 꼽혔다. 학생들은 학교의 조퇴 제도가 자유로운지와 별개로도 여러 이유로 조퇴를 망설이거나 어려워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정이나 건강, 실 권리보다 입시를 위한 공부를 더 중요시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입시나 취업 등에 손해나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응답한 학생이 57.2%로 특히 높았는데, 취업에 있어서 출결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자의적 절차 때문에 조퇴나 병결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아 교사의 자의적 권한이 남용되는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보여준다.

[표 16] 아프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자유롭게 학교에서 병결 또는 조퇴를 할 수 있습니까?

		교사에게말하면자유롭게	눈치가 보이고 조건이 까다로워 불확실	조퇴등이거의불가능	총계
초등학교	개수	1400	132	41	1573
	%	89.0%	8.4%	2.6%	100.0%
중학교	개수	1373	486	50	1909
	%	71.9%	25.5%	2.6%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351	918	86	2355
	%	57.4%	39.0%	3.7%	100.0%
특성화고	개수	231	125	27	383
	%	60.3%	32.6%	7.0%	100.0%
총계	개수	4355	1661	204	6220
	%	70.0%	26.7%	3.3%	100.0%

[표 17] 다음 중 자신이 느끼기에 병결이나 조퇴를 어렵게 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를 2개 골라주십시오.

		까다롭고 교사마음에따라달라지는절차	입시나취업등에손해나불이익이걱정될	수업등에뒤쳐질까걱정될	친구들과학교에서더있고싶어서	학교에서외활동에참여하고싶어서	보호자(부모등)에게훈날까봐두려워서	어렵거나망설인적이없음	기타	총계
초등학교	개수	100	96	598	377	402	140	639	95	1477
	%	6.8%	6.5%	40.5%	25.5%	27.2%	9.5%	43.3%	6.4%	100.0%
중학교	개수	463	541	1000	222	175	237	554	86	1863
	%	24.9%	29.0%	53.7%	11.9%	9.4%	12.7%	29.7%	4.6%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006	1105	1203	109	106	247	414	102	2327
	%	43.2%	47.5%	51.7%	4.7%	4.6%	10.6%	17.8%	4.4%	100.0%

특성화고	개수	132	215	157	17	17	29	84	16	376
	%	35.1%	57.2%	41.8%	4.5%	4.5%	7.7%	22.3%	4.3%	100.0%
총계	개수	1701	1957	2958	725	700	653	1691	299	6043
	%	28.1%	32.4%	48.9%	12.0%	11.6%	10.8%	28.0%	4.9%	100.0%

⑦ 강제학습 : 인문계열고 학생 96.6% “학교 야간자율학습 시행 ” 그 중 40.2%는 “학교로부터 강요당한다.”

(1) 방과후학교/보충수업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보충수업보다는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오후에 추가수업을 진행하므로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시행여부를 함께 물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또는 보충수업은, 16%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시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 또는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 중에서 강제성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90.8%로 가장 많았고, 강제당하는 학생 중에는 부모가 참여를 강요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6.6%로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중학교와 인문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가 강제로 참여시킨다는 응답이 각각 28.3%, 26.7%, 22.3%로 크게 증가하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 이하였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강요한다는 응답이 23.6%로 전 학교급에서 가장 높았다.

[표 18]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오후보충수업(방과후학교 포함)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는 경우 - 강제성 여부				합계
초등학교	544	992				1536
	35.4%	64.6%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901	22	4	65	992
		90.8% (58.7%)	2.2% (1.4%)	0.4% (0.3%)	6.6% (4.2%)	100% (64.6%)
중학교	321	1563				1884
	17.0%	83.0%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032	443	70	18	1563
		66.0% (54.8%)	28.3% (23.5%)	4.5% (3.7%)	1.2% (1.0%)	100% (64.6%)

인문계열고	80	2264				2344
	3.4%	96.6%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091	605	535	33	2264
		48.2% (46.5%)	26.7% (25.8%)	23.6% (22.8%)	1.5% (1.4%)	100.0% (96.6%)
특성화고	39	342				381
	10.2%	89.8%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216	85	38	3	342
		63.2% (56.7%)	24.9% (22.3%)	11.1% (10.0%)	0.9% (0.8%)	100% (89.8%)
총계	984	3240	1155	647	119	6145
	16.0%	52.7%	18.8%	10.5%	1.9%	100.0%

(2) 야간자율학습

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소수이지만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초등학교 10명 중 한 명이, 중학생은 10명중 2명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단,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 보충학습의 다른 형태로 인지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고등학교는 3.2%를 제외하고 모두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40.2(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였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특성화고 학생의 30.5%가 학교로부터 강요당한다고 응답했다.

[표 19]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야간자율학습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는 경우 - 강제성 여부				합계
		1330	191			
	87.4%	12.6%				100.0%
초등학교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68	4	5	14	191
		88.0% (11.0%)	2.1% (0.3%)	2.6% (0.3%)	7.3% (0.9%)	100.0% (12.6%)
중학교	1538	330				1868
	82.3%	17.7%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266	45	13	6	330
		80.6% (14.2%)	13.6% (2.4%)	3.9% (0.7%)	1.8% (0.3%)	100.0% (17.7%)
인문계열고	75	2266				2341
	3.2%	96.8%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313	422	490	41	2266
		57.9% (56.1%)	18.6% (18.0%)	21.6% (20.9%)	1.8% (1.8%)	100.0% (96.8%)
특성화고	145	233				378
	38.4%	61.6%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59	51	20	3	233
		68.2% (42.1%)	21.9% (13.5%)	8.6% (5.3%)	1.3% (0.8%)	100.0% (61.6%)
총계	3088	1906	522	528	64	6108
	50.6%	31.2%	8.5%	8.6%	1.0%	100.0%

(3) 아침자율/보충학습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아침자율학습을 시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초등학생 47.1%, 중학생 61.9% 인문계열고 학생 70.7%, 특성화고 학생의 68.4%가 아침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응답했고, 중학교와 인문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시행한다 응답한 학생 중 절반정도인 49(45.3+2.7+1)%, 51(36.9+13.2+0.9)%가 강요당한다고 응답했다.

학습강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 문항에서, 아침자습시간에 EBS 수능방송을 강제로 시청하도록 한다는 중학생들의 응답이 있는 등, 아침자율/보충학습 강요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0]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아침자율/보충학습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는 경우 - 강제성 여부				합계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초등학교	804	716				1520
	52.9%	47.1%				100.0%
		546	149	8	13	716
		76.3% (35.9%)	20.8% (9.8%)	1.1% (0.5%)	1.8% (0.9%)	100.0% (47.1%)
중학교	707	1148				1855
	38.1%	61.9%				100.0%
		585	520	31	12	1148
		51.0% (31.5%)	45.3% (28.0%)	2.7% (1.7%)	1.0% (0.6%)	100.0% (61.9%)
인문계열고	681	1643				2324
	29.3%	70.7%				100.0%
		805	606	217	15	1643
		49.0% (34.6%)	36.9% (26.1%)	13.2% (9.3%)	0.9% (0.6%)	100.0% (70.7%)
특성화고	119	257				376
	31.6%	68.4%				100.0%
		142	96	17	2	257
		55.3% (37.8%)	37.4% (25.5%)	6.6% (4.5%)	0.8% (0.5%)	100.0% (68.4%)
총계	2311	2078	1371	273	42	6075
	38.0%	34.2%	22.6%	4.5%	0.7%	100.0%

(4) 점심자율학습

조사를 통해서 점심 자율학습 역시 적잖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35.9%, 중학생 40%, 인문계열 고 학생 40.2%, 특성화고 학생 28.6%가 학교에서 점심자율학습을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밥을 먹고 쉬기 위해 있는 유일하게 긴 휴식시간에도 공부를 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점심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답변한 인문계열고 학생 중 21.5%는 학교로부터 강요당한다고 응답했다.

[표 21]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점심자율학습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는 경우 - 강제성 여부				합계
초등학교	973	545				1518
	64.1%	35.9%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503 92.3% (33.1%)	24 4.4% (1.6%)	7 1.3% (0.5%)	11 2.0% (0.7%)	545 100.0% (35.9%)
중학교	1123	750				1873
	60.0%	40.0%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628 83.7% (33.5%)	102 13.6% (5.4%)	14 1.9% (0.7%)	6 0.8% (0.3%)	750 100.0% (40.0%)
인문계열고	1403	944				2347
	59.8%	40.2%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738 78.2% (31.4%)	149 15.8% (6.3%)	54 5.7% (2.3%)	3 0.3% (0.1%)	944 100.0% (40.2%)
특성화고	272	109				381
	71.4%	28.6%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사실상 강제		
		99	5	3	2	109
		90.8% (26.0%)	4.6% (1.3%)	2.8% (0.8%)	1.8% (0.5%)	100.0% (28.6%)
총계	3771	1968	280	78	22	6119
	61.6%	32.2%	4.6%	1.3%	0.4%	100.0%

(5) 주말보충/자율학습 강제 현황

인문계열고의 경우, 무려 67.3%, 약 2/3가 주말보충/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응답했다. 주말에 자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정 수업일수보다 훨씬 더 많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학교에서 주말보충/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인문계열고 학생 중 28.9%가 학교에 의해 강요받는다고 답했다. 인문계열고 학생 5명 중 1명은 주5일제가 아닌 주6일이나 주7일제 수업을 받는 셈이다.

[표 22] 최근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 주말보충/자율학습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는 경우 - 강제성 여부				합계
초등학교	1154	362				1516
	76.1%	23.9%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334	7	5	16	362
	92.3% (22.0%)	1.9% (0.5%)	1.4% (0.3%)	4.4% (1.1%)	23.9%	
중학교	1281	590				1871
	68.5%	31.5%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516	48	16	10	590
	87.5% (27.6%)	8.1% (2.6%)	2.7% (0.9%)	1.7% (0.5%)	100.0% (31.5%)	
인문계열고	765	1573				2338
	32.7%	67.3%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103	255	200	15	1573
		70.1% (47.2%)	16.2% (10.9%)	12.7% (8.6%)	1.0% (0.6%)	100.0% (67.3%)
특성화고	206	175				381
	54.1%	45.9%				100.0%
		자유롭게 참여/불참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참여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123	31	17	4	175
		70.3% (32.3%)	17.7% (8.1%)	9.7% (4.5%)	2.3% (1.0%)	100.0% (45.9%)
총계	3406	2076	341	238	45	6106
	55.8%	34.0%	5.6%	3.9%	0.7%	100.0%

[2] 사교육

① 사교육 참여여부 : 학생들 70.8% 사교육 참여한다.

초등학생은 85.7%, 중학생은 75.9%의 학생들이 올해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었다. 인문계열고 학생도 64.4%로 절반이 넘게 사교육에 참여했다.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인문계열고 학생의 학교에 있는 시간이 월등히 길어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사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 중 사교육 참여자는 표본 수가 적어 추후 분석에서 제외했다.

[표 23] 올해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참여한적있다	참여한적없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361	227	1588
	%	85.7%	14.3%	100.0%
중학교	개수	1448	461	1909
	%	75.9%	24.1%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519	840	2359
	%	64.4%	35.6%	100.0%
특성화고	개수	88	294	382
	%	23.0%	77.0%	100.0%
총계	개수	4416	1822	6238
	%	70.8%	29.2%	100.0%

② 사교육 참여 이유 : 학교급 높아질수록 ‘성적과 경쟁압박 때문에’, ‘학교 수업이 어려워’ 사교육 참여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에 관해 2가지 답변을 선택하는 복수응답 문항으로 물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각각 51.4%와 41.2%로 인문계열고 학생에 비해 높았고, 중학생,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성적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라는 답변이 각각 54.6%, 64.3%로 초등학생의 같은 응답에 비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중학생과 인문계열고 학생들은 각각 40.4%, 52.9%로 초등학생에 비해 급증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적과 경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학교 수업이 학생들에게 감당 불가능한 것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사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2개 선택해주세요.

		보호자가원 하고시켜서	친구를만나 거나사귀기 위해	어려운학교 수업을따라 가기위해서	성적이나경 쟁에서승리 감,성취감 얻기위해	성적이나경 쟁에서뒤처 지는것이두 려워서	학교에서는 제공하지않 는것을배워 야해서	기타	총계
초등학교	개수	684	127	310	398	315	236	332	1331
	%	51.4%	9.5%	23.3%	29.9%	23.7%	17.7%	24.9%	
중학교	개수	586	66	574	339	776	205	127	1422
	%	41.2%	4.6%	40.4%	23.8%	54.6%	14.4%	8.9%	
인문계열고	개수	287	18	781	282	949	299	138	1475
	%	19.5%	1.2%	52.9%	19.1%	64.3%	20.3%	9.4%	
총계	개수	1578	212	1682	1039	2069	771	615	4310
	%	36.6%	4.9%	39.0%	24.1%	48%	17.9%	14.3%	

③ 주당 평일 사교육 참여 시간 : 초등학생, 중학생 주당 11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형태가 요일별로 다양하고, 각 요일의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일정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평일(월-금)의 요일별 사교육참여 시간을 묻은 뒤 더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일주일 중 평일의 사교육참여 시간을 산출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당 평일 각각 11시간 35분, 11시간 52분, 인문계열고 학생들은 7시간 1분의 수치를 보였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평일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시간은 전반적으로 5시간 25분에서 6시간 26분까지의 큰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여러 가지 이유와 생활형태에 따라 4시간 정도에서 16시간 이상까지 (단순계산상으로 하루 1시간 미만에서 3시간 이상까지) 넓은 범위에 분포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 평일에 요일 별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더해서 적어주십시오.

학교급	평일 전체 평균 (1주일 당)	N	표준편차 (평일 전체 기준)
초등학교	11시간 35분	1269	6:26
중학교	11시간 52분	1321	5:57

인문계열고	7시간 01분	1221	5:25
총계	10시간 12분	3870	6:20

④ 가장 늦은 사교육 종료 시간 : 사교육에 참여하는 인문계열고 학생, 22시 이후 사교육 종료 82.4%

평일에 가장 늦게 사교육이 끝나는 날의 사교육 종료 시간이 언제인지 질문했다. 사교육이 끝나는 시간의 평균에도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을 가장 일찍 끝마쳤지만 19시 7분에야 끝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22시 36분의 늦은 시간이었다.

사교육 종료시간을 구간화하여 살펴보면, 18시 이전에 사교육을 마치는 학생은 전체의 8.2%에 불과했다. 특히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82.4%의 학생이 22시를 넘어서야 사교육을 마쳐, 대다수의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학습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6] 평일에 학원 또는 개인과의 등의 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은 몇 시인가요?

학교급	평균	N	표준편차
초등학교	19시 07분	1316	1:41
중학교	21시 07분	1398	1:24
인문계열고	22시 36분	1303	1:29
총계	20시 57분	4088	2:05

[표 27] 평일에 학원 또는 개인 과외 등의 일정이 끝나는 시간 (구간별)

		17:59 이전	18:00 - 21:59	22:00 이후	총계
초등학교	개수	286	946	84	1316
	%	21.7%	71.9%	6.4%	100.0%
중학교	개수	24	801	573	1398
	%	1.7%	57.3%	41.0%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9	210	1074	1303
	%	1.5%	16.1%	82.4%	100.0%
총계	개수	329	1957	1731	4017
	%	8.2%	48.7%	43.1%	100.0%

⑤ 학원 조퇴/결석 : 망설이는 이유는 보호자의 눈치가 보여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조퇴나 결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에게 사실상 강압적으로 학원 교습 참여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조퇴나 결석이 자유로운지를 물었다. 그 결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40.8%의 학생이 자유롭게 학원 수업을 조퇴하거나 빠질 수 없다고 응답했다. 수업을 조퇴하거나 빠지기 어렵다고 응답한 답변 중에는 학원은 상관없으나 보호자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았다.

[표 28] 자신이 아프거나 원할 때, 자유롭게 학원 수업을 조퇴하거나 빠질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할수있다	학원에서절차와 조건등이까다롭다	학원은상관없으나보 호자의눈치가보인다	조퇴하거나 빠질수없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845	139	213	145	1342
	%	63.0%	10.4%	15.9%	10.8%	100.0%
중학교	개수	763	149	404	113	1429
	%	53.4%	10.4%	28.3%	7.9%	100.0%
인문계열고	개수	906	101	428	56	1491
	%	60.8%	6.8%	28.7%	3.8%	100.0%
특성화고	개수	58	3	19	5	85
	%	68.2%	3.5%	22.4%	5.9%	100.0%
총계	개수	2572	392	1064	319	4347
	%	59.2%	9.0%	24.5%	7.3%	100.0%

⑥ 주말 사교육 참여 : 인문계열고 학생, 82.1% 주말과 공휴일에 사교육 참여

주말과 공휴일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 쉬 수 있는 학생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8%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30.4(15+7.1+8.3)%, 중학생의 경우 53.4(28.8+4.4+20.2)%, 고등학생의 경우 82.1(40.4+1.4+40.3)%가 공휴일, 또는 두 경우 모두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의 사교육 시간이 짧은 반면 주말이나 공휴일의 사교육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평일 대신에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9]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말에만참여	공휴일에만참여	주말과공휴일 모두참여	참여하지않는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98	93	109	916	1316
	%	15.0%	7.1%	8.3%	69.6%	100.0%
중학교	개수	410	62	288	664	1424
	%	28.8%	4.4%	20.2%	46.6%	100.0%
인문계열고	개수	609	21	607	270	1507
	%	40.4%	1.4%	40.3%	17.9%	100.0%
총계	개수	1241	179	1017	1897	4334
	%	28.6%	4.1%	23.5%	43.8%	100.0%

⑦ 사교육시간의 적절도 : 중학생 35.1%, 사교육 시간과 양 너무 많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 28.6(조금 많다+너무 많다)%가 자신의 사교육 시간과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1.7(조금 부족하다+너무 부족하다)%였다. 사교육 시간에 가장 부담을 나타낸 학교급은 중학생으로, 35.1%의 학생이 자신의 사교육 참여시간과 양이 너무 많거나 조금 많다고 응답했다.

[표 30] 현재 자신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양과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많다	조금많다	적절하다	조금부족하다	너무부족하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83	309	835	102	16	1345
	%	6.2%	23.0%	62.1%	7.6%	1.2%	100.0%
중학교	개수	114	389	799	117	14	1433
	%	8.0%	27.1%	55.8%	8.2%	1.0%	100.0%
인문계열고	개수	68	267	910	223	24	1492
	%	4.6%	17.9%	61.0%	14.9%	1.6%	100.0%
총계	개수	271	976	2595	454	58	4354
	%	6.2%	22.4%	59.6%	10.4%	1.3%	100.0%

⑧ 원하는 사교육 시간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평일 하루 2시간 정도 사교육 참여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안에 사교육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이 문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5일 동안 꾸준히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인지, 혹은 매일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할 경우 자신이 하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인지가 불명확한 것이 조사 후 분석단계에서 설문 설계상의 오류로 판단되어, 더 심층적인 분석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표 31]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시간 (참여할 필요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7시간 이상	총계
초등학교	개수	64	333	464	299	106	44	22	16	1348
	%	4.7%	24.7%	34.4%	22.2%	7.9%	3.3%	1.6%	1.2%	100.0%
중학교	개수	70	281	626	321	80	36	15	4	1433
	%	4.9%	19.6%	43.7%	22.4%	5.6%	2.5%	1.0%	0.3%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53	284	648	265	98	22	15	6	1491
	%	10.3%	19.0%	43.5%	17.8%	6.6%	1.5%	1.0%	0.4%	100.0%
총계	개수	287	898	1738	885	284	102	52	26	4272
	%	6.7%	21.0%	40.7%	20.7%	6.6%	2.4%	1.2%	0.6%	100.0%

‘7시간 이상’ 을 7시간으로 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일 사교육 시간의 평균값을 구해보았다. 초등학생은 평균 2시간 15분, 중학생은 평균 2시간 10분, 인문계 고등학생은 평균 2시간 1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표 32]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열고
유효함	1355	1438	1496
결측값	238	479	870
평균	2시간 15분	2시간 10분	2시간 01분
표준편차	1:19	1:07	1:11

[3]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평균 : 학교, 학원 등이 마친 후에도 1시간53분 더 공부.

학교와 사교육에서 시키는 학습을 제외하고 혼자 혹은 친구들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53분이었다. 인문계열고 학생을 제외한 학교급에서 비슷한 시간을 보였고, 인문계열고 학생은 2시간 6분으로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보다 20분 정도 더 공부했다.

[표 33] 학교 수업 및 보충자율학습, 사교육 등을 제외하고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공부를 하는 시간은 평일에 하루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학교급	평균	N	표준편차
초등학교	1시간 46분	1528	1:27
중학교	1시간 45분	1820	1:31
인문계열고	2시간 06분	2266	1:39
특성화고	1시간 46분	369	1:27
총계	1시간 53분	5983	1:33

② 자신의 전체 학습시간 적절도 : 인문계열고 학생, 장시간 학습 속에 49.3% “자신의 학습시간 부족하다”

초등학생의 62.9%가 자신의 전체 학습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데 비해, 인문계열고 학생은 24%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전체 학습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많다는 응답(초등학생 25.8%, 중학생 28.9%)이 학습시간이 적다는 응답(초등학생 11.4%, 중학생 27.2%)보다 높았는데, 인문계열과 특성화 고등학생은 자신의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인문계열 49.3%, 특성화 32.9%)이 학습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인문계열 26.7%, 특성화 29.2%)보다 더 높았다. 고등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전반적으로 확연히 긴 것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고등학생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4] 현재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많다	조금많다	적절하다	조금부족하다	너무부족하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88	320	997	158	22	1585
	%	5.6%	20.2%	62.9%	10.0%	1.4%	100.0%
중학교	개수	138	414	837	409	111	1909
	%	7.2%	21.7%	43.8%	21.4%	5.8%	100.0%
인문계열고	개수	221	408	566	859	302	2356
	%	9.4%	17.3%	24.0%	36.5%	12.8%	100.0%
특성화고	개수	31	81	145	97	29	383
	%	8.1%	21.1%	37.9%	25.3%	7.6%	100.0%
총계	개수	478	1223	2545	1523	464	6233
	%	7.7%	19.6%	40.8%	24.4%	7.4%	100.0%

2. 생활시간

[1] 수면시간

① 평균 수면시간 : 인문계열고 학생 하루 평균 5시간 50분 수면, 82.7% “수면시간 부족하다” 응답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8분이었다. 초등학생이 8시간 28분, 중학생이 7시간 16분, 인문계열고 학생이 5시간 50분, 특성화고 학생이 6시간 14분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평균 6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면시간을 보였다.

전체 학생의 66.3(조금 부족하다+많이 부족하다)%가 자신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면시간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63.2%로 절반을 넘는 데 비해 중학생은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31.9%로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17.3%의 학생만이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해서 수면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5] 평일에 수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학교급		수면시간 시작	수면시간 끝	수면시간
초등학교	평균	23시 17분	7시 18분	8시간 28분
	N	1561	1561	1561
	표준편차	1:08	0:38	1:10
중학교	평균	23시 52분	7시 04분	7시간 16분
	N	1881	1877	1876
	표준편차	1:03	0:43	1:08

인문계열고	평균	24시 52분	6시 43분	5시간 50분
	N	2331	2327	2328
	표준편차	1:01	0:35	1:08
특성화고	평균	24시 08분	6시 21분	6시간 14분
	N	379	378	379
	표준편차	1:26	0:51	1:19
총계	평균	24시 07분	6시 57분	6시간 58분
	N	6152	6143	6144
	표준편차	1:16	0:43	1:34

※ ‘평균 수면시간’ 이 잠들기 시작하는 시각의 평균값과 잠에서 깨는 시각의 평균값의 차와 다른 것은, 일부 응답자들이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만 기입하거나 잠에서 깨는 시간만 기입했기 때문에 응답자 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쪽만 기입한 경우에는 수면시간을 구할 때 결측값으로 제외되었다.

[표 36] 현재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아주충분하다	충분하다	조금부족하다	아주부족하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228	773	490	93	1584
	%	14.4%	48.8%	30.9%	5.9%	100.0%
중학교	개수	83	523	987	310	1903
	%	4.4%	27.5%	51.9%	16.3%	100.0%
인문계열고	개수	49	359	1178	771	2357
	%	2.1%	15.2%	50.0%	32.7%	100.0%
특성화고	개수	7	81	177	119	384
	%	1.8%	21.1%	46.1%	31.0%	100.0%
총계	개수	367	1736	2832	1293	6228
	%	5.9%	27.9%	45.5%	20.8%	100.0%

② 원하는 수면시간 : 인문계열고 학생, 원하는 수면시간에 비해 실제 수면시간 평균 1시간 48분 부족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8시간 정도-9시간 정도가 각각 초등학생 29.9%와 25.3%, 중학생 38.1%와 23.4%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등학생들은 7시간-8시간 정도가 가장 응답자가 많았다.

“4시간 이하” 를 4시간으로, “11시간 이상” 을 11시간으로 보고 평균값을 구해 보았다. 초등학생은 평균 8시간 19분, 중학생은 평균 8시간 17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평균 7시간 38분, 특성화고 학생은 평균 7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실제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50분으로, 희망하는 평균 수면시간과 가장 큰 1시간 48분의 차이가 났다. 중학생 또한 현재 평균 수면시간 (7시간 16분)과 희망하는 수면시간(8시간 17분) 사이에 1시

간의 차이가 났다. 평균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면을 취하고 있는 학교급 집단은 초등학생뿐이었다.

[표 37] 수면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약4시간 이하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약11시간 이상	총계
초등학교	개수	32	43	83	213	471	398	241	93	1574
	%	2.0%	2.7%	5.3%	13.5%	29.9%	25.3%	15.3%	5.9%	100.0%
중학교	개수	6	20	109	297	727	446	192	109	1906
	%	0.3%	1.0%	5.7%	15.6%	38.1%	23.4%	10.1%	5.7%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4	75	295	667	849	275	125	54	2354
	%	0.6%	3.2%	12.5%	28.3%	36.1%	11.7%	5.3%	2.3%	100.0%
특성화고	개수	2	11	31	93	145	54	36	12	384
	%	0.5%	2.9%	8.1%	24.2%	37.8%	14.1%	9.4%	3.1%	100.0%
총계	개수	54	149	518	1270	2192	1173	594	268	6218
	%	0.9%	2.4%	8.3%	20.4%	35.3%	18.9%	9.6%	4.3%	100.0%

[표 38] 수면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열고	특성화고
유효합	1574	1906	2354	384
결측값	19	11	12	1
평균	8시간 19분	8시간 17분	7시간 38분	7시간 54분
표준편차	1:29	1:15	1:15	1:18

[2] 자유시간

① 자유시간 평균과 자유시간 만족도 : 학교급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자유시간, “자유시간 부족하다” 전체학생 58.1%

쉬거나 취미 활동, 놀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자유시간 평균은 2시간 29분이었다. 특성화고 학생을 제외하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유시간이 줄어들었다. 인문계열고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되는 1시간 53분으로 초등학생의 자유시간 2시간 58분에 비해 1시간 넘게 줄어들었다.

전체 학생들 중 58.1%가 자신의 자유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훌쩍 넘는 비율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유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43.3%)은 초등학생(63.2%)에 비해 자유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이 19.9%p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표 39] 평일에 휴식 및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학교급	평균	N	표준편차
초등학교	2시간 58분	1502	1:56
중학교	2시간 44분	1819	1:57
인문계열고	1시간 53분	2266	1:38
특성화고	2시간 59분	360	2:05
총계	2시간 29분	5947	1:54

[표 40] 최근 휴식 및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낍니까?

		아주충분하다	조금충분하다	조금부족하다	아주부족하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572	425	412	168	1577
	%	36.3%	26.9%	26.1%	10.7%	100.0%
중학교	개수	311	515	709	370	1905
	%	16.3%	27.0%	37.2%	19.4%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55	465	880	852	2352
	%	6.6%	19.8%	37.4%	36.2%	100.0%
특성화고	개수	61	94	134	94	383
	%	15.9%	24.5%	35.0%	24.5%	100.0%
총계	개수	1099	1499	2135	1484	6217
	%	17.7%	24.1%	34.3%	23.9%	100.0%

② 원하는 자유시간 : 자유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필요하다.

모든 학교급에서 2시간 정도(24.4%)에서 3시간 정도(25.2%)의 자유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시간 이하”를 1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8시간으로 보고 평균값을 구해보았다. 초등학생은 평균 3시간 45분, 중학생 평균 3시간 51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평균 3시간 27분, 특성화고 학생은 평균 4시간 17분의 자유시간이 좋다고 생각했다. 지금보다 적게는 약 1시간, 많게는 1시간 30분 이상의 자유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 41] 자유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약1시간 이하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약8시간 이상	총계
초등학교	개수	111	370	357	268	197	104	67	110	1584
	%	7.0%	23.4%	22.5%	16.9%	12.4%	6.6%	4.2%	6.9%	100.0%
중학교	개수	80	412	483	364	222	116	80	148	1905
	%	4.2%	21.6%	25.4%	19.1%	11.7%	6.1%	4.2%	7.8%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27	677	647	406	208	100	48	141	2354
	%	5.4%	28.8%	27.5%	17.2%	8.8%	4.2%	2.0%	6.0%	100.0%
특성화고	개수	11	59	83	74	65	32	21	39	384
	%	2.9%	15.4%	21.6%	19.3%	16.9%	8.3%	5.5%	10.2%	100.0%
총계	개수	329	1518	1570	1112	692	352	216	438	6227
	%	5.3%	24.4%	25.2%	17.9%	11.1%	5.7%	3.5%	7.0%	100.0%

[표 42] 자유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열고	특성화고
유효합	1584	1905	2354	384
결측값	9	12	12	1
평균	3시간 45분	3시간 51분	3시간 27분	4시간 17분
표준편차	1:54	1:51	1:44	1:54

3. 감정

① 학교에서의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 학교급 높아질수록 성적을 이유로한 차별 증가.. 인문계열고 학생 33.9%, 성적에 따른 편애와 모욕 경험한다 응답

(1) 편애, 모욕

성적을 이유로 한 편애나 모욕의 경우,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4.1%에서 22.4%, 33.9%로 경험한 빈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1/3 가량인 33.9%가 자주, 또는 가끔 성적에 따른 교사의 편애와 모욕, 차별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특성화고는 중학교와 비슷한 수준인 20.3%였다. 대학입시에 가까운 시기일수록 학교에서 성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이나 등수를 이유로 한 교사의 편애, 모욕, 차별

		자주 겪는다	가끔 겪는다	별로 겪지 않는다	전혀 겪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3	51	115	1270	114	1563
	%	0.8%	3.3%	7.4%	81.3%	7.3%	100.0%
중학교	개수	89	336	345	974	154	1898
	%	4.7%	17.7%	18.2%	51.3%	8.1%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99	597	516	925	116	2353
	%	8.5%	25.4%	21.9%	39.3%	4.9%	100.0%

특성화고	개수	15	63	73	204	28	383
	%	3.9%	16.4%	19.1%	53.3%	7.3%	100.0%
총계	개수	316	1047	1049	3373	412	6197
	%	5.1%	16.9%	16.9%	54.4%	6.6%	100.0%

(2) 수업 내용과 시설차별

성적에 따른 수업내용 혹은 시설에 관한 차별은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42.6%, 특성화고 학생의 17.9%가 이와 같은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적에 따라 심화 수업을 제공하고 성적 상위권의 특정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도록 하거나, 더 쾌적한 환경의 자습실을 제공하는 등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측된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라 학습과 관련된 시설 뿐 아니라 기숙사 시설에서의 차등을 두거나 방 번호 등을 통해 시험 석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상위 학생들에게 논술반이나 동아리 등을 만들도록 하여 생활기록부를 유리하게 작성할 기회를 준다는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표 44]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수업 내용과 시설차별

		자주 겪는다	가끔 겪는다	별로 겪지 않는다	전혀 겪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9	36	107	1248	146	1556
	%	1.2%	2.3%	6.9%	80.2%	9.4%	100.0%
중학교	개수	85	157	292	1201	162	1897
	%	4.5%	8.3%	15.4%	63.3%	8%	100.0%
인문계열고	개수	494	508	372	842	134	2350
	%	21.0%	21.6%	15.8%	35.8%	5.7%	100.0%
특성화고	개수	22	47	53	230	32	384
	%	5.7%	12.2%	13.8%	59.9%	8.3%	100.0%
총계	개수	620	748	824	3521	474	6187
	%	10.0%	12.1%	13.3%	56.9%	7.7%	100.0%

(3) 체벌/불이익

시험점수나 등수를 가지고 체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험은 중학생의 10.9%, 인문계열고 학생 12.1%, 특성화고 학생의 12.2%가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중학생 때 주로 시험점수나 등수를 이유로 한 체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이 시작되고, 성적압박이 강화되는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을 이유로 체벌이나 벌점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특히 체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10% 정도가 경험한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표 45]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시험점수나 등수로, 체벌, 벌점 등 불이익

		자주 겪는다	가끔 겪는다	별로 겪지 않는다	전혀 겪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5	36	99	1288	127	1565
	%	1.0%	2.3%	6.3%	82.3%	8.1%	100.0%
중학교	개수	59	148	303	1244	150	1904
	%	3.1%	7.8%	15.9%	65.3%	7.9%	100.0%
인문계열고	개수	62	223	352	1585	133	2355
	%	2.6%	9.5%	14.9%	67.3%	5.6%	100.0%
특성화고	개수	9	38	47	256	33	383
	%	2.3%	9.9%	12.3%	66.8%	8.6%	100.0%
총계	개수	145	445	801	4373	443	6207
	%	2.3%	7.2%	12.9%	70.5%	7.1%	100.0%

(4) 성적공개

성적공개는 초등학생의 17%가 겪는다고 응답했는데, 중학생은 52.3%로 급격히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56%,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53.6%로 중학생의 응답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중학교 때부터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학생들에게 본인 점수 확인을 시킨다는 이유로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나 각종 수행평가 점수를 열람시키는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성적의 게시나 열람 등의 방법 뿐 아니라 자리 배치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상위권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등 직접적 방식의 성적공개에 대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표 46]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공개

		자주 겪는다	가끔 겪는다	별로 겪지 않는다	전혀 겪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74	193	376	771	150	1564
	%	4.7%	12.3%	24.0%	49.3%	9.6%	100.0%
중학교	개수	453	543	424	339	144	1903
	%	23.8%	28.5%	22.3%	17.8%	7.6%	100.0%
인문계열고	개수	622	698	525	415	100	2360
	%	26.4%	29.6%	22.2%	17.6%	4.2%	100.0%
특성화고	개수	77	128	91	59	28	383
	%	20.1%	33.4%	23.8%	15.4%	7.3%	100.0%
총계	개수	1226	1562	1416	1584	422	6210
	%	19.7%	25.2%	22.8%	25.5%	6.8%	100.0%

(5) 급식 순서

2014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성적순으로 급식을 먹도록 한 초등학교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었기에, 그러한 사례가 빈번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급식 순서에서 차별이 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에서 성적을 이유로 급식 순서를 다르게 하는 등의 경험을 한 수는 매우 적었다. 사례 자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작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청이 성적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

[표 47]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급식 순서

		자주 겪는다	가끔 겪는다	별로 겪지 않는다	전혀 겪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9	24	74	1341	116	1564
	%	0.6%	1.5%	4.7%	85.7%	7.4%	100.0%
중학교	개수	22	25	149	1558	143	1897
	%	1.2%	1.3%	7.9%	82.1%	7.5%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5	16	148	2045	131	2355
	%	0.6%	0.7%	6.3%	86.8%	5.6%	100.0%
특성화고	개수	2	2	26	317	36	383
	%	0.5%	0.5%	6.8%	82.8%	9.4%	100.0%
총계	개수	48	67	397	5261	426	6199
	%	0.8%	1.1%	6.4%	84.9%	6.9%	100.0%

② 보호자의 만족 : 인문계열고 학생 63.1% 자신의 학습시간, 양에 보호자가 만족하지 않는다 느낀다.

보호자가 자신의 학습시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느끼는지 질문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호자가 자신의 학습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82.2%가 보호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56.7%로 줄어들고, 인문계열고 학생은 36.9%에 불과했다. 특성화고 학생은 중학생과 조금 낮은 수준인 47.5%의 학생이 같은 응답을 했다.

[표 48] 현재 당신의 학습시간과 양에, 부모 등 보호자는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주만족하고 있다고 느낀다	조금만족하고 있다고 느낀다	별로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전혀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607	688	232	48	1575
	%	38.5%	43.7%	14.7%	3.0%	100.0%
중학교	개수	300	781	670	156	1907
	%	15.7%	41.0%	35.1%	8.2%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54	716	1125	359	2354
	%	6.5%	30.4%	47.8%	15.3%	100.0%
특성화고	개수	49	133	156	45	383

	%	12.8%	34.7%	40.7%	11.7%	100.0%
총계	개수	1110	2318	2183	608	6219
	%	17.8%	37.3%	35.1%	9.8%	100.0%

③ 성적 압박, 잔소리 : 인문계열고 학생 72.8% 성적에 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학교, 학원 등에서의 성적에 관한 잔소리와 압박 또한 심각했다. 초등학생 42.2%, 중학생 65.8%, 인문계열고 학생 72.8%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경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단, 특성화고 학생은 중학생보다 성적에 관한 압박을 덜 느꼈다.

[표 49]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부와 성적을 이유로 압박을 받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181	489	482	438	1590
	%	11.4%	30.8%	30.3%	27.5%	100.0%
중학교	개수	482	775	433	221	1911
	%	25.2%	40.6%	22.7%	11.6%	100.0%
인문계열고	개수	703	1013	462	178	2356
	%	29.8%	43.0%	19.6%	7.6%	100.0%
특성화고	개수	52	160	89	83	384
	%	13.5%	41.7%	23.2%	21.6%	100.0%
총계	개수	1418	2437	1466	920	6241
	%	22.7%	39.0%	23.5%	14.7%	100.0%

④ 휴식 시 불안, 초조 : 인문계열고 학생 72.8% 쉬고 있을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휴식시간에조차 편히 쉴 수 없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낀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7%의 학생들이 휴식 시에 자주 또는 가끔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험은 초등학생의 30.5%, 중학생의 52.5%, 인문계열고 학생은 절반을 훌쩍 넘기는 72.8%의 비율을 보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급증했다. 특성화고 학생은 중학생과 비슷한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사례 응답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쉬거나 놀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또는, 쉬는 시간 이후에 해야 할 공부나 숙제 등을 떠올리며 초조해 하기도 했다.

[표 50] 쉬고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99	387	449	655	1590
	%	6.2%	24.3%	28.2%	41.2%	100.0%

중학교	개수	279	725	497	411	1912
	%	14.6%	37.9%	26.0%	21.5%	100.0%
인문계열고	개수	720	997	436	205	2358
	%	30.5%	42.3%	18.5%	8.7%	100.0%
특성화고	개수	72	141	95	76	384
	%	18.8%	36.7%	24.7%	19.8%	100.0%
총계	개수	1170	2250	1477	1347	6244
	%	18.7%	36.0%	23.7%	21.6%	100.0%

⑤ 학업 스트레스 : 인문계열고 학생 85.6%가 학업스트레스 받는다.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빈도에 대해 질문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69.3%가 자주 또는 가끔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에 43%에서 71.8%로 급증했다.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85.6%에 달했고, 그마저도 ‘가끔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38.5%)보다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47.1%)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51]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초등학교	개수	217	468	409	496	1590
	%	13.6%	29.4%	25.7%	31.2%	100.0%
중학교	개수	606	767	326	214	1913
	%	31.7%	40.1%	17.0%	11.2%	100.0%
인문계열고	개수	1110	908	238	103	2359
	%	47.1%	38.5%	10.1%	4.4%	100.0%
특성화고	개수	130	126	74	54	384
	%	33.9%	32.8%	19.3%	14.1%	100.0%
총계	개수	2063	2269	1047	867	6246
	%	33.0%	36.3%	16.8%	13.9%	100.0%

3절.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1. 학습시간과 학습부담

①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과 학업스트레스 : 고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자주 느낄수록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길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업스트레스의 경험 빈도에 따라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적으로 학교에 12시간 21분 머물렀고, 학업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0시간 41분 학교에 머물러서, 1시간 40분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성화고 학생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겪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11시간 9분, 학업스트레스를 전혀 겪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시간 20분 학교에 머물러서 1시간 49분의 차이를 보였다.

[표 52]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초등학생

스트레스		학교있는시간
자주있다	평균	6시간 21분
	N	213
	표준편차	1:12
가끔있다	평균	6시간 23분
	N	459
	표준편차	1:04
별로없다	평균	6시간 19분
	N	399
	표준편차	0:59
전혀없다	평균	6시간 18분
	N	483
	표준편차	1:08
총계	평균	6시간 20분
	N	1554
	표준편차	1:05

[표 53]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중학생

스트레스		학교있는시간
자주있다	평균	8시간 09분
	N	602
	표준편차	0:54

가끔있다	평균	8시간 00분
	N	756
	표준편차	0:48
별로없다	평균	8시간 02분
	N	321
	표준편차	0:59
전혀없다	평균	7시간 56분
	N	212
	표준편차	0:56
총계	평균	8시간 03분
	N	1891
	표준편차	0:53

[표 54]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학교있는시간
자주있다	평균	12시간 21분
	N	1105
	표준편차	2:25
가끔있다	평균	11시간 59분
	N	906
	표준편차	2:27
별로없다	평균	11시간 09분
	N	238
	표준편차	2:32
전혀없다	평균	10시간 41분
	N	101
	표준편차	2:33
총계	평균	12시간 01분
	N	2350
	표준편차	2:29

[표 55] 학업 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스트레스		학교있는시간
자주있다	평균	11시간 09분
	N	130
	표준편차	2:26
가끔있다	평균	9시간 39분
	N	126
	표준편차	2:09
별로없다	평균	9시간 26분
	N	74
	표준편차	2:03
전혀없다	평균	9시간 20분
	N	54
	표준편차	2:04
총계	평균	10시간 04분
	N	384
	표준편차	2:21

② 사교육참여 시간과 학업스트레스 : 초등학생·중학생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높을수록 길어지는 사교육시간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 빈도에 따라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의 평균을 도출했다.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과 다르게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의 빈도가 높은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 학업스트레스 빈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길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학생은 평일 동안 평균 13시간 6분, 학업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학생은 10시간 58분 사교육을 받아서, 2시간 8분. 중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 받는 빈도에 따라 12시간 45분과 10시간 5분으로 2시간 40분 차이가 났다. 반면 인문계열고 학생은 사교육참여 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56]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 평균 / 초등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13시간 06분	170	6:33
가끔있다	12시간 16분	371	6:24
별로없다	10시간 48분	338	6:01
전혀없다	10시간 58분	387	6:37
총계	11시간 35분	1266	6:26

[표 57]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 평균 / 중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12시간 45분	455	6:18
가끔있다	11시간 51분	532	5:45
별로없다	10시간 58분	214	5:27
전혀없다	10시간 05분	118	5:40
총계	11시간 52분	1319	5:57

[표 58]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주당 평일 사교육참여 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7시간 00분	613	5:25
가끔있다	6시간 52분	462	5:15
별로없다	7시간 45분	110	6:21
전혀없다	7시간 09분	34	4:18
총계	7시간 01분	1219	5:25

2. 강제학습과 학습부담

① 강제학습과 하교시간 : 인문계열고 학생, 강제학습 여부에 따라 하교시간 평균 최대 4시간 27분 늦어진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을 강요당하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이 늦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열과 특성화고 모두 강제학습 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차이가 컸다.

초등학생의 경우 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4시 50분에 하교하고, 학교에서 무조건 강제 참여 시킬 경우 15시 35분에 하교하여 45분 정도의 차이가 났다. 중학생의 경우 두 응답 사이에 20분 정도로 가장 적은 차이가 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 학생(17시 45분 하교)과 학교에서 무조건 강제 당하는 학생(21시 10분) 사이에 하교시간이 무려 3시간 25분의 차이를 보였다.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의 인문계열고 학생(17시 17분)과 야간자율학습을 무조건 강제당하는 학생의 하교시간(21시 44분)은 4시간 27분 차이가 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16시 49분)과 무조건 강제당한다는 응답(20시 17분) 사이에 3시간 28분,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3시간 9분의 차이가 났다.

[표 59]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초등학생

강제성_보충수업	평균	N	표준편차
시행하지않는다	14시 50분	534	0:56
자유롭게참여/불참	15시 05분	890	1:02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15시 35분	21	0:55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17시 05분	4	2:22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15시 19분	63	1:15
총계	15시 01분	1512	1:02

[표 60]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중학생

강제성_보충수업	평균	N	표준편차
시행하지않는다	16시 22분	318	0:51
자유롭게참여/불참	16시 28분	1021	0:49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16시 41분	441	0:48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16시 37분	70	0:41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16시 42분	18	0:57
총계	16시 30분	1868	0:50

[표 61]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강제성_보충수업	평균	N	표준편차
시행하지않는다	17시 45분	79	2:17
자유롭게참여/불참	19시 14분	1089	2:29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21시 10분	602	1:53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21시 03분	535	1:48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21시 12분	31	1:48
총계	20시 08분	2336	2:24

[표 62]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강제성_야간자율	평균	N	표준편차
시행하지않는다	17시 17분	73	1:45
자유롭게참여/불참	19시 18분	1311	2:24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21시 44분	419	1:34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21시 19분	489	1:38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21시 11분	41	1:49
총계	20시 08분	2333	2:24

[표 63]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학교시간 평균 / 특성학교 학생

강제성_보충수업	평균	N	표준편차
시행하지않는다	16시 49분	39	0:52
자유롭게참여/불참	17시 25분	216	1:44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20시 17분	85	1:55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20시 10분	38	1:38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19시 30분	3	2:35
총계	18시 17분	381	2:11

[표 64]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학교시간 평균 / 특성학교 학생

강제성_야간자율	평균	N	표준편차
시행하지않는다	17시 46분	145	1:44
자유롭게참여/불참	17시 36분	159	1:57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20시 55분	51	1:36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20시 44분	20	1:21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18시 43분	3	2:49
총계	18시 17분	378	2:11

② 강제학습과 사교육 참여 : 강제학습, 사교육참여 억제효과 없이 학습시간의 총량 늘릴 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 그리고 강요당하는 학생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의 추가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사교육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강제로 보충수업에 참여시키는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81.8%로 가장 낮았지만, 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인 86.7%와 4.9%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차범위 이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초등학생 표본수 1531명, 신뢰도 95% 기준 오차범위 ± 2.5%)

중학생의 경우도 보충수업 참여의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72.2%에서 77.1% 사이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와 비교했는데, 이 역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표 65]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여부 / 초등학생

강제성_보충수업		사교육		총계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470	72	542
	%	86.7%	13.3%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768	130	898
	%	85.5%	14.5%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18	4	22
	%	81.8%	18.2%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4	0	4
	%	100.0%	0.0%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개수	54	11	65
	%	83.1%	16.9%	100.0%
총계	개수	1314	217	1531
	%	85.8%	14.2%	100.0%

[표 66]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여부 / 중학생

강제성_보충수업		사교육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총계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238	82	320
	%		74.4%	25.6%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794	236	1030
	%		77.1%	22.9%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328	111	439
	%		74.7%	25.3%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54	16	70
	%		77.1%	22.9%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개수		13	5	18
	%		72.2%	27.8%	100.0%
총계	개수		1427	450	1877
	%		76.0%	24.0%	100.0%

[표 67]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강제성_야간자율		사교육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총계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45	29	74
	%		60.8%	39.2%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855	457	1312
	%		65.2%	34.8%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260	159	419
	%		62.1%	37.9%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320	169	489
	%	65.4%	34.6%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개수	26	14	40
	%	65.0%	35.0%	100.0%
총계	개수	1506	828	2334
	%	64.5%	35.5%	100.0%

평일에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경우, 학생들이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학생들은 주말 사교육 참여 비율(사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 기준)이 73.3%,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말 사교육 참여 비율이 79%인 데 반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무조건 강제하는 경우, 혹은 조건을 달아 강제하는 경우 각각 82.6%, 83.9%의 주말, 공휴일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약 5~10%p정도 높은 수치이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학습하고, 주말 또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 등에 사교육참여를 압박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표 68]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주말 공휴일 사교육 참여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주말 공휴일 사교육 강제성_야간자율		주말에만참여	공휴일에만참여	주말과공휴일모 두참여	참여하지않는다	총계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11	3	22	9	45
	%	24.4%	6.7%	48.9%	20.0%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327	11	342	167	847
	%	38.6%	1.3%	40.4%	19.7%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 참여	개수	123	4	91	41	259
	%	47.5%	1.5%	35.1%	15.8%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 건을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132	3	134	48	317
	%	41.6%	0.9%	42.3%	15.1%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 여를강요	개수	12	0	13	1	26
	%	46.2%	0.0%	50.0%	3.8%	100.0%
총계	개수	605	21	602	266	1494
	%	40.5%	1.4%	40.3%	17.8%	100.0%

② 강제학습과 학업 스트레스 : 인문계열고 학생, 야간자율학습 강제당하는 집단 90.4% 학업스트레스 느낀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가 높은 가운데, 학습을 강요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높은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에 보충수업/방과후학교를 무조건 강제당하는 집단 중 73.9%, 불참시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79.7%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보충수업/방과후학교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인 68%보다 높았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집단의 학업스트레스 경험 비율(71.6%)과 무조건 강제당한
 다고 응답한 집단의 학업스트레스 경험비율(90.4%) 사이에 20%p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도
 위와 같은 두 집단 사이에서는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대해 15.2%p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69] 보충수업 강제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교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강제성_보충수업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98	119	48	54	319
	%	30.7%	37.3%	15.0%	16.9%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315	427	187	102	1031
	%	30.6%	41.4%	18.1%	9.9%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145	183	73	43	444
	%	32.7%	41.2%	16.4%	9.7%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31	24	6	8	69
	%	44.9%	34.8%	8.7%	11.6%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개수	7	6	3	2	18
	%	38.9%	33.3%	16.7%	11.1%	100.0%
총계	개수	596	759	317	209	1881
	%	31.7%	40.4%	16.9%	11.1%	100.0%

[표 70]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강제성_야간자율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23	30	8	13	74
	%	31.1%	40.5%	10.8%	17.6%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545	538	164	64	1311
	%	41.6%	41.0%	12.5%	4.9%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217	161	28	12	418
	%	51.9%	38.5%	6.7%	2.9%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295	150	34	11	490
	%	60.2%	30.6%	6.9%	2.2%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개수	23	17	0	1	41
	%	56.1%	41.5%	0.0%	2.4%	100.0%
총계	개수	1103	896	234	101	2334
	%	47.3%	38.4%	10.0%	4.3%	100.0%

[표 71] 야간자율학습 강제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강제성_야간자율 시행하지않는다	개수	46	45	29	24	144
	%	31.9%	31.3%	20.1%	16.7%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45	58	33	23	159
	%	28.3%	36.5%	20.8%	14.5%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30	10	9	2	51
	%	58.8%	19.6%	17.6%	3.9%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6	10	1	3	20
	%	30.0%	50.0%	5.0%	15.0%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개수	1	2	0	0	3
	%	33.3%	66.7%	0.0%	0.0%	100.0%
총계	개수	128	125	72	52	377
	%	34.0%	33.2%	19.1%	13.8%	100.0%

3. 학습부담과 사교육

① 학교학습과 사교육참여 이유 : 학교 학습시간이 길고 난이도 부담스러울 때, 별충을 위해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 이유와 학교의 학습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 해 보았다.

사교육 참여의 주된 이유 두 가지였던 ‘성적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려운 학교의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을 한 학생들은 학교 학습의 난이도와 시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 수업의 부담스러운 난이도와 과중한 학습시간과 양이 높은 사교육 참여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53.4%가 학교학습시간과 양이 많다고 응답했고, 52.6%가 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51.1%가 학교 학습시간과 양이 많다고 응답했고, 42.8%가 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사례 응답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빠른 속도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사의 설명이 어느 정도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진행한다든 전제 하에 이뤄지며, 시험의 ‘변별력’ 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다고 증언했다.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사교육에 참여하고, 점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답변 또한 다수였다.

[표 72] 사교육 참여이유에 따른 학교 학습시간과 양 적절도

사교육 참여이유	학습시간적절	너무많다	조금많다	적절하다	조금부족하다	너무부족하다	총계
보호자가원하고시켜서	개수	198	509	807	34	3	1551
	%	12.8%	32.8%	52.0%	2.2%	0.2%	100.0%
친구를만나거나사귀기위해	개수	14	69	119	8	0	210
	%	6.7%	32.9%	56.7%	3.8%	0.0%	100.0%
어려운학교수업을따라가기위해서	개수	307	580	727	43	3	1660
	%	18.5%	34.9%	43.8%	2.6%	0.2%	100.0%
성적이나경쟁에서승리감, 성취감을얻기위해	개수	77	258	624	42	8	1009
	%	7.6%	25.6%	61.8%	4.2%	0.8%	100.0%
성적이나경쟁에서 뒤처지는것이두려워서	개수	297	741	920	68	4	2030
	%	14.6%	36.5%	45.3%	3.3%	0.2%	100.0%
학교에서는제공하지않는것을 배워야해서	개수	83	207	403	38	4	735
	%	11.3%	28.2%	54.8%	5.2%	0.5%	100.0%
기타	개수	53	136	385	32	5	611
	%	8.7%	22.3%	63.0%	5.2%	0.8%	100.0%
총계	개수	553	1338	2173	144	15	4223

[표 73] 사교육 참여이유에 따른 학교 수업 난이도의 적절도

학교 수업 난이도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 부담스럽다	적당하다	조금쉽다	너무쉽다	총계
사교육 참여이유							
보호자가원하고시켜서	개수	71	469	873	114	22	1549
	%	4.6%	30.3%	56.4%	7.4%	1.4%	100.0%
친구를만나거나사귀기위해	개수	10	50	118	20	10	208
	%	4.8%	24.0%	56.7%	9.6%	4.8%	100.0%
어려운학교수업을따라가기위해서	개수	124	750	742	41	5	1662
	%	7.5%	45.1%	44.6%	2.5%	0.3%	100.0%
성적이나경쟁에서승리감, 성취감을얻기위해	개수	24	198	635	120	32	1009
	%	2.4%	19.6%	62.9%	11.9%	3.2%	100.0%
성적이나경쟁에서 뒤처지는것이두려워서	개수	107	762	1051	92	21	2033
	%	5.3%	37.5%	51.7%	4.5%	1.0%	100.0%
학교에서는제공하지않는것을 배워야해서	개수	29	176	437	86	7	735
	%	3.9%	23.9%	59.5%	11.7%	1.0%	100.0%
기타	개수	22	128	379	65	17	611
	%	3.6%	20.9%	62.0%	10.6%	2.8%	100.0%
총계	개수	206	1354	2307	293	63	4223

② 사교육 참여 이유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 성적 낙오가 두려워서 사교육참여하는 학생 82.4% 학업스트레스 느낀다.

사교육 이유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82.4%),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77.9%), 보호자가 원하고 시켜서(66.5%) 순서로 학업스트레스 빈도가 높았다. 주변의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떠밀려서, 혹은 보호자에 의해서 억지로 사교육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자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4] 사교육 참여 이유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사교육 참여이유						
보호자가원하고시켜서	개수	481	554	294	227	1556
	%	30.9%	35.6%	18.9%	14.6%	100.0%
친구를만나거나사귀기위해	개수	27	76	59	48	210
	%	12.9%	36.2%	28.1%	22.9%	100.0%
어려운학교수업을따라가기위해서	개수	667	629	216	150	1662
	%	40.1%	37.8%	13.0%	9.0%	100.0%

성적이나경쟁에서승리감, 성취감을얻기위해	개수	273	376	208	160	1017
	%	26.8%	37.0%	20.5%	15.7%	100.0%
성적이나경쟁에서 뒤처지는것이두려워서	개수	883	798	231	127	2039
	%	43.3%	39.1%	11.3%	6.2%	100.0%
학교에서는제공하지않는것을 배워야해서	개수	225	254	132	126	737
	%	30.5%	34.5%	17.9%	17.1%	100.0%
기타	개수	129	171	150	161	611
	%	21.1%	28.0%	24.5%	26.4%	100.0%
총계	개수	1420	1531	715	571	4237

4. 학습부담과 주변환경

① 주변으로부터의 성적에 대한 잔소리/압박과 학업스트레스 :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자주 경험하는 인문계열고 학생, 95.9% 학업스트레스 느낀다.

주변으로부터 성적에 대한 잔소리/압박을 자주 경험한 학생은 학업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생 중, 성적 압박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은 85.1%가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혹은 가끔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적 압박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중에는 19.5%로 급격하게 수치가 감소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적 압박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차이는 좁혀지는데,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서도 60.1%의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자주 또는 가끔 받는다고 응답했다.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을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한 인문계열고 학생은 95.9%가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응답했다.

[표 75]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전체

성적에 대한 압박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개수	개수	개수	개수	개수
자주있다	개수	942	377	66	33	1418
	%	66.4%	26.6%	4.7%	2.3%	100.0%
가끔있다	개수	789	1122	364	161	2436
	%	32.4%	46.1%	14.9%	6.6%	100.0%
별로없다	개수	234	554	441	236	1465
	%	16.0%	37.8%	30.1%	16.1%	100.0%
전혀없다	개수	96	213	174	437	920
	%	10.4%	23.2%	18.9%	47.5%	100.0%

총계	개수	2061	2266	1045	867	6239
	%	33.0%	36.3%	16.7%	13.9%	100.0%

[표 76]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성적에 대한 압박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자주있다	개수	308	136	24
	%	63.9%	28.2%	5.0%	2.9%	100.0%
가끔있다	개수	210	394	115	56	775
	%	27.1%	50.8%	14.8%	7.2%	100.0%
별로없다	개수	58	177	148	50	433
	%	13.4%	40.9%	34.2%	11.5%	100.0%
전혀없다	개수	28	60	39	94	221
	%	12.7%	27.1%	17.6%	42.5%	100.0%
총계	개수	604	767	326	214	1911
	%	31.6%	40.1%	17.1%	11.2%	100.0%

[표 77]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성적에 대한 압박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자주있다	개수	514	160	21
	%	73.1%	22.8%	3.0%	1.1%	100.0%
가끔있다	개수	438	455	94	26	1013
	%	43.2%	44.9%	9.3%	2.6%	100.0%
별로없다	개수	120	222	98	22	462
	%	26.0%	48.1%	21.2%	4.8%	100.0%
전혀없다	개수	38	69	24	47	178
	%	21.3%	38.8%	13.5%	26.4%	100.0%
총계	개수	1110	906	237	103	2356
	%	47.1%	38.5%	10.1%	4.4%	100.0%

[표 78] 성적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 경험 빈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성적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총계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자주있다	개수	29	18	4	1	52
	%	55.8%	34.6%	7.7%	1.9%	100.0%
가끔있다	개수	66	63	23	8	160
	%	41.3%	39.4%	14.4%	5.0%	100.0%
별로없다	개수	21	30	30	8	89
	%	23.6%	33.7%	33.7%	9.0%	100.0%
전혀없다	개수	14	15	17	37	83
	%	16.9%	18.1%	20.5%	44.6%	100.0%
총계	개수	130	126	74	54	384
	%	33.9%	32.8%	19.3%	14.1%	100.0%

② 부모(친권자, 보호자)의 만족도와 학업스트레스 : 부모가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여길수록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증가

자신의 학습량에 부모가 만족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느꼈다. 초등학생은 부모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33.2%)과 부모가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68.8%)에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응답에서 그 차이는 58.7%와 79.5%, 인문계열고 학생의 응답에서는 72.8%와 90.2%로 20%p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학업스트레스가 강할수록 부모가 자신의 학습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짐작하는 것이거나, 부모가 자신의 학습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79]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전체

보호자 만족정도		스트레스				총계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아주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217	302	218	372	1109
	%	19.6%	27.2%	19.7%	33.5%	100.0%
조금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618	880	503	316	2317
	%	26.7%	38.0%	21.7%	13.6%	100.0%
별로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낀다	개수	888	900	268	126	2182
	%	40.7%	41.2%	12.3%	5.8%	100.0%
전혀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낀다	개수	333	179	52	44	608
	%	54.8%	29.4%	8.6%	7.2%	100.0%
총계	개수	2056	2261	1041	858	6216
	%	33.1%	36.4%	16.7%	13.8%	100.0%

[표 80]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초등학생

보호자 만족정도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아주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58	143	138	267	606
	%	9.6%	23.6%	22.8%	44.1%	100.0%
조금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88	214	219	166	687
	%	12.8%	31.1%	31.9%	24.2%	100.0%
별로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낀다	개수	54	90	40	47	231
	%	23.4%	39.0%	17.3%	20.3%	100.0%
전혀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낀다	개수	15	18	7	8	48
	%	31.3%	37.5%	14.6%	16.7%	100.0%
총계	개수	215	465	404	488	1572
	%	13.7%	29.6%	25.7%	31.0%	100.0%

[표 81]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보호자 만족정도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아주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77	99	52	72	300
	%	25.7%	33.0%	17.3%	24.0%	100.0%
조금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200	338	155	88	781
	%	25.6%	43.3%	19.8%	11.3%	100.0%
별로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낀다	개수	242	288	104	36	670
	%	36.1%	43.0%	15.5%	5.4%	100.0%
전혀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낀다	개수	85	39	15	17	156
	%	54.5%	25.0%	9.6%	10.9%	100.0%
총계	개수	604	764	326	213	1907
	%	31.7%	40.1%	17.1%	11.2%	100.0%

[표 82]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보호자 만족정도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아주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64	48	21	21	154
	%	41.6%	31.2%	13.6%	13.6%	100.0%
조금만족하고있다고느낀다	개수	293	289	92	42	716
	%	40.9%	40.4%	12.8%	5.9%	100.0%

별로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 킨다	개수	537	459	100	29	1125
	%	47.7%	40.8%	8.9%	2.6%	100.0%
전혀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 킨다	개수	214	110	24	11	359
	%	59.6%	30.6%	6.7%	3.1%	100.0%
총계	개수	1108	906	237	103	2354
	%	47.1%	38.5%	10.1%	4.4%	100.0%

[표 83]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정도 체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보호자 만족정도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아주만족하고있다고느 킨다	개수	18	12	7	12	49		
	%	36.7%	24.5%	14.3%	24.5%	100.0%		
조금만족하고있다고느 킨다	개수	37	39	37	20	133		
	%	27.8%	29.3%	27.8%	15.0%	100.0%		
별로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 킨다	개수	55	63	24	14	156		
	%	35.3%	40.4%	15.4%	9.0%	100.0%		
전혀만족하지않고있다고느 킨다	개수	19	12	6	8	45		
	%	42.2%	26.7%	13.3%	17.8%	100.0%		
총계	개수	129	126	74	54	383		
	%	33.7%	32.9%	19.3%	14.1%	100.0%		

③ 학습시간과 양 적절도와 학업스트레스 : 인문계열고 학생 87.1%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 너무 부족하다 생각 하며 학업스트레스 느낀다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갈수록 학업스트레스는 줄어든다. 초등학생은 71.6%에서 33.9%, 중학생은 84.1%에서 60.8%로, 인문계열고 학생은 95%에서 75.1%로, 특성화고 학생은 90.3%에서 49.7%로 감소한다. 하지만 자신의 학습량이 부족하다고 여길수록 다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자신의 학습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스트레스를 자주 또는 가끔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54.6%, 중학생 71.1%, 인문계열고 학생 87.1%, 특성화고 학생 55.1%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습시간과 양이 가장 과중할 때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지만,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공부를 덜하거나 학습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사례 응답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주변의 친구들보다, 혹은 자신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보다 공부를 덜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긴 시간 공부한다는 것을 알아도 자신보다 '더' 공부하는 학생이 언제나 있음을 인식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시간과 양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실제로 학습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생들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표 84]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초등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학습시간적절						
너무많다	개수	44	19	7	18	88
	%	50.0%	21.6%	8.0%	20.5%	100.0%
조금많다	개수	63	119	75	61	318
	%	19.8%	37.4%	23.6%	19.2%	100.0%
적절하다	개수	78	260	287	371	996
	%	7.8%	26.1%	28.8%	37.2%	100.0%
조금부족하다	개수	24	62	34	38	158
	%	15.2%	39.2%	21.5%	24.1%	100.0%
너무부족하다	개수	6	6	4	6	22
	%	27.3%	27.3%	18.2%	27.3%	100.0%
총계	개수	215	466	407	494	1582
	%	13.6%	29.5%	25.7%	31.2%	100.0%

[표 85]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학습시간적절						
너무많다	개수	92	24	13	9	138
	%	66.7%	17.4%	9.4%	6.5%	100.0%
조금많다	개수	176	170	45	23	414
	%	42.5%	41.1%	10.9%	5.6%	100.0%
적절하다	개수	158	351	188	140	837
	%	18.9%	41.9%	22.5%	16.7%	100.0%
조금부족하다	개수	128	192	62	27	409
	%	31.3%	46.9%	15.2%	6.6%	100.0%
너무부족하다	개수	51	28	18	14	111
	%	45.9%	25.2%	16.2%	12.6%	100.0%
총계	개수	605	765	326	213	1909
	%	31.7%	40.1%	17.1%	11.2%	100.0%

[표 86]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학습시간적절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자주있다	가끔있다					
너무많다	개수	166	44	8	3	221		
	%	75.1%	19.9%	3.6%	1.4%	100.0%		
조금많다	개수	223	140	31	14	408		
	%	54.7%	34.3%	7.6%	3.4%	100.0%		
적절하다	개수	184	241	93	48	566		
	%	32.5%	42.6%	16.4%	8.5%	100.0%		
조금부족하다	개수	382	373	83	21	859		
	%	44.5%	43.4%	9.7%	2.4%	100.0%		
너무부족하다	개수	155	108	22	17	302		
	%	51.3%	35.8%	7.3%	5.6%	100.0%		
총계	개수	1110	906	237	103	2356		
	%	47.1%	38.5%	10.1%	4.4%	100.0%		

[표 87]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특성화고 학생

학습시간적절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자주있다	가끔있다					
너무많다	개수	20	8	1	2	31		
	%	64.5%	25.8%	3.2%	6.5%	100.0%		
조금많다	개수	41	28	7	5	81		
	%	50.6%	34.6%	8.6%	6.2%	100.0%		
적절하다	개수	30	42	44	29	145		
	%	20.7%	29.0%	30.3%	20.0%	100.0%		
조금부족하다	개수	30	40	17	10	97		
	%	30.9%	41.2%	17.5%	10.3%	100.0%		
너무부족하다	개수	9	7	5	8	29		
	%	31.0%	24.1%	17.2%	27.6%	100.0%		
총계	개수	130	125	74	54	383		
	%	33.9%	32.6%	19.3%	14.1%	100.0%		

④ 자신의 학습시간 적절도와 실제 학습시간 : 인문계열고 학생, 자신의 학습시간 적절도와 실제 학습시간 비례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부족하다고 여길수록 학습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학생들 자신이 생각하는 학습시간의 적절도와 실제 학습 시간은 모두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당 평일 사교육 학습시간의 경우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10시간 39분)보다 너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11시간 28분)이 더 긴 시간 사교육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서는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에서는 학습시간과 양이 너무 많다고 답한 학생(13시간 19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10시간 22분)보다 2시간 57분 더 긴 시간 사교육을 받았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11시간 37분)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12시간 4분)이 약 30분 더 학교에 머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의 경우 학습시간과 양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의 주당 평일 사교육시간 평균이 6시간 19분으로 다른 응답을 한 학생들의 주당 평일 사교육시간 평균보다 짧았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학생(12시간 15분)과 너무 적다고 응답한 학생(9시간 25분) 간에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의 차이가 컸지만,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과 조금 부족하거나 너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 학습시간과 자신의 학습시간/양에 대한 적절도가 절대적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시간 적절도에 대해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실질적 학습시간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표 88]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주당 평일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 / 초등학생

학습시간적절		학교있는시간	평일사교육시간합(주당)
너무많다	평균	6시간 21분	15시간 52분
	N	87	67
	표준편차	1:34	7:44
조금많다	평균	6시간 25분	13시간 35분
	N	316	270
	표준편차	1:07	6:23
적절하다	평균	6시간 16분	10시간 39분
	N	971	806
	표준편차	0:59	6:03

조금부족하다	평균	6시간 32분	10시간 22분
	N	154	111
	표준편차	1:14	6:05
너무부족하다	평균	6시간 19분	11시간 28분
	N	22	14
	표준편차	0:44	6:21
총계	평균	6시간 20분	11시간 32분
	N	1550	1268
	표준편차	1:05	6:25

[표 89]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주당 평일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 / 중학생

	학습시간적절	학교있는시간	평일사교육시간합
너무많다	평균	8시간 15분	13시간 19분
	N	137	111
	표준편차	1:02	6:35
조금많다	평균	8시간 05분	13시간 24분
	N	412	322
	표준편차	0:57	6:05
적절하다	평균	7시간 59분	11시간 24분
	N	828	576
	표준편차	0:51	5:35
조금부족하다	평균	8시간 04분	10시간 40분
	N	404	256
	표준편차	0:51	5:36
너무부족하다	평균	8시간 01분	10시간 22분
	N	107	54
	표준편차	0:47	6:51
총계	평균	8시간 03분	11시간 52분
	N	1888	1319
	표준편차	0:53	5:57

[표 90]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주당 평일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학습시간적절		학교있는시간	평일사교육시간합
너무많다	평균	12시간 39분	6시간 19분
	N	219	114
	표준편차	2:23	5:28
조금많다	평균	12시간 27분	7시간 35분
	N	408	228
	표준편차	2:21	5:34
적절하다	평균	11시간 37분	7시간 32분
	N	562	297
	표준편차	2:31	5:47
조금부족하다	평균	12시간 04분	6시간 26분
	N	857	444
	표준편차	2:29	5:01
너무부족하다	평균	11시간 32분	7시간 30분
	N	301	135
	표준편차	2:30	5:21
총계	평균	12:01	7:01
	N	2347	1218
	표준편차	2:29	5:25

[표 91] 자신의 학습시간과 양이 적절한지에 따른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 특성화고 학생

학습시간적절		학교있는시간
너무많다	평균	12시간 15분
	N	31
	표준편차	1:58
조금많다	평균	11시간 19분
	N	81
	표준편차	2:14

적절하다	평균	9시간 23분
	N	145
	표준편차	2:05
조금부족하다	평균	9시간 33분
	N	97
	표준편차	2:12
너무부족하다	평균	9시간 25분
	N	29
	표준편차	2:05
총계	평균	10시간 04분
	N	383
	표준편차	2:21

5. 휴일/심야학습과 학습부담

①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자유시간과 수면시간 :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전체 학교급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빈도가 높을수록 수면시간과 자유시간이 짧았다.

수면시간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의 빈도에 따라 초등학생은 8시간 39분에서 7시간 59분, 중학생은 7시간 47분에서 6시간 57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6시간 21분에서 5시간 38분, 특성화고 학생은 6시 43분에서 5시간 48분으로 감소했다.

자유시간 또한 마찬가지였다. 초등학생은 3시간 3분에서 2시간 39분으로, 중학생은 3시간 14분에서 2시간 29분으로, 인문계열고 학생은 2시간 46분에서 1시간 36분으로, 특성화고 학생은 2시간 59분에서 2시간 21분으로 감소했다.

이는 수면시간과 자유시간이 짧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거나,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일수록 수면시간과 자유시간을 줄여가며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표 92]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초등학생

스트레스		수면시간	자유시간
자주있다	평균	7시간 59분	2시간 39분
	N	212	208
	표준편차	1:19	2:08

가끔있다	평균	8시간 25분	2시간 54분
	N	462	437
	표준편차	1:08	1:52
별로없다	평균	8시간 34분	3시간 08분
	N	401	389
	표준편차	1:07	1:54
전혀없다	평균	8시간 39분	3시간 03분
	N	483	465
	표준편차	1:08	1:55
총계	평균	8시간 28분	2시간 58분
	N	1558	1499
	표준편차	1:10	1:56

[표 93]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중학생

스트레스		수면시간	자유시간
자주있다	평균	6시간 57분	2시간 29분
	N	594	581
	표준편차	1:14	1:56
가끔있다	평균	7시간 16분	2시간 42분
	N	755	739
	표준편차	1:00	1:50
별로없다	평균	7시간 29분	3시간 00분
	N	320	307
	표준편차	1:04	2:03
전혀없다	평균	7시간 47분	3시간 14분
	N	207	191
	표준편차	1:06	2:11
총계	평균	7시간 16분	2시간 44분
	N	1876	1818
	표준편차	1:08	1:57

[표 94]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의 수면시간과 자유시간 평균 // 특성화계열 학생

스트레스		수면시간	자유시간
자주있다	평균	5시간 48분	2시간 21분
	N	128	126
	표준편차	1:23	1:56
가끔있다	평균	6시간 18분	3시간 06분
	N	122	117
	표준편차	1:05	2:00
별로없다	평균	6시간 31분	3시간 26분
	N	74	68
	표준편차	1:16	2:07
전혀없다	평균	6시간 43분	3시간 43분
	N	54	48
	표준편차	1:29	2:16
총계	평균	6시간 14분	2시간 59분
	N	378	359
	표준편차	1:19	2:05

② 주말 학습과 학업스트레스 : 인문계열고 학생, 주말사교육 강제당하는 경우 92.1%, 주말에 사교육 참여하는 경우 91.5% 학업스트레스 경험

학교에서 주말과 휴일에 자습/보충학습을 시행하는 경우와,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학업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주말과 휴일에 학교에서 자습과 보충수업을 강요받는 학생들의 경우 주말 자율/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거나 자유롭게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빈도가 높았다. 학교에서 주말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학생 중 학업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85.6%였고, 학교에서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킨다고 응답한 학생은 92.1%가 같은 응답을 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주말과 공휴일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빈도가 높았다. 주말과 공휴일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초등학교 44.9%, 중학생 80.6%, 인문계열 고등학생 91.5%에 달했다.

휴일에 쉬지 못하고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자주 느낀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96] 주말 학습강요 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강제성_주말보충	시행하지않는다	338	315	77	33	763
	개수	44.3%	41.3%	10.1%	4.3%	100.0%
자유롭게참여/불참	개수	489	424	127	60	1100
	%	44.5%	38.5%	11.5%	5.5%	100.0%
학교나교사가무조건강제참여	개수	132	101	15	5	253
	%	52.2%	39.9%	5.9%	2.0%	100.0%
불참시불이익이있거나조건을요구하여사실상강제	개수	131	51	13	5	200
	%	65.5%	25.5%	6.5%	2.5%	100.0%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강요	개수	10	5	0	0	15
	%	66.7%	33.3%	0.0%	0.0%	100.0%
총계	개수	1100	896	232	103	2331
	%	47.2%	38.4%	10.0%	4.4%	100.0%

[표 97] 주말과 공휴일 사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주말사교육	주말에만참여	157	171	58	24	410
	%	38.3%	41.7%	14.1%	5.9%	100.0%
공휴일에만참여	개수	25	23	7	7	62
	%	40.3%	37.1%	11.3%	11.3%	100.0%
주말과공휴일모두참여	개수	131	101	38	18	288
	%	45.5%	35.1%	13.2%	6.3%	100.0%
참여하지않는다	개수	177	285	125	79	666
	%	26.6%	42.8%	18.8%	11.9%	100.0%
총계	개수	490	580	228	128	1426
	%	34.4%	40.7%	16.0%	9.0%	100.0%

[표 98] 주말과 공휴일 사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주말사교육						

주말에만참여	개수	297	239	53	20	609
	%	48.8%	39.2%	8.7%	3.3%	100.0%
공휴일에만참여	개수	10	9	2	0	21
	%	47.6%	42.9%	9.5%	0.0%	100.0%
주말과공휴일모두 참여	개수	341	214	44	8	607
	%	56.2%	35.3%	7.2%	1.3%	100.0%
참여하지않는다	개수	118	112	29	15	274
	%	43.1%	40.9%	10.6%	5.5%	100.0%
총계	개수	766	574	128	43	1511
	%	50.7%	38.0%	8.5%	2.8%	100.0%

③ 심야학습과 학업스트레스 : 초등학생, 중학생은 사교육에서,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학습스트레스 자주 느낄 수록 늦은 시간에 학습을 끝마친다.

인문계열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은 학업스트레스의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늦은 시간에 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는 학생의 하교시간(20시 27분)과 학업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하교시간(18시 50분) 사이에 1시간 37분의 차이가 났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학생(19시 17분)과 전혀 느끼지 않는 학생(17시 33분) 사이에 1시간 45분 차이가 났다.

[표 99]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초등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15시 02분	213	1:10
가끔있다	15시 04분	459	1:01
별로없다	15시 01분	401	0:56
전혀없다	14시 57분	485	1:06
총계	15시 01분	1558	1:02

[표 100]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중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16시 35분	602	0:51
가끔있다	16시 29분	758	0:45
별로없다	16시 30분	321	0:56
전혀없다	16시 25분	212	0:50

총계	16시 31분	1893	0:49
----	---------	------	------

[표 101]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20시 27분	1105	2:19
가끔있다	20시 07분	907	2:23
별로없다	19시 14분	238	2:30
전혀없다	18시 50분	102	2:32
총계	20시 08분	2352	2:24

[표 102]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 평균 / 특성화고 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19시 17분	130	2:16
가끔있다	17시 55분	126	2:00
별로없다	17시 41분	74	1:52
전혀없다	17시 33분	54	1:59
총계	18시 17분	384	2:11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하교시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에 대한 차이가 컸다.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종료시간이 늦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학생의 사교육 종료시간은 19시 30분, 학업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의 사교육종료시간은 18시 52분으로 약 40분 차이가 났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학생은 평균 21시 22분, 전혀 느끼지 않는 학생은 20시 34분에 사교육을 마쳐서 48분의 차이가 났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사교육 종료시간이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3]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평균 / 초등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19시 30분	184	1:42
가끔있다	19시 18분	384	1:36
별로없다	18시 58분	348	1:36
전혀없다	18시 52분	397	1:48
총계	19시 07분	1313	1:41

[표 104]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평균 / 중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21시 22분	478	1:28
가끔있다	21시 07분	566	1:15
별로없다	20시 54분	228	1:27
전혀없다	20시 34분	125	1:32
총계	21시 07분	1397	1:24

[표 105]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평균 / 인문계열고 학생

스트레스	평균	N	표준편차
자주있다	22시 40분	668	1:32
가끔있다	22시 32분	486	1:25
별로없다	22시 28분	113	1:32
전혀없다	22시 32분	34	1:07
총계	22시 36분	1301	1:29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 종료시간이 학업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었고, 인문계열/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학교의 하교시간과 연관성이 깊었다.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학업스트레스의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늦은 시간에 학습을 마쳤다. 휴식과 수면을 위한 저녁시간, 혹은 심야까지 쉬지 못하고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도 높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6. 지역별 조례 등 제도의 영향

①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의 학습 강요 실태 : 학생인권조례, 학교의 무조건적 학습강요 억제에 효과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네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공통적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에 따라 학습을 강요하는 빈도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에서 중학교의 보충수업, 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강요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무조건 강제한다는 답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는 7.9%이지만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에서는 30.3%로 세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고,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도 같은 응답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15.9%, 미시행 지역에서 31.9%로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인문계열고 학생의 야간자율학습 강요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는 9.3%가 강제당하는 반면, 미시행 지역에서는 두 배가 넘는 23.3%가 강제

당하고 있었다.

이는 곧 학생인권조례가 학습강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인문계열고 학생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강요에 관한 응답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조건을 요구하는 식의 학습 강요가 상당수 남아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도 보충수업의 경우 20%,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16.9%의 학생이 불이익이나 조건을 요구당하는 방식으로 정규수업 외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더라도 이를 더 잘 시행하고 강제학습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106]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보충수업 강제 여부 / 중학생

학생인권조례		보충수업	시행하지 않는다	자유롭게참여/ 불참	학교나교사가 무조건강제참여	불참시불이익이 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총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개수		140	372	45	6	6	569
	%		24.6%	65.4%	7.9%	1.1%	1.1%	100.0%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개수		181	660	399	64	12	1316
	%		13.8%	50.2%	30.3%	4.9%	0.9%	100.0%
총계	개수		321	1032	444	70	18	1885
	%		17.0%	54.7%	23.6%	3.7%	1.0%	100.0%

[표 107]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보충수업 강제 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학생인권조례		보충수업	시행하지 않는다	자유롭게참여/ 불참	학교나교사가 무조건강제참여	불참시불이익이 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총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개수		37	528	142	179	8	894
	%		4.1%	59.1%	15.9%	20.0%	0.9%	100.0%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개수		43	563	462	356	25	1449
	%		3.0%	38.9%	31.9%	24.6%	1.7%	100.0%
총계	개수		80	1091	604	535	33	2343
	%		3.4%	46.6%	25.8%	22.8%	1.4%	100.0%

[표 108]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 인문계열고 학생

학생인권조례		야간자율	시행하지 않는다	자유롭게참여/ 불참	학교나교사가 무조건강제참여	불참시불이익이 있거나조건을 요구하여사실상 강제	부모(친권자,보호자)가참여를 강요	총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개수		30	613	83	151	14	891

	%	3.4%	68.8%	9.3%	16.9%	1.6%	100.0%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개수	45	700	338	339	27	1449
	%	3.1%	48.3%	23.3%	23.4%	1.9%	100.0%
총계	개수	75	1313	421	490	41	2340
	%	3.2%	56.1%	18.0%	20.9%	1.8%	100.0%

②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평균 :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사교육종료시간 기준으로써 기능한다.

지역마다 시행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의 시각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구체적 시간은 [표 109]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21시 이전에 사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87.7%였고, 규제시간 이후의 교습은 10% 안팎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22시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15% 정도의 학생들이 규제시간 이후에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23시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규제시간 학습은 3.4%, 24시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지역에서는 0.4%의 학생이 그 이후 시간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같은 항목의 수치가 각각 40.2%, 27.7%, 13%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어느 정도 심야영업시간 규제가 사교육 종료시간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문계열고 학생들은 규제 시간 이후에도 학원영업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인문계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등이 밤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입시의 직접적 압박 등으로 인해 그만큼 심야 학습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심야영업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표 109] 지역별 학교급에 따른 학원교습 규제 시간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1시 제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22시 제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23시 제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24시 제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11시 50분)

[표 110]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분포 / 초등학생

사교육종료 학원조례		21:00 이전	21:01 - 22:00	22:01 - 23:00	23:01 - 24:00	24:01 이후	총계
21시 제한	개수	410	38	9	4	1	462
	%	88.7%	8.2%	1.9%	0.9%	0.2%	100.0%
22시 제한	개수	613	80	18	2	0	713
	%	86.0%	11.2%	2.5%	0.3%	0.0%	100.0%
23시 제한	개수	76	3	4	0	0	83
	%	91.6%	3.6%	4.8%	0.0%	0.0%	100.0%
24시 제한	개수	55	1	0	2	0	58
	%	94.8%	1.7%	0.0%	3.4%	0.0%	100.0%
총계	개수	1154	122	31	8	1	1316
	%	87.7%	9.3%	2.4%	0.6%	0.1%	100.0%

[표 111]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분포 / 중학생

사교육종료 학원조례		22:00 이전	22:01 - 23:00	23:01 - 24:00	24:01 이후	총계
22시 제한	개수	616	86	22	1	725
	%	85.0%	11.9%	3.0%	0.1%	100.0%
23시 제한	개수	459	111	16	4	590
	%	77.8%	18.8%	2.7%	0.7%	100.0%
24시 제한	개수	64	13	6	1	84
	%	76.2%	15.5%	7.1%	1.2%	100.0%
총계	개수	1139	210	44	6	1399
	%	81.4%	15.0%	3.1%	0.4%	100.0%

[표 112]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 종료시간 분포 / 인문계열고 학생

사교육종료 학원조례		22:00 이전	22:01 - 23:00	23:01 - 24:00	24:01 이후	총계
22시 제한	개수	315	95	81	36	527
	%	59.8%	18.0%	15.4%	6.8%	100.0%
23시 제한	개수	88	84	55	11	238
	%	37.0%	35.3%	23.1%	4.6%	100.0%
24시 제한	개수	146	113	208	70	537
	%	27.2%	21.0%	38.7%	13.0%	100.0%

총계	개수	549	292	344	117	1302
	%	42.2%	22.4%	26.4%	9.0%	100.0%

[표 113] 학원심야교습금지조례 준수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야교습금지시간 준수	개수	1244	1269	954
	%	94.5%	90.7%	73.3%
심야교습금지시간 미준수	개수	72	130	348
	%	5.5%	9.3%	26.7%
총계	개수	1316	1399	1302
	%	100%	100%	100%

③ 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 /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와 학업스트레스 경험빈도 : 학생인권조례,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여부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경험빈도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과 미시행 지역에서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학원 심야학습 금지 조례 또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학업스트레스는 어느 하나의 요인만이 아닌 한국 사회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시간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4]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개수	767	838	365	326	2296
	%	33.4%	36.5%	15.9%	14.2%	100.0%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개수	1296	1431	682	541	3950
	%	32.8%	36.2%	17.3%	13.7%	100.0%
총계	개수	2063	2269	1047	867	6246
	%	33.0%	36.3%	16.8%	13.9%	100.0%

[표 115]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초등학생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21시 제한	개수	62	125	125	163	475
	%	13.1%	26.3%	26.3%	34.3%	100.0%

22시 제한	개수	100	229	202	207	738
	%	13.6%	31.0%	27.4%	28.0%	100.0%
23시 제한	개수	9	26	22	30	87
	%	10.3%	29.9%	25.3%	34.5%	100.0%
24시 제한	개수	16	17	13	12	58
	%	27.6%	29.3%	22.4%	20.7%	100.0%
총계	개수	187	397	362	412	1358
	%	13.8%	29.2%	26.7%	30.3%	100.0%

[표 116]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중학생

학원조례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22시 제한	개수	258	305	117	68	748
	%	34.5%	40.8%	15.6%	9.1%	100.0%
23시 제한	개수	208	238	108	52	606
	%	34.3%	39.3%	17.8%	8.6%	100.0%
24시 제한	개수	28	46	9	8	91
	%	30.8%	50.5%	9.9%	8.8%	100.0%
총계	개수	494	589	234	128	1445
	%	34.2%	40.8%	16.2%	8.9%	100.0%

[표 117]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경험 빈도 / 인문계열고 학생

학원조례 \ 스트레스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22시 제한	개수	301	226	57	26	610
	%	49.3%	37.0%	9.3%	4.3%	100.0%
23시 제한	개수	157	106	17	1	281
	%	55.9%	37.7%	6.0%	0.4%	100.0%
24시 제한	개수	310	242	57	16	625
	%	49.6%	38.7%	9.1%	2.6%	100.0%
총계	개수	768	574	131	43	1516
	%	50.7%	37.9%	8.6%	2.8%	100.0%

현재 학생인권조례와 학원 심야교습금지 조례가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강제학습을 줄이거나 심야학습을 억제하는 등, 소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보다 훨씬 획기적인 학습시간 감소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장. 심층인터뷰 결과

1절. 심층인터뷰 개요

1. 심층인터뷰 방법

온/오프라인 설문 종료 후, 구체적인 학습부담의 사례를 남긴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인터뷰 방식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등 시행되고 있는 학생 관련 정책의 다양함과 학교급, 학교 형태에 대해 고려하여 피면접자를 선정하였다.

계획상으로는 총 6회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되어있던 한 중학생 피면접자의 보호자가 인터뷰 참여에 동의하지 않아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답변의 내용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제외했다.

초등학생 피면접자의 경우, 1대 1의 대면인터뷰가 피면접자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여 그룹인터뷰로 진행하였고, 전 년도의 담임교사가 동석하여 진행하였다.

2. 피면접자 기본정보

■ 첫 번째 심층인터뷰 피면접자: A, B, C, D (4인)

- 지역: 대구광역시
- 학교: 일반 초등학교(공립) / 6학년
- 성별: 여성
- 기타: 모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동급생

■ 두 번째 심층인터뷰 피면접자: F (1인)

- 지역: 경기도
- 학교: 혁신중학교(공립) / 2학년
- 성별: 여성

■ 세 번째 심층인터뷰 피면접자: E (1인)

- 지역: 서울특별시
- 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사립) / 1학년
- 성별: 남성

- 기타: 학교기숙사에서 생활

■ 네 번째 심층인터뷰 피면접자: E (1인)

- 지역: 광주광역시

- 학교: 일반 고등학교(사립) / 2학년

- 성별: 여성

■ 다섯 번째 심층인터뷰 피면접자: G(1인)

- 지역: 울산광역시

- 학교: 일반 고등학교(사립) / 3학년

- 성별: 남성

2절. 심층인터뷰 내용

“학원 덜 힘든 곳, 시험 안 치는 곳으로 전학 가고 싶다”

첫 번째 심층인터뷰 : 대구 초등학생

피면접자 : A, B, C, D (대구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면접일시 :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면접자 : 공현 (동석: 전년도 담임 교사)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일으키다 보면 자꾸 뒤로 가게 되고.. 폭신하니까 다시 자게 되고..

공현 : 네 분이 같은 학교 다니시니까. 그런데 일단 등교시간이 몇 시예요?

A : 8시 반까지예요.

공현 : 수업은 몇 교시까지 보통 해요?

B : 여섯 교시? 수요일은 5교시. 다른 날은 6교시. 7교시는, 행복 그거 할 때만 했어요.

교사 : 대구에 행복기가 있어요. 수업을 길게 하는 행복기. 행복교과수업 할 때 한 교시 더 하는 거.

B : 우리에겐 불행기.

공현 : 그러면은 5교시 말고 6교시 할 때는 보통 몇 시에 끝나는 거죠? 3시?

일동 : 2시 50분

C : 저희 받은 종례를 하고 마치기 때문에, 3시에서 늦으면 20분?

공현 : 꽤 오래하네요 종례를?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같은 것도 하세요 그다음에?

B : 네. 음악 줄넘기

C : 컴퓨터

공현 : 방과 후 학교까지 끝나면 5시? 4시 정도 되나요?

A : 4시 쯤...

공현 : 그렇게 하고 학원을 가시는 거죠?

교사 : 음? 그럼 저녁 언제 먹어요?

A : 제가 수성구에 학원을 다녀서, 셔틀을 타고 다녀서. 집에 오면 밤 8시 10분 정도 돼서 그때 밥 먹어요.

B : 저도 수학학원 다닐 때는 8시쯤에 먹었어요.

교사 : 그러면 12시에 밥 먹고 8시에 저녁 먹는다고요? 8시간이나 뜨는데?

B : 가다가 뭐 어디 가서 빵 같은 거 먹고.

C : 휴게소에서 먹고. 아 휴게소가 아니고 편의점. (웃음)

공현 : 등교시간이 8시 반이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C : 전 7시

B : 8시? 5학년 때는 7시에 일어났는데, 6학년 되니까 8시에 일어나게 돼요.

A : 저도요. 5학년 때는 7시 반에 일어났는데 6학년 되니까 더 피곤해져서 빠르면 45분? 오늘 50분 일어났어요.

교사 :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아침에?

B :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다 보면 자꾸 뒤로 가게 되고 뒤로 가면 폭신폭신타니까 자게 되고 자다보면 일어나면 눈 뜨면 8시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8시에 일어나요.

A :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공현 : 늦게 주무시고 7시 반에 일어나기 안 피곤하세요?

C : 피곤해요.

A : 밥보다 머리가 중요해요. 파마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B : 나는 머리로 안 말리고 그 시간에 밥 먹고.

평일에 학원 안 다니는 날 없어요.

교사 : 학원 다 많이 다니죠? 7초 사람들 학원 많이 다니는데.

A : 방학 때면 학원을 두 개나 더 늘어나요. 수학만 방학에 3개를 해요.

교사 : 수학학원을 3개를 다녀요?

A : 똑같은 데 두 개인데 두 타임 해서. 중학교 거 하고 6학년 2학기 거 하고, 학습지 하고.

B : 얼마 전에 수학 끊었는데. 근데 집에서 해요.

교사 : 혼자? 학습지 같은 거?

B : 혼자 할 때도 있고, 문제지도 풀고.

교사 : 다른 사람은요? D 씨는요? 학원 몇 개 다녀요?.

D : 3개 다녀요. 눈높이랑 수학 영어.

C : 저는 그냥 영어. 저는 그냥 5개, 영어, 역사, 줄넘기.

교사 : 줄넘기가 학원이 있어요?

B : 방과 후랑 해요.

공현 : 사시는 곳이 1초면은, 북구인가요? 어디죠? 북구에서 수성구까지 가세요, 학원을?

A : 네 차 타고 다니는데, '재시' 를 걸리면 9시 10시쯤.

B : 수성구 학원 다니려고 하다가 학원 숙제가 많다고 해서 끊었어요.

A : 전 M학원 다녀요. M학원이 숙제를 많이 내요.

교사 : 요즘 M학원 아직도 녹음 숙제 내줘요?

A : 당연하죠.

교사 : 전설이지. M학원이 영어 학원인데 자기 발음을 녹음해서 사운드 파일 제출해야 한단 말야. 그런데 너무 숙제하기 힘들었던 학생이, 선생님 저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나서 못보내겠다고, 숙제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숙제 안 한 채로 그냥 학원 가는 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전화했는데, 학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A/S 기사를 보내줬어.

A : 학원에 A/S가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앱이 안되거나 앱 사이트가 고장이 나면 학원 A/S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고쳐주는 거예요.

공현 : 그러면 네 분은 학원까지 끝나면 집에 오는 게 몇 시 정도예요?

A : 8시.

B : 6시, 7시쯤.

C : 한 7시?

D : 7시 정도.

공현 : 저녁은 끝나고 나서 드시겠네요. 학원은 주5일 가는 거고?

B : 끊었는 수학이 전에 주 5회였어요.

교사 : 안 가는 요일 있어요, 학원 안 가는 요일?

A : 없어요.

C : 월에서 목까지 다 가요.

A : 보통 하루에 3개 정도 있어요.

공현 : 주말에는 어때요?

A : 다니다가 끊었어요. 주말엔 친구들이랑 놀아요. 주말엔 1시부터 놀면 기본 5시간? 엄마가 아침마다 평일에, 평일에 힘들어 했으니까, 그래서 주말엔 그냥 놀게 해주세요.

교사 : 끊기 전엔 어땠어요?

A : 학원 끊기 전엔 힘들었어요.

공현 : 주말 얼마나 다녔어요? 그 전엔?

A : 토요일에 1개. 사고력 학원. 2시간씩.

교사 : 1초 근처에는 S학원 없나. 학원체인이에요. S 수학학원 있나? 그 학원 왜 물어보나면 그 학원은 시간으로 안 정하고 양으로 정해서 그 양 안 끝내면 집에 안 보내요.

A : 저희 수학학원이요. 화금은 시간 정했는데 수요일은 테스트지 주고 다 할 때까지. 만약 30분만에 끝나면 30분만에 집에 가고.

교사 : 안 되면 계속 있고?

A : 만약 밤 8시 넘으면 보내주고요.

숙제를 끝내고 나면, 11시, 12시 ...2시.

공현 : 그러면 이렇게 학원 끝나고 저녁 먹고 또 학교 숙제 이런 것도 해야겠네요.

A : 영어숙제, 학원 숙제요. 너무 많아서 12시 넘어서 자요.

B : 기본은 12시.

공현 : 이렇게 하고서 주무시는 시간은 보통 어떻게? 방금 말한, 12시 넘어서?

A : 11시에서 12시 사이.

B : 10시에서 11시.

C : 2시

공현 : 새벽 2시?

B : 여기 영어숙제 진짜 많아서 새벽 2시, 3시에 자. 나는 그때까지 못 있어. 그럴 거면 숙제를 아예 안 해 가.

공현 : 이야기 들어보면은 평일에는 거의 노는 시간이 채 한두 시간도 채 안 되겠네요?

A : 30분 정도?

B : 저는 학교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 비고, 그 후로는 계속.

교사 : 근데 그 때 놀려면 전화해서 부모님에게 허락받아야 하지 않나.

B : 허락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5학년 때는 받아야 했는데 지금 6학년 되니까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놀다가 오늘 놀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작년에는 그냥 전화해서 안된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고, 된다 하면 놀다 들어가고.

공현 : 굉장히 오래 공부하시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서 하세요? 어때요?

B : 재미있으니깐

C : 컴퓨터는 자격반이라서.

공현 : 자격증 따는 거 때문에.

교사 : 뭐가 재밌어요? 방과후?

B : 줄넘기

교사 :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과 후 컴퓨터 선생님이 이 자격증 있어야 대학교 간다고 해서 엄청 많이 신청하고, 나한테도 학생이 와서 선생님 진짜 이 자격증 못 따면 대학 못가냐고 물어보고.

단원평가 80점 못 받으면 재시험, 재재시험, 재재재시험...

공현 :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나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공부를 하라고 압박을 준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A : 저희 반은 기말고사는 다 오답풀이를 해야 되고, 만약에 평균보다 낮으면은 하루에 한 장씩 복습노트를 작성해야 하고, 맨날 수업시간마다 스템국어 스템사회... 파일이 남는 날이 없어요. 하루에 기본 서너 장씩 주고.

교사 : 하루에 서너 장씩 학습지를 계속 한다고요?

A : 네. 적을 때는 한 장이고 많을 땐 서너 장. 우리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를 불러서 그걸 시켜요. 뭐라고 해야 되지. 책임감에 대한 그런 걸, 스티. 책임감에 대한 거 적는 것 8장 있는데, 불러 가지고 4장 4장 나눠주고 적게 시키고. 그런 거 시키니까...

발표 무조건 해야 하고 발표할 때 데시벨 재고 그래요. 저 5학년 때 목소리 작았잖아요. 발표할 때. 근데 지금은 완전 커져 가지고.

교사 : 데시벨 뭘로 재는데요?

공현 : 기계로? 앱이 있어서?

A : 그리고 발표할 때 선생님이 복도 나가서, 목소리 안 들린다고 크게 다시 하라고. 잔소리를 40분 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예전 학교랑 비교하고, 싫어요. 예전 학교 애들은 학교 작은데도 뭐... 학생 수도 적어서... 기초는 어떻게 다 자꾸 평가 하고

B : 저희는 재시 있어요. 단원 평가를 치면 80점 안 넘으면 재시하고. 그니까 단원평가 80점 넘지 않는 사람 재시험 보게 해요. 근데 40, 50점 맞는 애들 있거든요. 그렇게 맞아도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더 발표도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하나씩, 그렇게 세게 잡는 건... 네. 재시에서 80점 안 넘으면 또 재재시, 또 80점 안 넘으면 재재재시.. 저희 80점이 넘을 때까지 계속 시험 쳐요.

A : 저희는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쩔 때는 다 안 맞으면 재시

B : 우리는 80점으로 그냥 정해서.

교사 : 그럼 매일 매일 재시 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겠네요.

B : 말했다시피 40~50점 맞았던 애들은 매일 남아서 공부 시키고, 재재재시 하면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곡하게 다 적게 하고.

C : 우리도.

교사 : 남는 학생들은 재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B : 재시 치면 재시 치자. 아 어쩔 수 없다. 시험지 낼 때부터 아 나 재시네 하면서. 이렇게 풀고 재시 걸리면 아 그래 이게 원래 내 성적이었어 하면서 재재시 또 걸리면 아 다시 공부하자 하면서 또 하고, 지금 아직 재재시 걸린 애들은 좀 있는 거 같고. 저희 반은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A : 저희 반은 학습도우미 샘을 붙여 가지고. 그, 학생.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공부 잘 하고 그런...

교사 : 학생한테 학생들을 학습도우미 선생으로 붙인다고요?

A : 그런데 그 애가 시험을 못 치면 학습도우미 샘도 남아서. 제가 한 적 있어요. 점심시간 때 남아서도 막 이거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고 가라고. 다음 시험에도 틀리면 계속 해야 한다고. 결국에 제가 가르쳐서 통과됐어요.

공현 : 그건 좀 억울하겠다.

A : 억울했어요.

교사 : 받는 학생은 어땠어요?

A : 받는 학생은 저랑 친해서... 부담감 느끼는 거 같긴 했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남아야 하니깐... 그냥 나도 잘 하고 싶는데 그게 안 된다고.

교사 : 그거 너무 속상하다

B : 그 입장에서도 되게 미안했겠다. 나 때문에 계속 해야 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데.

A : 백점 안 맞으면 나도 남아야 하는데 좀 잘하면 안 돼? 하나씩.

D : 저희 반은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교사 : 학생들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신경 안 써요? 진짜 아무...

D : 수업시간에 자습시간 주고, 쌤은 놀고, 가끔씩 자거나

B : 6반 선생님은 제가 들었는데, 수학 4단원을 니네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수학 교과서를 4단원 다 풀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교사 : 4단원이 뭐예요?

C : 비와 비율

교사 : 어 그거 어려운데.

B : 그걸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다 풀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수업 때 잠자고 있는다고 하고, 어쩔 때는 수업시간 도중에 선생님이 노래도 부른다고 하고, 그 반 애가 저한테 와서 수학기랑 수익 다 풀어 가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선생님이 뭐랄까 자꾸 안 가르쳐 주시는 거 같아요.

공현 : 아까 전에 늦게까지 숙제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학원?

A : 학원.

B : 학교 숙제는 거의 없어요. 학교 숙제는 그냥 선생님이 수학익힘책이나 이런 거 풀어오라고 하던가, 단원평가 있으니까 공부 조금 해오라고 그런 식으로 내고

교사 : 학교 숙제 많이 내면 항의 받거든 부모님들한테.

A : 저희는 그 뭐지? 수학 일지를 하루에 하나씩, 두 장씩 적는데 저는 그거 학교에서 다 해가서 집에 숙제가 없는 데 다른 애들은 집에서 하죠.

방학이 두 달이면, 한 달정도 여행을 가고 싶다. 나머지 기간은, 숙제해야 되고.

공현 : 이제 곧 방학하잖아요?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가 있어요?

A : 네 이번주 목요일 방학. 오후에 하던 거 오전에 당겨서.

B : 저는 한 개 끊고 두 개 더 들어요.

공현 : 방학일수는 며칠 정도 돼요?

C : 삼십 며칠?

교사 : 개학 며칠에 하는데요?

C : 9월 1일

교사 : 그럼 똑같네요. 39일.

B : 원래 여름 30일 아니었나? 그 대신에 겨울이 짧아진단데.

A : 지금 39일 하는 대신에 겨울방학이 좀 짧았어.

공현 : 9월 1일이 개학이면 여름방학이 긴 편이네요?

교사 : 작년에는 8월 개학이었어.

공현 : 방학은 충분한 것 같아요? 여름, 겨울 통틀어서

A : 겨울은 며칠인지 잘 몰라서, 근데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좀 짧은 것 같은 느낌.

교사 : 단기방학은 어땠어요?

B : 제 생일이 단기 방학 때 켜 있어서 파티를 열려고 하니까... 근데 단기방학이 5학년 때도 있었어요?

교사 : 아니 올해 처음 생겼어요. 좋았어요?

B : 그냥 괜찮았는 거 같아요. 저한테 안 좋았는데, 생일 때문에. 그거 빼면 단기방학 생기니까 좋죠. 조금이라도

실 수 있으니까.

교사 : 그런데 방학이 줄잖아요.

B : 줄었어요?

교사 : 1년 중에 방학인 일수는 똑같고, 여름 겨울 잘라서, 총 일수는 똑같아요.

B : 그럼 싫죠.

교사 : 그럼 단기방학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B : 네. 없어지고 여름방학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방학일 때 계속 방학인 게 되게 좋지. 단기 방학은 좀.

교사 : 방학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B : 40일 정도?

A : 40일?

교사 : 40일 정도면 그러면 7월 십 며칠에 방학해서 9월 1일에 개학하고?

A : 아쉬워요. 뭔가 빨리 간다고 해야 하나.

B : 이십 며칠에 방학 하니까, 되게 짧은 느낌이 나요. 곧 있으면 30일이니까.

교사 : 7월이 금방 가는 느낌이군요.

B : 네 방학이 짧아지는 느낌. 9월 1일이면 8월달 전체가 방학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십 며칠에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좋아요.

공현 : 저 사는 동네 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이 이번에 18일인 데가 있던데, 여름 방학이. 메르스 때문에 휴교한 것도 있고요. 그래봤자 그 나흘 더해봤자 23일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방학이 제일 긴 건 맞는데, 이것보다 더 짧아지면 어떨 거 같아요? 느낌이?

C : 싫어요.

교사 : 왜요?

C : 길면 좋으니까. 많이 실 수 있으니까.

A : 학교 안 가는 시간에 숙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학원 숙제를.

교사 : 그것도 속상해. 그게 뭐야.

B : 그러면 일찍 잘 수 있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현 : C 씨는 어때요? 방학 충분한 것 같아요?

C : 네.

교사 : 만약에 방학을 늘릴 수 있다면? 며칠쯤 하겠어요? 뭐 내가 교육부장관이다?

B : 60일.

교사 : 60일? 이유 이유.

B : 한 달은 뭔가 짧은 거 같아요. 이어서 방학을 한 번에 많이 쉬게 60일 다다다 붙여서.

교사 : 만약에 60일 방학이면 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방학 때?

B :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해외 가면 보통 많이 잡으니까, 음 삼십 며칠이면 조금 갔다가 나머진 다 숙제니까 힘들니까, 해외나 여행 갈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남은 시간에 숙제할 수 있는 시간도 나니까. 길면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교사 : 여행 말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주세요. 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A : 숙제

공현 : (웃음) 숙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일?

C : 자는 거

교사 : 자는 거?

A : 비행기 타보고 싶어요.

공현 : 방학 때는 좀 자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 늘어나나요?

C : 네 10시까지 자요.

A : 애는 맨날 일찍 일어나요.

B : 그게, 엄마 아빠 둘 다 일하러 가시니까, 할머니 집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좀 늦게 간다고 9시에 가서 하면 집에 9시에 아무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할머니 집 가서 좀 졸다가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점심시간, 가장 싫은 건 단체기합

공현 : 학교 다닐 때 등교시간부터 수업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학교 끝나고 했을 때, 좀 가장 재미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A :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C : 밥 먹을 때 되게 좋고.

B : 밥 먹을 때! 무조건 두 그릇 먹어야 해요. 맛있는 거 나올 때 세 그릇 먹고, 맛있는 거 나올 땐 반 그릇 먹고.

교사 : 그러면 두 그릇 먹으면 점심시간 짧지 않아요?

B : 30분 남아요.

공현 :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되나요?

교사 : 응 딱 1시간. 예비중 치면 교실에 들어와 앉으라고 하죠?

B : 저희 반은 축구 하다 자꾸 예비중 치고 안 들어오고 수업시간에 딱 들어오니까, 되게 많이 혼나서. 예비중 치고 안 들어오면 축구 못하게 한다고 해서, 딱 예비중 치고 15분까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책 안 꺼내면 앉았다 일어났다 귀 잡고 100개 해야 하나까.

교사 : 100개요?

B : 맨 처음 걸리면 50개, 두 번째 걸리면 60개, 다섯 번 걸리면 100개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계속 100개 해야 해요.

C : 저희도

B : 그래서 일찍 와서 책 안 꺼내놓으면 계속 100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 : 그럼 실제 점심시간은 50분이네요?

공현 :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B : 그렇게 따지면 50분.

A : 네. 그런데 1시 5분쯤엔 밖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거의 45분? 그리고 저희 반도 그래요. 앉았다 일어서기 엄청 많이 하는데, 책을 안 빌렸어요. 대출 기간에 책을 안 빌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200번 하고.

교사 : 도서관에서 책을 안 빌렸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다고요?

A : 200번 시켰어요.

D : 저희는 안 빌리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A : 그리고 명심보감 쓰기... 그거 있잖아요.

교사 : 이 반만 이런 거죠?

A : 네, 그리고 학교 마치고 1시간 동안 침묵의자라 하나? 앞에 가서 의자 끌고, 움직이면 30분씩 더.

B : 그리고 이 반이랑 다른 반 하나가, ‘다카오’ 써야 해요.

A : 요 자 쓰면 그 말한 걸 100번을 써요. 만약에 뭐하세요 하면 “뭐하세요” 를 100번 쓰거나.

B : 저 3학년 때 저런 거 했는데 저희는 그냥 끝 자에 요를 세 번 쓰면 앉았다 일어났다 10개를 했어요. 저희는 되게 벌칙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해서.

A : 준비물 안 들고 오면 앉았다 일어났다 100개, 체육복 안 입고 오면 100개, 책 안 들고 오면 100개. 음식 먹으면 명심보감, 휴대폰 만지면 명심보감. 휴대폰 벨 울리면 일주일 동안 압수.

B : 저희는 아침에 오면 폰을 바구니에 다 내고 바구니를 다시 안에 넣은 다음 선생님이 열쇠로 다 잠궜어요. 그리고 나갈 때 꺼내서 주고.

A : 저희 반은 처음에 바구니 하려고 하다가 애들이 강렬히 반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데 대신 안 끄면 압수.

D : 저희는 갖고 놀다가 뺏기면 1년 뒤에 줘요.

교사 : 실제로 뺏긴 사람 있어요?

D : 다른 반 애들도 뺏긴 적 있어요. 안 돌려줘요. 졸업할 때 준대요. 저희 반에 틴트 진하게 바르는 애가 있는데 틴트를 다른 애 것을 발라 갔는데, 다른 애 거 틴트를 뺏아서, 방학식 때 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줬어요. 립스틱 바르듯이 짝 발라서.

공현 : 웬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같을 거 같긴 한데, 답이, 학교에서 가장 기분이 나쁠 때 혹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좋을 때는 점심시간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A :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우리 반에 약간 질 안 좋은? 그런 애들이랑 놀다가 개가 먹을 거를 하리보 젤리를 줬어요. 그걸 한 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네 뭐 먹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명심보감 한 개 썼는데 그때 줌.

공현 : 하리보 젤리 먹었다고 명심보감...

A : 네. 한 갠가 두 개 먹다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선생님 없는데, 1층에서 슬래잡기 하면서 놀다 먹었는데, 놀면서 애들 젤리 꺼내서 먹었는데.

공현 : 다른 분 학교에 있을 때 가장 힘들다고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

B : 저희가 교과 시간 때 경고나 혼나면 다음 시간이면 한 교시 동안 혼나요. 그런데 아무 것도 잘못 안하고 있는데 반 전체가 혼나요. 그니깐 조용히 있고 집중도 했는데 그 교과시간 때 다른 애가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반 전체가 귀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안 맞추면 다시 하고 했던 게 힘들었어요.

공현 : 반 전체가 했다고요?

B : 아 반 전체가 했던 것은 담임 선생님 시간 때 그랬고, 교과 시간 때는 다 같이 한 교시동안 혼 나고 너무 잘못했던 애들은 귀 잡고 하고.

C : 저희는 교과 시간 때 떠든 애들 이름 적어서 내라고 하고 떠들면 명심보감을 적는 게.

B : 그리고 체육 시간 때 체육 하고 들어오면, 또 시끄럽다고 체육 끝나고도 줄을 여자 한 줄 남자 한 줄 서서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되게 싫어요.

A : 저희 그렇게 줄 안 서면은 음악실이 4층인데, 그거 줄 안 서서 들어오면 앉았다 일어났다나 명심보감 써요.

B : 저희도 음악 시간 때 딱 나오면 다 한 줄 한 줄 서서 가야 하고... 선생님 아플 때는 음악실까지 뒤에다 서서 한 줄 한 줄 서서 음악실이든 영어실이든.

D : 저 줄 안 섰다고 오리걸음 했어요.

교사 : 다들 단체로 벌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D : 아 저도 싫어요.

교사 : 그럴 때가 가장 기분이 안 좋아요?

A : 저희 단체로 잘 안 혼내고, 한 애들 쓱쓱 뽑아서.

D : 우리는 한 애들 뽑을 때도 있고 반 전체도.

재시와 숙제가 힘들다. ‘재시험 셔틀’ 운영하던 학원.

교사 : 공부에 대해서 가장 힘들거나 싫을 때 꼽으라면 있어요? 학교 학원 관계없이

B : 재시죠 재시. 재시라는 부담감 때문에, 막 계속 하나 안 풀리면 뒤에 것 못 풀겠고 그런 거.

A : 하나 안 풀리면 머리가 새하얘져요. 재시 걸릴까봐. 그 뭐지? 저도 재시가 있는데, M학원에, 재시 셔틀이 없어져서 9시에 출발했는데,

교사 : M학원은 재시로 유명해.

공현 : 학원 자체 평가를 봐서 그 기준 밑이면 다시 시험을 치나요?

A : 네. 원래는 재시 셔틀이 9시에 있었는데 없어져서 9시 20분인가 그때 생겨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님 아빠가 오거나. 재시를 걸리면, 10시 되면 또 뒤에 숙제해야 되면 12시 넘어서 1시쯤 자야 되고 그럼 내일 학교 가기 싫어지고, 그것도 또 수준이 어려우니까. 제가 한 달 쉬었는데 갔더니 갑자기 영재수업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숙제가 더 많아져서.

공현 : 자기 신청한 것도 아닌데 반이 막 바뀌어요?

A : 반이 바뀌는 건 아니고 숙제나 수준을 학원에서 맘대로 바뀌요. 전에는 일반 중학교 수준이었는데 영어 영재 수준?

교사 : 그러면 왜 그 학원 안 그만두었어요?

A : 지금 옮기려고 생각 중이에요. 가까운 데로. 처음에는 수성구 말고 집 앞에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걸 다 해야 해요. 독해를 해가고, 이것도 이것을 다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하고 하루에 이거 이거 이거 다 해야 해요. 근데 그 때 이렇게 다 해석을 했는데, 구글 번역기를 썼어요. 너무 힘들어서.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안 써서

B : 되게 좋은데 구글 번역기. 저는 영어 어학원 다녔을 때 발표숙제를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었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또 앞에 가서 피피티나 포스터 만들어서 앞에 와가지고 3분 발표인가, 2분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 때 주제 딱 줘도 뭐가 몰라 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다 번역해서 한국어 치면 영어로 나오니까 그 영어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막 했어요.

교사 : 그게 영어에 도움이 되었어요?

B : 몰랐던 것 알게 되니까 좋았던 점도 있는데, 생각을 한국어에서 영어 이걸 생각을 많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 문법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맞추어보는 게 나오니까, 그런데 머리정화라고 해야 하나? 헛갈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낮아졌다고 해야 하나.

교사 : 구글번역기 많이 써요, 학생들?

A : 학원에서 못 쓰게 해요.

교사 : 학원에서 못 쓰게 한다는 건 반대로 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B : 몰래 집에 가서 쓰는 거죠. 전 영어 학원 안 다니니 안 쓰는데 다닐 땐 많이 썼어요.

시험 부담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불안하다.”

공현 :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교사 : 작년에 D 씨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않나요? 올해 시험 때 어땠어요? 기말고사 며칠에 쳤어요?

B : 7월 1일. 저희 학교가 조금 늦게 쳤어요.

D : 미뤄 써가지고... 시험지를 한 장을 못 봐 가지고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급하게 풀다가 틀렸어요.

공현 : C 씨는 어땀어요?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시험은 어땀어요?

C : 그냥 놀았어요.

교사 : 놀 때 마음 괜찮았어요?

C : 다 놀고 나서 후회했어요.

B : 그때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교사 :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A : 저는 공부를 해도 불안해요.

교사 : 여긴 공부해도 불안하고 여긴 안 해도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B :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문제집을 풀었는지...

공현 : 성적 나온 거를 부모님이나 집에 말씀드려야 되죠?

A : 네, 사인도 받고.

공현 : 그럴 때는 뭐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나?

A : 긴장은 안 돼요. 엄마가 그냥 망쳤다고 해야 하나 망친 적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냥, 엄마가 동생이 시험을 망친 적이 몇 번 있어서 동생은 그냥 이렇게 하고 저만 봐주는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엄마가 90점, 95점 밑으로 내려가면 화를 내요.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건 다 안 들어주고 불이익만 남는데.

교사 : 불이익이 뭐예요 예를 들면?

A : 못 논다 폰 못한다. 폰 압수하거나. 저는 폰을 40분씩 알람을 맞추어 놓고 공부할 때는 식탁에서 하다가 40분 알람 울리면 폰 만지거나 하다가 또 알람 울리면 공부 들어가고.

교사 : 하루 종일 40분씩 알람을 맞추어 놓는 거예요?

A : 그건 아니고 어찌다 한 번씩 너무 집중 안 되거나 엄마가 하라고 할 때, 아니면 엄마가 폰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무조건 얹어요. 얹으면 카톡 와도 안 보고.

공현 : 성적표 보여드릴 때 어때요?

C : 망쳐도 된다고 해서.

교사 : 말만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실제로 망쳐도 별 상관 안하세요? 어땀어요?

C : 네.

B : 진짜 신기했어요. 아무 말 안 하시길래.

C : 작년 1학기 때까지는 그냥 뭐라고 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망쳐도 된다고, 1학기 때는 좀 화를 내셨는데 2학기 때부터는 망쳐라.

교사 : 망쳐라 그렇게 들으면 어때요? 그 말이 더 무서울 수 있는데. 아 괜찮았어요?

C : 네. 아 이젠 조건을 내밀고, 뭐 하면 뭐 해주겠다.

B : 저는 제가 실수 많이 한단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실수한 건 보여주지 싫었는데 몰라서 틀린 것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실수한 건 못 보여주겠는데, 몰라서 틀린 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점수 그냥 당당하게 보여줘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저는 영어유치원 나왔고, 영어학원 되게 많이 다녀서 국수사과는 뭐라고 안 하는데 영어만 뭐라 말했어요. 영어는 그렇게 많이 다녔으니깐 100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대문자 안 써서 틀리는 거 어떻게 된 거냐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교사 : 시험 치기 전에는?

B : 시험 치기 전에는 잘 쳐야지 이런 거. 많은 말은 안 했어요.

C : 저는 기대한다고.

B : ‘기대한다’, 제일 무서워.

A : 제 친구 엄마는 제 친구한테 직접 시험지 100점 5개가 나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요.

B : 저희 아빠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엄마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결국엔 둘 다 중요하잖아요. 엄마 없을 때는 폰하고, 있을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아빠한테는 좋은 결과를, 성적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거. 둘 다 보여줘야 하니까.

D : 저는 엄마가 딱히 신경을 안 써요.

교사 : 성적표 가져가도 별달리 말씀 안하세요? 다른 가족들은요?

D : 신경 안 써요.

교사 : 본인은 어때요? B 씨는 몰라서 틀린 건 당당하다 했잖아요. 본인은 어때요?

D : 그냥 보여줘요. 잠깐 실망했다가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교사 : 실망했을 땐 어떤 느낌이 들어요?

D : 그냥 잘 칠걸...

교사 : 후회되는? 그럼 괜찮아질 땐 어떤 느낌이에요? 에이 성적 따위 하는 느낌이에요?

D : 네.

공현 : 꼭 시험이 아니어도 평소에 집에서 공부하는 거나 성적에 관해서 뭐라고 주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B : 1학기 때 실수 많이 했다면 2학기 때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교사 : 칭찬 받은 적은 없어요?

B : 칭찬은 학원에서 잘하면 칭찬받고 학교에서 잘하면 칭찬받고. 공부로 칭찬 받은 것은 뭐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100점 받는다면,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는다면 그런 칭찬이 있죠.

A : 저희 엄마는 잘 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동생은 잘 치면은 아이고아이고 거리고, 저는 잘 치면 그냥 어 잘했다. 아빠가 되게 무뚝뚝하다고 해야 하나 표현을 잘 못해서 칭찬을 잘 안 해줘.

“학원시간 제한조례가 없으면 초등학생도 10시, 11시까지 공부시킬 것 같다.”

공현 : 아까 학원 이야기 한창 했는데요, 일단 대구가 지금 초등학생이 학원을 9시까지만 다닐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대구는.

교사 : 몰랐죠?

C : 네.

B : 저 다니던 수학학원 10시, 11시까지 하고 했는데.

공현 : 본인이나 친구들이나 9시를 넘기는 경우가 있나요?

B, A : 네.

A : 제 친구는 학원 8시에 마치고 또 학원 가요 그래서 10시 넘어서 마쳐요. 일주일에 한 번.

공현 : 재시를 치다가 9시를 넘긴 적도 있어요?

A : 아뇨. 재시 걸리면 아빠가 데리러 와요. 엄마는 그렇게 늦게까지 시키고 싶진 않다고.

교사 : 근데 그런 학원들이 있는 거죠?

A : 네 많죠.

B : 좀 있죠.

A : 거의 큰 학원이나 M학원, 큰 수학학원 이런 데는 중학생은 거의 다 10시 넘게 하죠.

교사 : 그 시간에도 초등학생 타임이 있는 거죠?

A : 초등학생 타임은 별로 없고, 재시 때문에 늦어져요.

B :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중고등학생 가르친다고 초등은 일찍 하고 가요.

공현 : 법적으로 초등은 9시 중등은 10시 고등은 11까지 이렇게 돼있을걸요. 그렇게 시간제한을 법으로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막 그렇게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초등학생도 10시 11시까지 시킬 거 같아요?

A, B, C : 네.

공현 : 그리고 아까 학원숙제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학원 다니는 게 엄청 힘들다? 또는 학원숙제가 어렵다? 많이 느끼세요?

A : 학원 다니기 재미있는데 재시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가기 싫어요. 재시 없으면 즐겁게 다닐 거 같아요. 숙제도 많고 재시도 많으니까 부담되고 가기 싫고.

공현 : 학원에서 숙제 많이 내나요?

B : 네, 저는 숙제 많이 내면 학원을 끊어요. 저는 학원을 10개나 옮겼을 듯한데 숙제 많은 데는 끊고 숙제 좀 더 프리하거나 아니면 안 해와도 된다고 살짝 해주는 학원만 다녀요. 지금 다니는 학원도 숙제 안 해 오면 가서 하면 되고, 숙제도 잘 안 내주고, 안 해와도 괜찮다고 하는 학원.

교사 : 그런데 부모님들은 학원에 공부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공부를 덜 시키는 학원들인 거잖아요.

B : 거기 가면 공부를 많이 시켜요. 가면 빼곡하게 시켜요. 외대 다닐 땐 쉬는 시간 조금씩 주면서 하는데 지금 학원에는 끝까지 공부만 하고.

교사 : 그런데 숙제는 좀 느슨하고.

B : 네.

공현 : 새벽 2시까지 학원숙제 한다고 했는데 양은 어느 정도나 돼요?

C :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교사 : 하루에 총 숙제하는 양 이야기 해봐요.

A : 기본적으로 수학 숙제. 학습지 숙제도 있고 그냥 숙제도 있고 특강 숙제도 있고 수학이 한 번에 3개가 몰려있어요. 두 권을 쥐어주는데 다 해야 해요. 한 권을 학원에서 하면 다른 한 권이 숙제고, 두 권 다 하면 숙제 없고, 만약 5장 하면 15장 숙제 해야 해요. 쉬우면 숙제가 다 하니까 없고, 어려우면 거기서 다 못하니까 숙제가 되고.

교사 : 학습지 숙제가 얼마나 돼요?

A : 평균적으로 10장 정도 돼요. 특강 숙제는 5장에서 10장 사이.

교사 : 7장 잡을까요?

A : 그 정도? 그리고 일반 숙제도 7장 정도.

교사 : 수학 숙제만 스무 장이 넘는 거예요?

A : 네.

교사 : 한 장에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 거예요?

A : 그냥 문제집 생각하시면 돼요. 열 문제까지는 아니고.

교사 : 여덟 개? 그럼 하루에 백 문제 이상이네요. 수학만? 다른 거는요?

A : 영어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교사 : 아 이게 숙제알림장이예요?

A : 네.

공현 : 동화책 리딩, 등등....

A : 더 있어요. 독후감쓰기,

B : 요즘 수성구에 수요일날 날 잡아서 1시간 동안 숙제강의를 해요.

교사 : 숙제강의가 뭐예요?

B : 네, 처음 다닌 사람한테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1시간 동안, 수요일 날 날을 잡아서, 엄마도 같이 가서 숙제 강의 온라인하고 그런 거 다하는데 온라인은 하기 싫어서,.. 그래서 숙제강의 1시간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공현 : 다른 분들은 숙제의 양이 어떠세요? 학교나 학원? 아까 학교는 얼마 없다고 했죠?

B : 네. 있으면 하나, 그리고 있어도 조사를 해오라는. 있으면 조사고 모둠 활동.

C : 조사 숙제.

공현 : 그 아까 막 숙제가 갑자기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C : 요일 바로 앞에서 하니깐,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화요일에 학원을 가면, 월요일 밤에 시작을 하니깐, 갑자기 한다는 거죠. 화요일 그 숙제가 아니라, 일주일 놓고 월요일 밤에 한다는 거죠.

공현 : 벼락치기로.

A : 토요일은 숙제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정은 다해요. 이진 요때 하고, 하려고 하면 먼저 이불에 들어가서 잠부터.

공현 : 주말엔 좀 쉬어야죠.

C : 토요일에 숙제를 몰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때 되면 놀고 싶어져요.

공현 : 숙제 어떠세요? 많아요?

D :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냥 하기가 힘들어요.

공현 : 집에서 많이 해야 돼서? 그, 학원 다니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또는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때? 성적관리?

B : 저는 수학영어는 잘 안 다니는데 중국어를 다니니깐,.. 그냥 취미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다니는 게 좀 많아요.

A : 그냥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다니면 안 된다. 안 다니면 불안하다.

B : 안 다니면 뭔가 불안하다?

C : 나 혼자 딸릴 거 같은.

공현 : 주변에서 다 다니는데 나만 안 다니면 성적이 못 쫓아갈 거 같아서?

B : 네. 내 성적만 떨어지고 그럴 거 같은 느낌. 그런 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다니는 것?

공현 : 학교수업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해본 적은 아직 없죠?

B : 네.

C : 학원 숙제가, 학교 숙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학원이 더 어려워서.

A : 저는 이거 선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행 때문에.

B : 저는 제 생각으로 6반이 공부를 잘 안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그 6반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원을 다녀야 할 거 같아요. 6반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 같지 않아 가지고, 학교 공부 때문에 학원을 다니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공현 : 반대로 생각하면 그 선생님들은 애네 어차피 학원가서 다 선행으로 배우니깐 설렁설렁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B : 네 실제로 6반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들었는데, 니네 어차피 가서 다 배울 거니까 다 아니까 니네가 알아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구요.

A : 우리 선생님은 안 그래요. 학원에서 배웠어도 배웠단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더 빠르게 가르쳐요.

공현 : 부모님들은 학원 다니는 거 당연히 가야한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원해서 보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반반. 그냥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은 딸릴 거 같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노는 것 보다 자는 게 더 좋은 거 같다.” “숙제를 못해서 혼나더라도 너무 졸려서 잔다.”

공현 :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기가 야까 피곤하다 했잖아요? 자는 것도 부족하고 노는 것도 적고. 자기가 좀 더 행복하게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좋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수면시간이나 노는 자유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B : 자는 시간은 8시간, 9시간 그 정도 잤으면 하고,

A : 네 저도.

B : 자유시간 노는 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노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C, D :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공현 : 평일에 한두 시간, 주말에는 다 쉬고 싶고 이런 거죠?

B : 네.

A : 다까지는 아니고, 토요일은 좀 놀아도 일요일은 좀 공부하고

C : 아 저 토요일에 되게 놀고 일요일에 공부해요.

A : 저도요. 일요일날 해야지 일요일날 해야지 하면서 일요일날 되면 또 늦게 자고. 엄마가 어디 가자 하면은 나 안 된다 그러면서 엄마랑 싸우고. 그럼 엄마가 토요일날 미리 했어야지 그러면서 싸우고.

B : 토요일날 놀다가 일요일날 하게 돼서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고기 못 먹으러 간다고 하면 “니가 고기를 안 먹으러 간다고?” 일요일에, 그거 왜 미루는데 하고 미뤘다가 일요일날 하냐.

공현 : 저희 다른 조사한 데선 막 집에서 9시 되면 억지로 재운다고 털자고 싶다고 이야기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않나 보네요.

A : 아 부럽다. 근데 그러면 저희 재시 걸려요

B : 저 5학년 때 엄마가 그랬어요. 키 커야 한다고.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호르몬 분비된다고 무조건 자야 한다고 재웠는데 엄마가 6학년 때는 숙제 때문인지 몰라도 엄마 먼저 자요.

교사 : 궁금한 게 뭐냐면 들어보면 학원이나 학교나 배우는 과목이 비슷하잖아요. 원래는 뭘 배우고 싶어요? 학원이든 학교든.

공현 : B 씨는 중국어 학원 다니다면서

C : 애 중국어 좋아해요 잘해요.

B :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

A : 저는 그림 그리거나 만드는 거 좋아해요. 바느질 뜨개질 이런 거.

B : 저는 중국어 안배우면 일어 배우고 싶어요

교사 :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학원을 다닐 수 있다면 무슨 학원을 다니겠냐고

A : 만드는 거. 만들면 되게 성취감이라 해야 하나? 만들면 웬지 어디에 잘 쓸 거 같고.

B : 나는 일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행 다니는 거에 체력이 좀 안 따라 주기는 하는데,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체력이, 저는 밤에 오래 못 있어요. 숙제를 안 하면 그냥 혼나지 하면서 더 자려고 해요. 저는 새벽까지 못 있어요. 10시 되면 헤롱헤롱 거려서 그냥 자게 되고, 저는 숙제를 그때까지 덜하더라도 그냥 자요. 혼나더라도, 여행 다닌다면, 그래서 저는 일어나, 외국어 쪽 배우고 싶어요.

D : 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공현 : C 씨는?

C : 그다지...

공현 : 그러면은 학교 수업시간은 지금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C : 아니요 좀 많아요.

A : 5교시면 좋겠어요. 일찍 시작해서 12시 40분에 끝나요.

공현 : 5교시면은 점심을 먹고 1시?

A : 저희 수요일은, 40분에 시작해서, 12시 40분에. 시작하는 걸 당겨서 5교시 하고 밥 먹어요.

교사 : 쉬는 시간도 수요일에 당긴다 아니에요? 저희는 블록으로 1, 2 합치고 3, 4 합치고.

공현 : 학교수업은 그렇고, 학원은 어느 정도 다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B : 영수만. 영수만 다녀도 되게 힘든데.

교사 : 영수도 안 다녀도 되잖아?

B : 그건 맞죠.

A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원은 다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교사 : 왜요? 이유가.

A : 좀만 덜 빠세면... 학원은 선행도 해주고, 그리고 안 다니면 뭔가 좀 못할 것 같아요.

B : 저는 반대로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강의도 있고, 그냥 문제집 풀어도 되니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안 다니고, 그런 데 다니면 숙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던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런 빠신 것에 스트레스 쌓이니깐 그럴 바에 집에서 프리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인터넷 강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A : 학원 안 다니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해요.

교사 : 그게 되는 사람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A : 저는 안 될 때가 많아요.

B : 저는 학원 잘 안 다니고 집에서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교사 : 학원을 안 보내면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 받는 거 혹시 알아요? 왜 학원 안 보내냐면 서, 그러다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 듣는 거 혹시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옆에서 막 걱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 알아요?

A : 알아요.

B : 저는 엄마끼리 성적 이야기 하는 거 그런 거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몇 점 나왔는데 하면서 성적 배틀

교사 : 그런 거 하는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 마디씩 해주면 안 돼요? 궁금해요.

A : 성적이 다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못 해도 문제지만, 너무 못하면 약간 좀 보면 무시받고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거 같아요.

교사 : 하여튼 배틀하거나 왜 학원 안 보내냐고 하는 말에 불안해 하는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어도 그런 부모님들 많으니까.

B :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요.

교사 : 안 좋다고?

B : 응. 인생에 성적이 다가 아니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D : 그냥 조금만 놀게.

교사 : 다른 학교 학생들이 1초 학생들보다 정말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느낌이에요. 1초 학생들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게 티가 나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화나면 감정조절 못하는 학생이 많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높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A :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애들이, 욕도 많이 쓰고 화도 많이 내고. 엄마들 디스도 많이 하고 학원 디스 많이 하고.

교사 : 이 학교 학생들은 그만큼 짜증내지는 않아요. 그건 좀 차이 나요.

A : 편해 보여요. 다른 학교 학생들, 여기 학생들. 그냥 어깨동무하고 놀고 그러는 게. 뭔가 나도 여기 다니고 싶다. 학원도 덜 빠셴 데로 다니고 싶다.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 하고 싶다.

B : 그게 제일 좋지.

“수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학원에서는 숙제 있어도 되니 재시험만 안 쳤으면 좋겠다.”

공현 : 딱 마지막으로 음 내 삶에서, 지금 생활에서 공부 관련해서 좀 이거 하나는 꼭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교사 : 이게 바뀌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겠다.

A : 수능?

B : 저도 수능.

공현 : 초등학생인데 벌써 막 수능 대비시킴?

A : 수능 잘 쳐야지, 이런 이야기

B : 요즘 대학교에 수능 잘 치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다

교사 : 자주 들어요 그런 말?

B : 네.

A :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된다. 원하는 대학 못 간다고.

공현 : 다른 분들은, 딱 바뀌면 좋겠다고 하면, 시험이든, 학원을 덜 다니는 거든.

B : 기말고사가 바뀌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한 번 있었으면, 1년에 두 번보다는, 마지막에 한 번. 아 그거 그거, 기말고사는 두 번 있어도 되는데 배치고사인가 그거, 3, 4, 5, 6 합쳐서 6학년 때 한다면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A :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치는 게 배치고사 아닌가?

C : 니가 말한 건 국가시험 평가

교사 : 국가 성취도 평가는 올해 없어져서, 초등학생 대상 없어져서 여러분 안 치고요. B 씨가 말한 배치고사는 중학교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치는 시기는 중학교 입학 전이죠.

공현 : D 씨는 딱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나요?

D : 저는 시험. 그냥 시험이 없어졌으면.

교사 : 시험 안치는 지역 있는 거 알아요?

B : 들었던 것 같은데 시험 안 치는 지역 있다고. 어디에?

공현 : 초등학교는, 인천인가 서울인가는 없었죠.

A : 기말고사가 없어요?

교사 : 네 수행평가는 치고.

C : 서울에 전학 가고 싶다.

A : 서울은 단원평가만 치고 기말고사는 안 친다고 본 거 같다.

교사 : 그래요?

B : 좋겠다.

공현 :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게 꼭 학교 시험? 아니면 학원, 학교 포함해서?

A : 학원 시험은 괜찮아요.

공현 : 괜찮아요?

교사 : 숙제는 학원이 엄청 부담스러운데 시험은 학교가 부담스럽고,

A : 네. 학원에 숙제는 있어도 재시 없으면 좋겠다. 재시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는 나날들”
두번째 심층인터뷰 : 경기 혁신중학생

피면접자 : F (경기도 소재 혁신중학교 2학년 학생)
면접일시 : 2015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면접자 : 둠코

잠 잘 때가 하루 중 가장 편할 때

둠코 : 학기 중에 본인의 평일 생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F : 아침 8시 35분까지 등교해서 종례하는 건 4시 30분. 화요일 목요일은 6시 30분까지 방과후 학교를 해요.

둠코 : 학원에는 다니시나요?

F : 방학 중에 다녀요. 학기 중엔 너무 빠서서.

둠코 : 화요일 목요일은 집에서 저녁 먹고 숙제하고?

F :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가자마자 교복도 못 갈아입고 잘 때도 있어요. 매 번 자는 시간이 달라요.

둠코 : 주무시는 시간은 매번 다르다고 하셨는데 학기 중에 제일 많이 잘 때랑 적게 잘 때, 시간이 얼마나 돼요?

F : 적게 잘 때요? 아예 안잘 때도 있는데 안 잔다는 게 그냥 안 졸려서 안 자는 게 아니라 제시간에 못 일어날까 봐 애매할 때, 가끔 있어요.

둠코 : 숙제 같은 거 밀려서 밤에 하다가 늦어서?

F : 그런 건 아닌데 잠이 안와서 있다가, 졸릴 때 시간을 보니까 못 일어날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잘 때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뽀을 때...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학교 갈 때 일어나요. 수면시간에 평소란 게 없어요. 그냥 어찌다가 한번 일찍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날에 일찍 잤으면 다음날에는 잠이 안 오고, 전날에 늦게 자면 다음날에 일찍 자고 이게 반복돼요.

둠코 : 그렇게 불규칙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F : 일찍 일어나다보니까

둠코 :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F : 저는 좀 준비를 빨리하는 편이라 한 7시 40분? 그 정도...

둠코 : 학교에서 많이 지치는 편이에요?

F : 네 너무 힘들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밥 먹고 교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꼭대기에 있어서..

둠코 : 주말에는 주로 어떤 거 하세요?

F :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거기 회의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에요. 저는 그나마 굉장히 프리해서....

뚝코 : 평일에 학교 다니면서 제일 지치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눈을 떠야 한다거나.

F : 네 그거요. 그거랑 오후수업. 밥 먹고 가장 식곤증이 있을 때... 또, 갑자기 대청소라거나 자치활동이나 갑자기 시간표 늘어날 때가 있고 갑자기 7교시 하고, 자치활동 같은 건 미리 말을 해 주는데, 대청소 같은 건 달력에 써 놓지 않으니까...

그것 말고도 반마다 조회시간이 있는데 원래 등교시간보다 일찍 정해놓고, 출석부에 보면 지각체크를 조회시간에 맞춰서 해요.. 등교시간 전에 왔는데 왜 체크하냐고 했더니 이건 담임 재량이라고...

뚝코 : 반 지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문통과 말고 교실에는 원래 시간보다 10분정도 먼저 와라.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지각이다 이런 건가요?

F : 반마다 다 다르니까... 다른 반은 학교 등교시간으로 하는데 저희 반은 더 일찍 가게 해요.

뚝코 : 몇 분 정도 차이나나요? 원래 등교시간이랑 담임이 말하는 등교시간이랑

F : 10분정도밖에 차이 안 나긴 하는데 아침에 10분이면..

뚝코 : 학교에서 좋을 때? 일상 속에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예요?

F : 갑자기 단축수업 할 때? 근래에는 메르스 때문에 소독을 한다고 좀 일찍 끝났거든요 예정보다 일찍 끝날 때 좋습니다.

뚝코 : 일찍 끝나는 거 없이 평범한 날에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F : 잘 때? 잘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시험대형 자리배치, 성적 좋은 학생들 등수별로 호명

뚝코 : 다니시는 중학교가 혁신학교인데요... 다른 학교들과 다른 게 있는지? 성적압박 등의 분위기 면에서...

F :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게 서로 더 소통하는 그런 건데... 또 반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반은 디근자로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라고 하고 저희 반은 시험대형으로 앉고...

뚝코 : 학기 내내요?

F :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또 다른 반은 성적대로 앉는 반도 있어요.

뚝코 :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 알 수 있게 앉는 거예요?

F : 네 모둠별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같이 앉으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작년에는 디근자로 자리배치 했는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뚝코 :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반 운영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F : 맞아요. 완전 바뀌어요.

뚝코 : 지금은 시험 대형으로 앉히는 건 언제나 공부하고 시험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F : 저희 반이 학년 중에서 유난히 제일 시끄럽거든요

뚝코 : 학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할 때가 있나요? 성적을 공개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별로 앉힌다거나, 성적이 좋은 애들을 차별하거나, 더 좋은 시설을 쓰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성적이 나쁘다고 모욕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F : 성적 확인을 하려면 학생한테 싸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한명씩 불러서 앉히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데 게시하거나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반장한테 싸인 받아오

라고 시키거나 그러면 다 보게 되는 게 싫어요.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지필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1차 지필평가 때는 등수를 불러주셨어요 원래 등수 안 나오잖아요. 11등까지만 불러주셨어요 12등인가? 선생님께서는 잘하는 애들이니까 불러도 상관없겠지 하셨겠지만 안 불린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등수 불러주는 거에 충격을 먹었어요.

덤코 : 학교에서, 그런 교사들의 ‘명언’ 들 있잖아요. 공부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압박 주는 멘트들 있어요? 뭐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유독 성적으로 갈구거나...

F :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 등수가 7등에서 6등으로 올랐거든요. 아이스크림 한 번씩 사주시고 그런 거.

덤코 : 학원 다니시거나 방학 때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생활 전반적으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런데서 공부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시험 때?

F : 네, 시험 때. 암기만 시키려고 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요. 내신 시험은 암기만 중요시하잖아요. 저는 암기 보다는 창의력을 보고 그런 게 좋은데, 논술형 평가라고 했으면서 외워서 본다거나...

덤코 : 이 텍스트 나오니까 이걸 다 써서 외워라 뭐 이렇게 해서 보나요?

F : 네, 되게 암기식이 스트레스 받아요.

덤코 : 사실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거네요?

F : 되게... 예를 들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술을 저는 실기과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면서 배우면 좋을 텐데 시험의 일환으로만 보니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한테...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들 텐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보충수업/방과후 학교

덤코 : 저녁에 방과 후 학교는 강제인거예요? 아니면 선택하는 건가요?

F : 저는 제가 선택해서 했는데 성적이 낮은 애들은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덤코 : 성적 낮은 애들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들으라고 압박을 주는 건가요?

F : 네 거의. “엄마 싸인 받아와라.” 하고, 당연히 엄마들은 공짜로 해주면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안하면 안 되라고 하고.. 담임교사는 해야 된다고 싸인 받아오라고...

덤코 : 학기 중에 보충수업 한 거 말고 여름방학 때도 보충수업을 하시나요? 참여는 자유인가요?

F : 방학 때는 자유가 아니라도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와요. 어차피 안 나와서 자유라고 해야 되나?

덤코 : 신청을 받을 때 “하고 싶은 사람 해라.” 하는 건지 아니면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 중에서 안 나오는 학생들은 무단으로 빠지는 건지..?

F : 공부 못하는 애들 불러서 이거 하라고 하고.. 그래서 성적이 조금 있는 애들은 방학보충수업 하는지도 몰라요. 하고 싶어도 성적이 좀 되면 모르는 거죠. 선생님들이 낮은 애들만 이거 하라고 보여주니까...

덤코 : 사실 방학보충수업은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한다면 전체에다가 공지하고 하고 싶은 사람하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데 학생한테 “너 성적 낮으니까 이거 해.” 하면 사실 학생입장에서 싫다고 못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담은 있어요?

F : 저는 제가 하겠다고 하고 싶은데 거의 못하는 편이에요 성적이 엄청 하위권은 아니라서..저는 그래요.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답코 : 방학기간은 며칠인가요?

F : 8월 14일이요. 방학 29일이예요

답코 :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F : 절대 아니요

답코 : 방학 중에 보충은 며칠 동안 해요?

F : 일주일에 네 시간어요. 일주일 두 번 두 시간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학교와 학원에서의 학습스트레스

답코 :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공부가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오래 잡아두는 부분인가요?

F : 저는 양이나 내용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문제를 얘기해보자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또 시험기간에 수행평가를 진행하세요.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이 진도를 다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프린트로만 훑어보기만 하세요. 시험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부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잖아요. 그렇다보니 학원 안다니는 애들이나 선행학습 안하는 애들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양은 많은 것 같아요.

답코 :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행평가를 내잖아요.

F : 맞아요. 좀 일찍 내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수행평가를 내니까 다 겹치게 되었고 시험도 겹치고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답코 : 학교에 일찍 가는 게 더 불만이에요? 아니면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늦은 게 더 불만이에요?

F : 그래도 학교등교시간은 좀 늦춰졌잖아요. 그런데 늦게 끝나면 제가 은행을 못가요 은행에 볼 일이 있으면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면 못가고 나이가 어려서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주로 창구에서 이용하는데 학교 끝나고 가면 닫혀있고... 체크카드도 발급이 안 되고, 인터넷뱅킹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무통장 입금 할 때는 창구에 가는데 그때 느껴요. 아 늦게 끝나는구나...

답코 : 학원에는 이번 방학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죠?

F : 원래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오고 학기 중에 다니는 건 무리인거 같아서, 2014년 3, 4월에 끊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다녀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방학 때만 다니기로 했어요.

답코 : 방학 시작하면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F : 네 그리고 방학 끝나면 그만 다녀요.

답코 : 학원이 학교랑 같이 다니기 힘든데 어쨌든 본인이 방학 때는 다녀야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예요?

F : 학교수업만으로는 따라가기 힘들니까. 그 이유가 제일 크죠. 수업만으로는 힘들니까.

답코 : 방학 때,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편인가요?

F :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학원 수업시간이 아침은 아닌데 오후 12시에 있어요. 가려면 오전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방학 때는 되게 늦게 일어나고 싶거든요. 낮까지 자고 싶고... 겨울방학 때는 수업이 아침 10시 시작이었거든요. 별 다를 게 없으니까... 2학년 올라와서 좀 늦춰진 거지..하지만 그게 되게 힘들어요.

답코 : 방학 때 학원 끝나고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F : 오후 2시요

덤코 :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 학생이 그만큼 사교육을 받는다, 어쨌든 학생들을 보충을 시키거나 자습을 시키는 게 사교육 절감에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시키잖아요? 복지라면서... 혹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F : 실제로는 자율학습 한다 해도 학원을 사유로 들면 빼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덤코 : 작년에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2014년? 그 때쯤에 학교랑 학원이랑 같이 다녔을 때는 하루에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셨겠네요?

F : 네 원래 늦게 가도 되는데 제가 일찍 갔어요. 부담감 때문에... 원래 가는 시간이 늦은데도 제가 일찍 안가면 못 따라가니까....

덤코 : 학교 수업을 따라잡으려고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 가면 새롭게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나요? 학원에서도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나누고...

F : 네. 학원에도 우열반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은 학습시간이 부족하다”

덤코 : 집에서는 어떤 태도예요? 입시에 대해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두는 편인지 아니면 공부를 시키는 편인지?

F : 이번에 시험을 많이 못 봤는데 엄마가 “너 이번에 시험 못 본거 알지?” 이러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잘 공부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덤코 : 대학은 가고 싶으신 편이에요?

F : 꿈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덤코 : 만약에 대학이 어떤 이유로 안 가고 싶어졌어요, 그 때 부모한테 “대학 안 가고 싶다.” 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F : 절대 안 될 걸요. 제가 장녀거든요 절대 안 될 거 같아요. 동생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대가 많으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덤코 : 그런 기대 때문에 부담되시는 건가요?

F : 당연히 되죠.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잘하는 줄 아세요.. 기대 많이 하시고...

덤코 :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를 하며 보니까 혼자서 공부를 엄청 하고 학교도 늦게 끝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부족하게 하는 것 같다고 선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F : 있어요.

덤코 :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F : 친구가 더 뽀뽀하게 스케줄 잡고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애들 보면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다른 애들이 더 많이 하니까.. 만약 진짜 조금 공부 해도, 주변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다른 애가 조금만 해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덤코 : 그렇게 주변이랑 자기랑 시간을 비교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 입시가 크겠죠? 성적이랑...

F : 맞아요.

덤코 :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가장 지치게 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 같아요? 몸의 힘들인 거 같아요?

F :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반이 시끄럽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수업을 듣고 싶은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반보다 못 배우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덤코 : 그렇다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주변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혼자서 공부하거나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 편이세요?

F : 근데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시험을 잘 보잖아요.

덤코 :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F : 네 그래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덤코 : 좋아하는 과목이나 흥미있는 과목 이런 거 때문에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시험을 출제하는 게 교사니까 교사 말을 듣고 싶은 건지?

F : 네 저는 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재밌는 수업이면 애들이 안 떠들어요.

덤코 : 수업 재미없게 해요?

F : 네. 대부분. 한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치는데 그 시간엔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만만한 선생님한테는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무서운 선생님일 때는 들어오기 전부터 조용하거나 말 한마디 하면 조용해지고...

덤코 : 입시랑 성적부분에서 암기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F : 네. 입시 볼 때 눈술이 거의 지금 학교에서 하는 서술형시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눈술형답게 시험을 봤으면...그러니까 지금은 눈술에서 정답이 있는 질문들 나오잖아요. 일단 그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거만..

덤코 : 중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입시 이야기 하는 편이예요? “지금 성적이면 나중에 수능 보면 이렇다” 이런 소리?

F : 안 하는 거 같아요.

덤코 : 혁신학교라서 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답임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혁신학교가 보통 입시 스트레스 덜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셨고... 학교 시스템은 안 그런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인 거 같아요?

F : 다른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거의 여기 친구들은 초등학교도 여기서 나와서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입시 관해서 생각이 없는? 아니면 다른 재능이 있거나... 운동부가 있거든요 이런 장래가 있는 애들은 입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덤코 : 입시를 좀 멀게 느끼는 건가요? 본인은 입시가 가깝고 조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F : 제가 좀 빠르다 해야 하나? 어렸을 때부터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덤코 : 근데 사실 사람이 쉬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학교에 오랜 시간 있었으면 지치는데... 본인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쉬어야 될 만큼을 쉬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역시 입시 때문이예요?

F : 네, 거의.

뚝코 : 고등학교 진학같은 경우, 특목고나 이런 거 가려고 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은 부담되는 게 있나요?

F : 저는 인문계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문계도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거기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못하는 데를 가서 좋은 등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같은 인문계인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깐 근데 제가 저희 반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또 환경을 좋은 데를 가면 인문계인데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성적이 떨어질 거고 그런다고 수준이 낮은 곳을 가면 거기 환경이 좋지 않을 거고... 그러다보니까 악순환이 돼요.

뚝코 : 근처 고등학교 평준화로 뺨뺨이로 가는건데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편인가요?

F : 여기가 분당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인문계인데도 기숙사 있는 곳도 있고 다 잘하고 그래서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은 편이에요.

입시에 등수가, 정답이 없었으면 좋겠다.

뚝코 : 본인이 원하는 수면시간, 휴식시간,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F : 수면시간은 9시간...

뚝코 : 자유시간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F : 자유시간은 학교가 끝나면 다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이렇게 오래 있는데...

뚝코 : 학교에 있는 시간을 몇 교시정도로 하면 지쳐서 집에 와서 바로 자거나 그런 걸 안할 것 같아요?

F : 5교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학원 가있는 애들은 더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6,7교시 하는 날 있고 5교시는 저희 학교에만 딱 한번 있어요. 주변학교들은 다 6교시 하고..

뚝코 : 그러면 학원을 만약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다니고 싶으신지 아닌지? 입시나 이런 거 다 빼고 본인이 원하는 건?

F : 돈만 있으면 당연히 좋죠. 이런 시험공부 말고 개인적으로 논술학원을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논술 자유롭게 배우고 싶은데 시험 위주로 하니까...

뚝코 : 그러면 학습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을 길게 한다는 문제나, 아니면 입시 제도가 이상한 거라거나, 부모나 교사가 압박을 준대거나, 아니면 숙제나 시험 보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F : 저는 입시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수능이 아니라 논술 한 문제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학생을 사회화시켜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습부담도 수업시간이 많아지고 방학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입시 때문이니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래희망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가고 싶어요. 근데 로스쿨 가려면 경제적 부담도 들고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입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 같아요. 서열화도 없어지고.. 서열화 되는 이유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완전히 자유로운 논술로 하면 학생을 등급별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회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세번째 심층인터뷰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생

피면접자 : E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1학년 학생)

면접일시 :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 4시 30분

면접자 : 둠코

눈 코 뜰 새 없는 하루, 강제되는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 가장 행복한 시간은 수업이 끝난 후 30분 휴식

둠코 : 평일에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적어 주세요.

E :

(필기 내용)

평일은 full 기숙사

아침: 6:30 기상

등교: 7:50 까지

수업: 4:00 까지

보충수업: 5~6:00 까지

기숙사 야자: 저녁 먹고 11시 ~ 1시 까지

새벽 1:15 취침

사교육

수요일 국어과외 2시간

주말 영어학원 3시간, 수학과외 2개 각각 2시간

둠코 :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학교에 지각 안 할 수 있어요? 아침에 기숙사에서 깨우잖아요? 몇 시에 깨워요?

E : 6시 반에 깨워요.

둠코 :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게?

E : 7시 50분까지.. 일반 수업은 기본적으로 한 4시쯤 끝나구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보충은 5시나 6시에 끝나요. 그때그때 달라요. 한 교시 하는 때도 있고, 두 교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야자는 기숙사에서 해요.. 야자실이 기숙사에 있거든요.

둠코 : 전교생 다 기숙사에서 지내요?

E : 아니요. 전교생 중에서 90명. 1학년 중에서 90명만 따로 모아서.. 그래서 보통 끝나는 시간은 11시에서, 1시까지. 선택이에요. 11시까지는 필수인데, 공부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1시까지. 시험이 끝난 직후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1시까지 하죠. 매일매일.. 왜냐면..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막 더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거 때문에..

둠코 : 1시에 야자 끝내시고 주무시는 건 몇 시인가요?

E : 그냥 들어와서 바로 자요. 그냥 1시 15분정도? 일단.. 평일은 일과는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뚝코 : 혹시 주무시는 시간 말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E : 쉴 수 있는 시간이.. 그 기숙사에서 주어지는 쉬는 시간. 야자 타임이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있는데 10분, 10분, 30분 씩.. 그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거든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한 세, 네 시간정도인 거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그런데 그 쉬는시간도, 학교에서 수행평가 주고 그러면.. 뽀뽀해요..

뚝코 : 주말에는 잠은 좀 더 주무세요?

E : 주말에는 그 쉬는 시간 대부분을 자는데 써요.. 중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영화도 보고, 인터넷 카페같은 것도 방문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내기가 약간..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이미 스케줄이 다 짜여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시간이 부족한 걸 아니까...

뚝코 : 주말에는 집에 가는 거예요?

E : 네, 주말에는.. 토요일에 12시에 기숙사에서 나와요. 집에 와서, 학원에.. 그리고 일요일에 밤 11시까지 들어가요. 집에서 하루 자는 거죠.

뚝코 : 기숙사에서는 만약에 시간이 나더라도 밖에 나갈 수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11시까지 야자를 해야 하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기 쉽지 않겠네요?

E : 그렇죠. 1학년 350명 중에 90명이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에 살지 않는 애들도 10시 반까지는 야자를 꼭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선생님한테 압박이 들어오죠.

뚝코 :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E : 음.. 시간이 촉박할 때요. 예를 들어, 아까 수행평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학교 수행평가가 조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빠른 편이거든요. 컴퓨터를 두들겨서 뭐 하나 똑딱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직접 답사하거나 누굴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역사 UCC 같은 걸 만들어서 공모 출품을 해야 된다는 게 수행평가... 그래서.. 이런 스케줄에 그런 수행평가까지 다 하려면 좀 많이 짜증이 나죠. 왜냐면 기숙사는 한 시 이후에는 야자실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끝냈는데 야자실 닫으면 마무리를 못하고.. 그러면 기한이 밀릴 때도 있거든요. 많이 힘든 편이에요. 좀 많이 짜증이 나죠.. 일은 너무 많고... 좀 많이 뽀뽀하죠.. 다른 학교 애들에 비해서도 많이 뽀뽀한 거 같아요.

뚝코 : 그러면 반대로, 좀 살만하고 편한 시간은 언제예요? 하루 중에?

E : 아..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기숙사 와서. 한 30분정도 시간 있거든요? 주변 없이 청소 안하고 바로 오면? 30분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한다가나 잠을 잔다가나.. 그게, 와- 정말 행복한 거 같아요. 잠깐, 그 잠깐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니면 주말에는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순간이 행복하죠.

뚝코 : 여름방학 오늘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기숙사 들어가셔야 한다면서요? 방학 보충수업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E : 저도 얼마 전에 안 건데요, 우선 방학보충 리스트를 짚 잡아요, 방학보충리스트가 5교시까지 있는데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의무고 4, 5교시는 선택인데, 1교시 무슨 과목 2교시 무슨 과목, 3교시 무슨 과목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선택을 안 하면 자습. 3교시까지 의무로 자습하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3교시까지는 전 학년이 다... 기숙사 안 살아도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4, 5교시까지 마치면 한 3시쯤 되고, 3교시까지는 1시쯤 되고.. 그래서 당장 다음주부터 방학 3주까지 쪽

보충을 하고, 나머지 한 주가 진짜 방학인거죠.

뚝코 : 방학일수가 한 달인 거죠?

E : 딱 31일이에요. 그 중에 1주일만 진짜 방학. 방학 일수로만 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 사이에 하는 것도 많고 진짜 방학은 한 주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진짜 방학이 한 달이면 괜찮을 거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가시간이 많이지잖아요. 책도 읽고 수영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할 게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중학교를 목동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목동 친구들이 이야기 해 주기를 거기는 일반고인데도 다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학 기간 양 자체가 아니라 그 동안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은 방학 중에 학교에 가고 학교수업 진도 나가기...

뚝코 : 사실상 학사일정에만 나와 있는 방학이네요?

E : 네.. 그렇죠. 방학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방학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학교 보충이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학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학교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뚝코 : 그런데 이 보충수업강제, 야간자율학습강제가 다 학생인권조례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이런데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거네요? 조례 상관없이?

E : 네. 그런데도 방학보충 3교시까지 무조건 시켜요.

뚝코 :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온다거나 이런 걸 하나요?

E :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보죠. 3교시까지는 무조건 온다.

뚝코 : 학생인권조례 아예 신경 안 쓰는 분위기인가요? 학교에서?

E : 네.. 일단 저희 학교 구조를 말씀드리면 동문회가 있고, 그 아래 교장이 있고, 그 아래 교사들이 있고.. 교장이 뭘 결정하려면 동문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문회가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세요. 후원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동창회에서 까라면 까야 돼요.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발을 들일 수 있을지.. 힘들 거 같아요. 정말 작정하고 무시하는 거죠.

뚝코 : 학교에서 성적이랑 대학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참여 안 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E : 네. 있는데..... 교사 개개인들이 압박을 주세요. 학교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끼리 주세요. 일단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자사고고, 좀 우익진영에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 교직원 중에 60프로가 전교조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따뜻하신 선생님 분들도 계시고, 좀, 수업 진도를 그렇게 뻑뻑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나머지 그 40프로 선생님 분들이. 주요 과목 선생님입니다 보니까.

뚝코 : 그런 입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과목 교사들이 보수적이고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경우.

E : 아무래도 자기 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국영수가 아무래도 결정적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과다한 수업 과목과 빠른 진도. “공부해도, 공부해도 부족하다.”

덤코 : 본인도 학습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사고라는 곳에 들어오기로 결정하신 거나, 자사고에 들어와 봤더니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게.. 자신의 학습에 부담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E : 네, 왜냐면 아무래도 자사고가 일단 등록금을 일반고에 비해 세 배나 더 받거든요.. 기숙사비 포함 1년에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돈을 투자해서 저를 여기를 보냈는데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지 비싼 돈 내고 고등학교를 보낸 보람이 있는데, 대학교를 좋은 데를 못 가면.. 아무래도 헛돈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 됐어요, 자사고에 들어오면서.. 제가 중학교 때는 그냥 하루 전날에 베퉼치기 하면 반에서 1, 2등은 못해도 2, 3등은 했는데, 여기서 한 달을 잡고 계속 공부만 해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에서 15등, 17등.. 이게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구요. 그래서 공부 양은 더욱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에 신경을 쓰게 되고 탄데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점수에 집착하게 되고.. 주변 분위기 자체가 대학 우선이에요.

덤코 : 본인이 공부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역시 시험 결과 나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간 중? 언제예요?

E : 그냥, 그냥 정말 시간이 촉박할 때, 중학교 때는 목표설정 없이 대충 공부해도 성적이 높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시간을 꼼꼼하게 다 짠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면 거기서 집안 경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가 갑자기 상상도 못한 막대한 걸 내 준다든지.. 그런 곳에서 뽕뽕 터져버리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시험결과가 나왔을 때도... 저번 시험 때 국어를 좀 망쳐서, 이번엔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국어를 메꾸면, 이번엔 영어에서 터지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는 영어를 메꾸면 수학에서 터지고.. 이러니까 이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면 나중에 대학 가는데 지장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경우가 아닌 고등학교라서.. 최소한 이정도 등수는 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하고 생각하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나 자신하고, 공부는 나 자신하고 경쟁하는 게 맞긴 한데 대학은 등수로 가죠, 그런데 그 등수가 우리 고등학교는 좀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더 예민해 지는 거 같아요. 교사들은 뭐.. 우리가 인서울대학 몇 명 보냈다, 몇 명 보냈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와 닿지는 않고요.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 하는 건 우리학교는 4년제 고등학교다. 애들이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들 재수를 하고, 결국 높은 대학을 가니까...

솔직히 억울하기는 하죠. 3년 동안 많게는 3500을 바쳐가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이 기대 이하면 억울해서라도 더 공부를 하겠죠. 안되는데.. 저도 재수하면.. 요즘 천만 원 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덤코 : 자사고는 돈이 엄청 부담될 만큼 많이 들어버리니까 재수를 하거나 대학이 아닌 진로를 생각하기 부담스럽기는 하겠네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분명 공부를 덜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공부를 적게 한다고 응답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E : 네, 저희 반 애들이 모조리 그래요. 공부를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이제 상위권 애들은 계속 그 상위권 유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최 상위권이 되려고 하고, 중위권 애들은 상위권이 되려고 하고, 하위권 애들은 중위권이 되려고 하는데,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도, 투자해도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고2, 고3은 몰라도 고 1때는 옆치락뒤치락 하는 편이라고 주위에서 듣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는 그냥 고정.. 애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덤코 : 이미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공부에 쓰고 있기 때문에?

E : 네, 그래도 오르지 않으니까 이거 더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악순환이죠..

덤코 :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시면 수업하는 시간이 긴 게 힘드세요? 아니면 교과목들의 난이도가 더 부담스럽게 하는 편이세요?

E : 저는 교과목들의 난이도가 좀 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문과거든요. 그런데 저희 1학년은 지금 생명과학을 공부해요. 벌써 심화과정.. 다른 일반고들은 그냥 융합과학을 배우는데, 그리고 2학년 때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을 하는데, 저희는 1학년 때부터 과탐준비를 해요. 문과들도 다함께.. 이과들도 다 함께 사탐준비하고, 1학년 때는 다 통합해서.. 자사고 1기 선배는 저희학교가 지금 저희 때는 과탐 2개 준비하거든요 사탐도 2개..그런데 그 때는 과탐 3개, 사탐 3개 준비해서 1학년 때부터 공통적으로 다..

답코 : 1주일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 할 진도가 있잖아요. 그게 다 나가져요?

E : 나가지더라고요.... 진도만 나가요. 질문이나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코 : 이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로 다 심화과정까지 듣게 하고, 학교 재량으로 듣지 않아도 될 커리큘럼까지 늘려서 진행한다는 거네요?

E : 그렇죠. 모든 게 학교 재량이니까. 국립 학교는 그냥 나라가 지정해주고, 일반 사립학교도 대부분이 나라에서 지정해주는걸 따르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미션스쿨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저희 학교는 자사고이다 보니까.

답코 : 자사고가 사실 되게 급조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E : 일단 지금 면으로 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특별 재량활동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제가 문과 쪽 논문을 두 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제야 아마 일반고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거라서. 내가 그나마 자사고 와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내가 원하는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자사고 와서 잘했구나.

그리고 같은 동아리. 제가 사회문제 연구부라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서 정치나 사회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릴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하면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관심 있는 애들이랑 대화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 학교 입장에서 애들을 들들 볶아야 하니까,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고 1기는 마루타로 과탐 세 개 사탐 세 개. 저희는 정말 과탐 두 개 사탐 두 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탐 네 개 과탐 두 개예요. 왜냐면 사탐 두 개는 1학기 때 속성으로 끝내고, 다른 사탐 두 개는 2학기 때 속성으로 끝내고, 과탐 두 개는 1, 2학기 때 세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매 학년 매 학년이 마루타예요.

답코 : 학교에서 재량으로 커리큘럼을 짜 보고 어떻게 되나 나중에 한 번 보고

E :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꾸고, 이거 또 아닌 거 같으면 또 바꾸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출문제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왜냐면 전 학년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혼자서 공부하기에 벅차기도 하고, 선생님이 대충대충 넘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사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사이사이에 자잘한 것들도 시험범위에 포함되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셨어도 보긴 다 보고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도 있죠.

답코 : 무조건 더 많이 시키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E : 네. 그런 것 같아요.

성적 공개, 특별반... 만연한 성적 차별.

답코 : 학교에서도 성적을 좀 비교하고 공개하는 분위기인가요?

E : 네 공개하는 분위기에요. 선생님마다 다른데..... 기본은 공개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가려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거나.

덤코 : 본인 등수를 알려주면, 어느새 반에는 그게 다.....

E : 그렇죠, 거의 다 알죠. 공부 못 하는 애들은 다 입 막고 가만있는데 잘하는 애들은 어 나 몇 등 했어 그러니까. 시험 점수도 웬만하면 거의 다 아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서로성적을 입막음 하더라도 아 재는 몇 등정도 했을 거다. 그런 거 보면 개는 그냥 그 등수가 돼버리는 거 예요. 개도 개 나름의 매력이 있을 텐데. 애들이 그걸 못 보고 다 성적순으로 생각을 하고 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파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요.

덤코 : 그룹이 나뉘는 건가요?

E : 네. 그룹이 나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반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덤코 : 성적을 이용한 차별이나 폭언이나 편애가 있는 편인가요? 똑같이 규정을 어겨도 성적이 좀 더 좋은 애가 어기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대거나..... 예를 들어 정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E : 편애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대해주세요. 대신에 정보의 전달이.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는데, 영어 경시대회가 외부에 있으면 개한테만 가서 살짝 귀뜸해준다든지. 과학 경시대회가 있으면 애들에게 다 알려주긴 하는데 과학 잘하는 애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딱히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선생님들이 차별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없어요. 다 똑같이 대해주시는 편이라는 게 그나마 안도하는 점이죠.

덤코 : 사람을 구별해서는 아니더라도 반에서 수업 할 때나 이럴 때 입시에 대해 겁주거나 지금 공부 안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하시나요?

E : 네. 많이 하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엄청 많이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참..... 아, 차별받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교단위로 몇 프로씩 끊어서 특수반을 만들어요. 특별히 잘하는 반 애들. 그러면 보충수업 때 그 애들만 따로 불러서 특별 교육을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거기 들어가려면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나머지 애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애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더 성적이 올라갈 텐데 애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주변에 서대문구나 은평구 그런 고등학교들은 거의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런 시스템이 다 있고.

교육비 부담과 부모의 기대, 계속되는 학업부담

덤코 : 본인이 입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좀 많이 성적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편인가요?

E :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하는 편이세요. 원래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 학교가 대학을 많이 못 보내는 학교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일단 지원을 했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제 성적은 그렇게 많이 좋게 나오지 않으니깐. 부모님께서서는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저한테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에게 투자하신 금액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말들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덤코 :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나요?

E :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 같아서라도, 제가 부모가 되면 땀흘러가면서 번 돈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거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 솔직히, 좋은 대학을 갈 만도 한데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은 또 그 모양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계속 공부하려는.....

덤코 : 주변에서 서로 공부한 양을 비교해서 계속 밤에 새벽에 자습하는 것도 다들 신청한다고 하고 이리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 계속 좀 더 붙어있어야지 하는 심리가 되는 거잖아요.

E : 네. 아무래도 애들이 은연중에 그러는 것 같아요.

덤코 : 주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학비 때문에 들인 돈에 대해 비해서 결과가 안 좋을까 불안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나요?

E : 일단 제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아이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경제적 수준이 저보다 안 좋은 아이들이 저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아직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는 아버님이 노동자시고, 월급이 2백도 안되시는데 자사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덤코 : 사교육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럼 주말에 주로 하시고 수요일에 국어... 국영수를 다 하시는데, 사교육이 학교에 더해져 스트레스를 더 주는 편인가요?

E :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교육을 바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따라주니까. 사교육이 필요한 때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교육을 하게 됐고. 이제 사교육을 하나만 하다보니까 아이건 또 안 되겠다 해서 두개로 늘리고, 또 더 필요한 것 같다, 욕심이 생기니까 세 개를 듣게 되고. 이렇게 점점 늘는 거죠.

덤코 : 수학은 두 개씩 하시고, 영어 학원 하나 다니시고, 국어 과외..... 사교육이 네 개네요. 이미. 과목별로 혼자서 공부해서는 도저히 성적을 더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교육을 하게 되고.

E : 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지금 상황은 내신을 제외하고 수능은 미리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위에서도 그렇게 된 걸 많이 봐왔고. 고3부터 빠르게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고1 때부터 꾸준히 단계적으로 쌓아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대학을 들어가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더 수능형에 맞춰서, 학교보다 수능에 맞춰서 저에게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을 선택한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솔직히 학교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학교라는 게 그냥 사람을 사람 된, 사회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입시 위주로 가게 되니까. 많이 안타깝워요. 제가 이런 걸 바라고 온 고등학교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더.

덤코 : 이제 야자를 주로 해야 한다고 하거나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야자가 복지다. 강제로라도 야자를 시켜야지 애들이 사교육비 없는 애들이 성공을 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학생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해요?

E :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느 지방의 학교는 하루 종일 야자실에 붙들어놓는데 그 이유가 그 주변에 사교육을 할 데가 없어서 집에 가면 공부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시켜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강남이나 목동 같은 데는 거의 야자를 자율로 하잖아요.

덤코 : 그렇죠. 거기가 가장 빨리 사라졌죠. 강제 야자가.

E : 네. 사교육 때문이죠.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복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애들을 붙들어 매는 그런 것 일수도 있고. 일단 이런 문제가 사실 다 대학 때문이잖아요. 고등학교는 대학을 더 잘 보내면 더 좋은 고등학교라고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신입생도 더 오고.

바뀌어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닌 ‘몇 등’ 으로 불리는” 교육

덤코 : 학습시간이나 학습 스트레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입시나 숙제 같은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몇 시간 정도 주무시고 몇 시간 정도 공부하고 몇 시간 정도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E : 그냥..... 욕심이 있다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은, 음, 일단 공부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여가시간은 하루에 3시간, 3시간이상 정도면 충분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공부시간.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에 맞는 공부시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공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공부, 제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한 공부, 책을 읽는 것도 공부가 될수 있고, 자기계발 같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공부시간은 많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수업에 따라가다 보면 학교를 다니는 게 오히려 책 읽을 시간을 줄이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덤코 : 어쨌든 입시가 있거나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으면 딱히 학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E : 음, 학교라는 게..... 지금의 이런 학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라는 건, 학교라는 개념은 조금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입시 위주가 아닌 고등학교는 혁신학교, 대안학교..... 아니면 거의 다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한쪽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가 지금 고등학교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이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옳은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 저희 반을 보면, 그냥 입시 위주로 하고, 내신 박세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터치를 하는 것 같진 않는 것 같고, 중학교에 비해서도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선생님과 애들이 면대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드물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아예 신경을 못 쓰게 되는 사각지대의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덤코 : 열심히는 하는데 눈에 안 띄는.

E : 눈에 안 띄는 그런 애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교육의 혜택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자라간다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인생은 한번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들을 키우고 또 교육시키겠다고 만든 이런 교육제도가 오히려 몇몇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혜택을 못주고 오히려 더 음, 뭐라고 할까요, (고민) 좀 더.

덤코 : 불행하게 하고?

E : 네, 불행하게.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게 조금 아쉬워요.

덤코 :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걸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수업 의무 일수를 줄이고 해서 줄인다면 학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인문계열고 학생은 12시간을 넘게 학교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길잖아요.

E : 너무 길죠. 음, 학교에는 한, 7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7시간 정도면, 일단 우리가 언어생활이나 도덕, 자기가 원하는 심화과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을까. 일단 지금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공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학교 입시교육 제외하고, 진짜 애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부들을 집어넣는다면 오히려 학교에 좀 있어도, 애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물론 학교와 체질에 안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로써는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덤코 :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몇 시간 정도 본인 기준에서 견딜 수 있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E : 사교육은 아예 없거나, 자기가 정말 버벅거리고 독해력이 떨어지고 그럴 경우에만. 정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여섯 시간? 가장 많은 경우엔? 아니면 네 시간?

답코 : 약간 유럽 같은 느낌으로 채택을 하자는 거네요? 정말 학교수업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 경우에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학원 진도에 학교를 맞춰서 학생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학원에 가잖아요. 사실 문제가 이렇게 산재해서 더 꼽을 수도 없는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에서? 예를 들어 등교시간 하교시간 조정이라거나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키는 문제라거나 방학기간, 시험을 너무 자주 치는 것 같은 문제들 중에?

E : 일단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대학입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입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서연고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또 그런 걸로 고등학교가 판명이 나오. 애들이 너무 고등학교 공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대학, 좀 덜 좋은 대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서열화까지 나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학연을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더 좋은 학벌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학벌을 보지 않고 점수대에 맞춰서 가는 애들도 생기고.

답코 : 그러면 그 학과가 그 점수대의 그거라고 랭크가 매겨지는 거죠.

E : 그러다보니까 자기의 꿈이 아닌 점수가,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꿈이 아닌 자기의 점수가 꿈인 그런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학생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애들은 대학입시가 자신의 꿈이니까. 그리고 이런 인권이 짓밟히면 자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답코 : 공부를 더 시켜주길 바라고.....

E :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입시 문제가 좀 바뀌면 나머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입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공부를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사교육도 등급이 있잖아요. 몇 백 만원씩 하는 사교육, 몇 십 만원씩 하는 사교육.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제 친구들도 경제력을 서로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아이들끼리 관계도, 어른들이 지금이 가장 평준화 된 때, 아이들이 서로 경제력을 모르는 때에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기 좋을 때다. 고등학교가, 대학가면 다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사회적 경제력, 지위로 보고 가려 사귀다. 그런데 보면, 벌써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고1인데, 성적 보고, 성적 낮은 애들은 그냥 재껴두고, 멀리하고, 애들이 애들 이름이 아닌 몇 등으로 불리는. 어떤 애들은 재 몇 등. 재는 몇 등정도 할 거다. 내가 2학년 올라가면 문과에서 몇 등정도 하지 않을까. 성적이 자기 권력이 되고, 등급이 되고, 자기 계급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런데. 나중에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야자 제발 자율로 해줬으면, 제발제발제발”
네 번째 심층인터뷰 : 광주 일반고 학생

피면접자 : 광주광역시 소재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생

면접일시 : 2015년 7월 19일 오후 7시 ~ 9시 30분

면접자 : 밀루

*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반말을 사용하여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프리’ 하게 사는 편인데, 밤 10시에야 학교를 마치는 생활

밀루 : 평일의 일과를 이야기해줘.

H : 등교시간은 8시 반까지. 원래 8시였는데 늦춰진 거야. 8시 50분에 수업이 시작해서, 50분 수업하고 십분 쉬는 시간. 정규 수업시간은 4시 20분까지 하고 청소 하면 40분에 끝남. 그리고 보충수업 2시간, 마찬가지로 50분 수업 10분 쉬고. 끝나면 6시 40분에 밥 먹으러 가. 3학년이 먼저 먹고 1, 2학년은 10~1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먹어. 7시 30분까지 먹고, 35분부터 야자 시작. 야자는 1시간하고 15분 쉬고, 그러고서 1학년은 1시간을 더 하고 2학년은 1시간 5분을, 3학년은 1시간 10분을 해. 그리고 나면 2학년은 9시 55분에 끝나. 사교육은 안 해. 집에 오면 10시 20분. 옷 갈아입고 씻고 놀아. 주로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인터넷 서핑. 웹툰도 보고. 아침에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 수면시간은 하루에 6시간 반 정도.

주말에는 되게 많이 자. 새벽 2시쯤에 자고, 오전 10시쯤에 일어나고.

밀루 : 그래도 8시간 정도 자는 거 아니야?

H : 아 그러게. 되게 많이 자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엄마 몰래 게임하느라 3, 4시쯤 자기도 하고. 평소에 비하면 많이 자는 편.

밀루 : 주말에는?

H :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 쳐. 아빠가 컴퓨터 하시면 핸드폰하고, 컴퓨터 안 하시면 게임을 하고, 웹툰 보거나 좋아하는 연예인 음악 듣거나, 숙제하거나. 숙제는 혼 안 날 정도만 해. 예전에는 배드민턴도 갔었는데 지금은 방학 중이라 안 해. 2학기 되면 다시 하지 않을까?

밀루 :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워?

H : 이게 만족스럽냐고?!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이게 만족스럽다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도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되게 프리하게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야자하고 거의 10시쯤 끝나고 그러니까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들렀다 오는 거라고. 그만큼 학교에서 오래 있으니까.

밀루 : 일주일 학습시간을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까?

H : (계산) 2995분이니까, 약 49.92시간, 하루 평균 약 7.1시간.

보충자율학습, 강요받는데 의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밀루 : 보충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빠질 수 있어 아니면 강제로 이루어져?

H : 못 빼지. 그건 강요가 아니라 거의 반 의무라서. 예체능 아니면 못 빼. 이걸 안하면 안 될 것 같아. 애들 다하는데 안하면 내가 입시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강요하는 걸 본적은 없는데 아마 안 한다고 하면 설득을 하시겠지. 보충을 빼는 건 상상도 못해봤는데.

밀루 :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H : 안 하겠다고 하는 애는 있지 않았을까? 단지 우리 귀에 안 들어 온 것 아닐까. 우리학교였는지 다른 학교였는지 담임 쌤이 학생이랑 말해서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말해서 (보충학습)하라고 했다고 들음. 인문계 고딩이면 어딜 가나 그렇게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우리는 강요받고 있는데 강요를 의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실 자율학습도 자율이 아니잖아, 타율이잖아.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무더진 듯. 1학년 때는 힘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이젠 강요받고 있다는 거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해.

밀루 : 1학년 때 굉장히 야자를 하기 싫어했잖아. 야자를 빼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못하고. 그럴 때 어땠어?

H : 고등학교를 아예 안다니고 싶다고 했어.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두 분 다 학교로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원래 1학년 때는 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1학년 때는 원래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셨대. 그럼 우리 딸이 야자시간에 책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건 우리 담임선생님 뿐이었고 다른 선생님들은 동의한 게 아니라서 어떤 쌤들은 잡고 어떤 쌤들은 안 잡고 이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래도 나는 지금도 문제집 쌓아놓고 몰래 책읽기도 하고 그래.

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 같아.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체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드림을 배우고 싶은데, 드림 학원 다니면 야자 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졸업은 하고 배우라고 하기도 했고, 남들 다 공부하는데 나만 안하고 있을 수는 없고.

고2 여름방학 10일이 '마지막 방학'

밀루 : 방학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보충자율학습은 하는지? 강제성은 있어?

H : 맞아 나 이게 말하고 싶었어. 나 이게 고등학생 때 마지막방학이야! 11월에 고3이 수능을 보면 우리가 고삼이라서 다음 겨울방학은 방학이 없다고 보면 된대. 고3이 뭐겠어, 공부공부수능수능내신내신. 이번 방학 때 열심히 놀거야. 그래봤자 10일이긴 하지만. 반은 공부하고 반은 쉬라는데 싫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공부 안하면 불안하긴 해. 남들 하는데 안하면 불안하고. 근데 마지막 방학이라는데 내가 이마저도 포기를 해야 돼? 방학도 짜게 주면서. 10일이 뭐냐, 10일이.

7월 16일에 방학식하고 17일 하루를 쉬어. 그리고 18일 19일 주말 쉬고, 20일부터 보충수업을 시작해. 그다음 주에도 보충수업.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0일 동안 쉬고, 11일에 개학. 말만 방학이지 수업은 다하지. 야자만 없는 거라고 보면 돼. 10일 쉬는 기간에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 신청을 해서. 난 안 했어. 내가 왜 해? 하기 싫어.

밀루 : 방학 중에 등하교 시간은 어때?

H : 8시 반에 등교하는 건 똑같고 8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해. 50분 10분 네 번 반복하면 점심시간. 점심 먹고 한 수업을 더해. 5교시 끝나면 청소시간. 끝나면 3시간을 자율학습을 해. 1시간하고 10분 쉬고. 야자 할 애들은 밥 먹고 하고 가고. 신청 안한 애들은 안하고. 우리도 2학기 되면 이거 다 신청해야 할 걸.

밀루 : 아 고3 때 방학이 없다는 말이 야간과 쉬는 날의 자율학습도 강제로 해서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야?

H : 그렇지. 야자는 강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야. 3학년은 토요일에도 학교 나오는데. 아 언니들 부럽다. 수능은 안 부러운데 그 후가 너무 부러워. 막 염색하고 머리 묶고 나타나겠지. 부럽다. 영화도 하루에 한편씩 보

고, 난 언제 그러지.

학생인권조례에 강제학습 금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밀루 : 광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잖아, 그 내용 중에 강제학습을 시키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

H : 대박이다. 듣도보도 못한 소리고, 난 두발자유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럼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도 이려고 있는 거야. 할 말이 없다. 1학년들은 좀 빼주지. 싫다는 거 잡고 있어봤자 공부가 얼마나 된다고. 줄고, 하기 싫어서 튀려고 아픈척하고 그러는 애들이 태반인데. 그런 조례도 있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네. 나는 1학년 때 (야자 때문에) 정말 죽으려고 했거든.

밀루 : 성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는데, 성적차별은 있어?

H : 어떤 선생님은 성적 가지고 차별대우하는 게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좀 더 나긋나긋한 거? 못하는 애들한테는 말을 비꼬듯이 해. 성적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애들은 따로 반 만들어서 따로 수업해줌. 나랑은 거리가 멀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국어 어찌고 수학 어찌고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우리한테 써오라고 했어. 솔직히 내가 공부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끝나고 쌤한테 질문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쓸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 메일을 안냈단 말이야. 저는 수업시간에 줄지 않았습시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시다 이런 거 그냥 안 썼어. 그리고 나서 기록부 보니까 자체적으로 써주신 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텅텅 비어있더라고. 되게 당황스러웠어.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내가 이해해야 되나? 좀 섭섭하더라. 아니 그럼 내가 자백을 해? 쌤들이 써주는 칸은 쌤들이 써주던지.

밀루 : 대학 갈 때 생기부 중요하다고 강조는 엄청 하잖아. 그런데 텅텅 비었다니..

H : 면접 볼 때는 생기부가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내신이지.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그래서 대충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해. 결론은 공부 잘하라는 소리 아냐.. 난 해당 안 되나? 서러워서 살겠냐.

밀루 : 여전히 성적차별과 학습 강요가 광주에도 있다는 거고, 왜 그럴까?

H : 스카이드 많이 보내면 고등학교에 좋은 거 있나? 왜 그렇게 못 보내서 안달이지? 야자를 시키든 안시키든 일등도 있고 꼴등도 있을 거란 말야. 근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왜 대학을 잘 보내야 하나요. 요즘 서울대 가면 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러냐? 학생들마다 하고 싶은 일이 다들 텐데 왜 똑같이 공부를 잘해서 똑같이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하는지.

밀루 : 광주에는 밤 10시 이후에 학원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까?

H : 별 효과 없을 듯. 10시 지나면 불 끄고 수업하는데 있다고 들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이해가 안되는 게 좋은 대학 운운하면서 사교육 줄인다고 야자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돼. 사교육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사교육을 막자는 게 잘 사는 집 애들은 학원에 많이 가니까 성적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막자는 거 같은데 광주는 별 소용이 있나? 잘 사는 사람들이면 벌써 서울로 뺐을 거 같은데. 되게 모순되지 않냐 언제나 1등을 운운하면서 성적차는 벌어지지 않게. 무슨 개소리야.

밀루 : 근데 궁금한 게, 성적차를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쟁은 어떤 거야? 혹은 경쟁이 없는 걸까?

H :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느냐로 차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성우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우선이잖아. 그런데 공부 잘해서 좋은 성우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의구심이 들긴 해. 어떤 게 좋은 경쟁이냐고 하면 나는 공부로 경쟁하고 싶지는 않거든. 굳이 한다면 연기로 경쟁하고 싶지. 그런데 사실 연기 등 예술 같은 건 수치화하기 어렵잖아. 그러

니 경쟁하기는 어렵고 나름의 개성이라고 보는 게.

등교시간 20분 늦춰졌어도 여전히 잠은 부족

밀루 : 작년에 9시 등교가 이슈가 되면서 광주도 등교시간이 늦춰졌다고 들었어.

H : 8시 반까지 등교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자습. 나는 그냥 8시 반에 맞춰 가는데 우리 담임쌤 왠, 10분까지 와서 자습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셨지. 근데 내가 그걸 지킬 것 같아? 요즘 늦잠 자서 힘들어 죽겠는데.

밀루 : 지금의 등하교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H : 예전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 8시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지. 그래도 내 친구가 그러더라. 한번 편하면 계속 편해지고 싶다고. 9시까지. 나도 그 말에 동의해. 그 시간에 좀 더 잘 수 있잖아. 9시가 되면 좋겠다. 우리학교는 안되겠지만.

밀루 : 왜 안 될 거 같아?

H : 8시 반까지 되는 것도 반대하는 선생님이 많았어. 9시까지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할지... 서울 쪽은 9시까지 등교한다며, 좀 부럽긴 해. 근데 끝나는 시간이 늦춰지나? 그만큼? 그렇다면 거부할게.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잠 자고, 화장실 가고, 공부하고...

밀루 : 수업시간은 어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H : 정규수업은 고등학생 치고는 적당하다고 생각함. 7교시면, 고등학생은 공부 엄청 해야 될 것 같잖아. 과목 수만 해도 엄청 많고, 문과인데 화학을 왜 해... 노답. 하지만 보충 야자까지 합하면 엄청 많아지지. 1학년 때 애긴데, 오죽하면 야자만 없었어도 학교 다닐 자신 있다고 말하겠어. 10시에 집에 오는 게 나는 상상이 안 되었거든.

학교 안에서도 보고 싶은 책 맘대로 못보고, 보고 싶은 책은 쉬는 시간에 봐야해. 그런데 피곤하니까 잠도 자고 싶은데 잘 수 있지가 않아. 잘 수 있긴 해, 대신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하지. 난 너무 피곤하면 그냥 화장실도 안가고 잠만 자기도 해. 그럼 옆에 애들이 야 쌤 오셨어 하고 깨워주기도 해. 사실 화장실만 갔다가 예습 복습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해. 그런데 수업시간에 안 조는 것도 고역인데. 정말 쉬는 시간에는 잠 와서 뒤져. 그래서 나 인형 가지고 다닌다. 쉬는 시간에 베개 삼아서 자려고. 셀 수 없이 많아. 피곤해서 자다 일어났는데 두세 명 말고는 신기할 정도로 다 똑같은 자세로 엎어져 있어. 교실 불을 끄고 그러기도 해. 애들 편하게 자라고, 진짜 웃겨. 자다 일어났는데 애들 세 명 빼고 다 엎어져있고 그러면.

밀루 : 그럴 거라면 다들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게 해주면 좋을 텐데

H : 되겠냐, 우리학교가. 다들 들고 일어나면 될지도 모르겠다. 삼백 몇 명이 '집에갑시다!' 하면 '이것들 조용히 안해?' 하다가 보내주겠지. 하지만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 한둘이 빠지다 보면 다 빠질 거란 말이야. 꼭 그런 사람 있잖아.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진압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할걸? 나야 하도 안하고 싶으니까 그런 엉뚱한 상상 많이 하지만 될 리가 없지.

쌤들 교무실에 안 계실 때 애들끼리 장난스럽게 우리 반 단체로 툴래? 그러기도 해.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한번도 본적이 없어. 한두 명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애들도 야 그럼 재밌겠다 하고 그때는 웃고 말지만 말 그대로 웃고 마는 거지. 못하지 애들이 간이 작아서. 나는 할 의향이 있는데 나 혼자만 하면 나만 찍히는 거잖아. 단체로 하자면 할 의향 있는데.

밀루 : 적절한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H :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경쟁하지 않고, 그렇다면? 9시~4시, 딱 그 정도만 되어도 행복할 것 같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 괜찮은데? 4시는 좀 너무한가, 5시?

배 아플 때 참는 게 버릇 돼

H : 나는 신경성 장염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볼일을 못 봐. 누가 옆 칸에 들어오면 바로 얼어버린단 말이야. 집에 와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갇혀있어야 하는 나는 어찌라는 거야! 매번 빼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잖아. 쌤들이 처음에는 ‘배 많이 아파? 빨리 가봐라’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또 아파?’ 이런 느낌이더라고. 난 진짜 아픈데 어찌라고. 내가 나보고 아프지 말라고 해? 그럴 순 없잖아.

밀루 :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이야기 해줘.

H : 진짜 아픈데 조퇴 못할 때. 눈치 보여서 못 하겠을 때. 생리통일 때는 말하기가 뭐하잖아. 그런데 그런 날은 집중 진짜 안 되단 말야. 비 오고 축축하고 나는 그날이고 기분 겁나 안 좋은데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럼 미쳐버리지.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어. 하다보면 뿌듯한 날이 있긴 하지만 드물잖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차라리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있지 내가 왜 이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책속에 핸드폰 숨겨서 겨우겨우 문자 보낸 적도 있어. 아빠한테. 데리러 와주시라고, 제발. 못 참겠다고. 핸드폰 쉬는 시간 이외에 사용하면 뺏기거든. 진짜 문자는 보내야 되고, 손은 떨떨 떨리고. 쌤 오시나 안 오시나 보다가 얼른 문자 보내고.

그래도 좋은 점 하나 있어. 배 아픈데 참는 게 버릇이 되었어. 학교에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방학이라 여섯시에 끝나는데 평소에는 10시에 끝났을 거잖아. 하루종일 참다보니까 단련된 거 같아. 더럽지. (웃음)

조퇴증이라는 걸 없애면 빼는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플 때 눈치 보여서 말 못하는데. 쌤한테 말을 하고 가야되잖아. 좀 자율적으로 가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럼 학교 사랑할 것 같아.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아프면 진짜 답 없으니까. 학교가 학생을 보호한다고? 오히려 괴롭히는 것 같아.

밀루 : 또 1학년 때 야자 시간에 책 못 보게 하는 걸로 되게 힘들어했잖아.

H :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 책 안보이게 몰래 읽을 수 있는 요령. 저 쌤은 잡겠구나, 저 쌤은 그냥 지나가겠구나 하는. 감이 생김. 졸 때도 요령이 생긴다. 창문이 이쪽이면 일단 머리카락을 그쪽으로 숙여. 그럼 얼굴이 가려지잖아. 그리고 책에 뭔가 끄적이는 척 해. 그래서 난 졸다가 걸린 적 한번도 없다. 그런데 이런 거에 요령이 생기는 게 참... 책 좀 보면 어떻게 피곤한데 졸면 좀 어때서. 졸면 깨우거든. 졸다 엎어지면 바로 밖에 나가야 돼. 여름에는 애들이 절대 안 졸려고 하지.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그래도 자는 애들이 있어. 나갔다 들어오면 머리카락이 (땀 때문에 젖어서) 얼굴에 붙어있어. 잔해 죽겠어.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또 자더라.

야자가 없어지면 주말에 쉬 수 있지 않을까?

밀루 : 학원을 안 다녀서 불안한 적은 없었어?

H : 불안한 적은 엄청 많지. 왜냐면 과목 중에 수학을 제일 못해서 다른 과목 70, 80점 나올 때 수학만 30, 40점 나오면 되게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학원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평일에 못 다니고 주말에 다닐 거잖아, 극혐 아니야? 평일에는 학교 가고 주말에는 학원가고, 그래서 일부러 성적 떨어져도 불안은 한데 학원 보내달라고 하지는 않아. 노답이지, 나도 참.

밀루 : 아니야, 주말에는 쉬어야지. 학원을 안 다녀서 좋은 점은?

H : 일단 학원 다닐 시간에 설 수 있잖아. 학원숙제 없으니까 그 시간도 절약하고.

밀루 : 야자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두 강제로 야자를 시키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H :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야자 한다고 해서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있나? 주말에 학원 다니는 애들은 야자를 빼주면 차라리 (주말에 쉬고) 그 시간에 학원가서 공부를 할 거란 말야. 나라면 주말에 늦게까지 하는 거보다 야자 할 시간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야자를 없애는 게 총 학습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야자가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시험기간 전이나 수능 앞두고는 무조건 해야겠지? 또 속제 많은 날에, 그 외에 다른 날은 집중 안 되는 날에는 쉬고, 다음날 수업시간에 안조는 게 낫지. 근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야자를 안 한다고 애들이 다 졸지 않을지는.. 하지만 난 야자 빼주면 안 졸 자신 있어. 그건 확신해.

공부할 건 너무 많고 피곤하다는 생각 뿐

밀루 : 설문조사에서는 학습시간이 가장 긴 고등학생이, 초·중등 학생에 비해 학습시간이 적다고 여기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대. 왜 그럴까?

H : 당연할 수밖에. 수업시간이 초·중에 비해서 늘어나잖아. 그만큼 복습해야 할 양이 많아진다는 소리야. 교과수도 늘어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초·중학생 때는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압박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지금은 배우는 게 엄청 많잖아.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이렇게 야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9시간 수업을 하잖아. 그런데 야자 2시간으로 9시간 했던 걸 다 복습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보면 우리 배우는 게 참 많다.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국어 수학 영어 윤리 사회문학 한국사 일본어 화학..

밀루 : 수업시간에 어떤 기분이 들어?

H : 기분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피곤하다. 피곤해죽겠다. 그거 말고는 딱히 드는 생각 없어. 자고 싶다? 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자게.

밀루 : 나는 학교에서 그런 게 두려웠어. 배우는 게 많다보니까 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휩휩 지나가잖아. 그럴 때 난 화나고 슬프고 당황스러웠거든.

H : 그게 여러 번 반복되잖아? 슬프지도 않아. ‘아 이게 뭘까’ 그런 기분만 들어. 불안하기는 엄청 불안하지. 나는 이해 안 된 거 같은데 주위 애들이 ‘네네’ 이럴 때 제일 불안하지. 나만 지금 이해 못한 건가? 하고. 옛날에는 진짜 칠판에 쓰기만 하고 지우고 그런 썸이 많았다던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 같아. 컴퓨터도 쓰고 PPT 화면 넘기면서 수업하기도 하고. 동영상 보여주는 썸이 제일 좋아. 그 시간에 설 수 있잖아. 필기 덜하고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수업들을 수 있잖아.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지만, 자유시간은 5시간만이라도

밀루 : 좀 더 낮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수면시간, 휴식시간, 자유시간, 여가시간은 얼마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H : 수면시간은 적어도 7시간은 넘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은 지금은 10분인데, 15분에서 20분으로 늘었으면 좋겠다. 20분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 15분?

밀루 : 하루에 필요한 자유시간은?

H : 야자를 안 했을 때?

밀루 :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H : 최소시간만 말하자면... 3, 4시간. 너무 긴가? 4시간만 되도 행복, 5시간이면 더 좋고. 낮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소설책도 읽고!

밀루 : 또?

H : 또? 그럼 시간 다 지나가지 않아? 아, 소설도 쓰고 싶다. 소설 쓰면 2, 3시간은 확실히 지나가는데, 가끔 야자시간에 쓰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간다. 통쾌해. 나 공부 안하는데! 헤헷. 다 하기에는 5시간도 짧은 거 같아. 6시간? 7시간? 아 너무 길어지는데 안돼, 안돼. 5시간.

학교에서 항상 하는 생각, “내가 왜 이려고 있지?”

밀루 : 우리 면접 조사 전에 실태조사도 했는데, 사람들이 참 절제를 잘해. 자유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하려다가 꼭 ‘조금 부족하다’ 체크하고. 너도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피아노 치고, 녹음하고 하려면...

H : 녹음! 근데 이걸 하다보면 끝이 없거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 시간이 부족하거든.

밀루 : 그런데 너의 꿈은 성우고 차라리 그걸 위한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맞는 건데

H : 으악! 그치. 내가 하루 종일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짜증나네. 내가 왜 이려고 있지? 항상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게 뭐라도 하고 있는 게. 근데 내가 왜 이려고 있지. 항상 항상. 어쨌거나 자유시간은 5시간.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나 스스로 불안해질 것 같달까. 그래도 고딩인데, 너무 쉬면..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꼭 이럴 때만 불안해한다니까. (웃음)

밀루 : 학교수업시간과 사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로?

H : 지금이랑 상관없어? 음... 학교수업시간은 8교시는 해야겠지? 아니다 9교시는 해야겠지?

밀루 : 야자나 보충은 필요할까?

H : 필요는 하되 자율적으로 했으면.

밀루 : 사교육은?

H :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굳이 필요하다면 1시간? 난 안하고 싶은데.

밀루 : 그런데 나 엄청난 모순을 발견했어. 자유시간은 5시간은 되어야 하는데 학교 수업시간은 9시간은 돼야 해? 학교 오가는 시간 씻는 시간도 있고..

H : 엇 그러게. 다 합해서 25시간이 돼. 내 하루는 25시간? 공부시간을 8시간으로 줄일래. 학원과의 학교 다 합해서 8시간!

공부 분위기보다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

밀루 : 학습시간과 부담 문제 관련해서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있다면?

H : 야자 제발 자율로 해줬으면. 제발제발제발. 제발 무조건 세 번 넣어. 난 아주 절박해.

아플 땀 눈치 안보고 조퇴 할 수 있었으면.

밀루 : 방학기간에 보충하는 건?

H :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다 안하면 모를까 나만 안 하면 뒤쳐질까 두려움. 숙제, 특히 영어, 문제 10문제 씩 풀어오라고 하지 말았으면. 그거 때문에 야자 한 시간 다잡아먹는데.

밀루 : 시험은?

H : 시험은 오히려 있으면 좋아. 웬지 알아? 빨리 끝나니까! 나는 시험 전에 항상 배탈이 났어. 그때도 조퇴하고 싶었는데 타이밍 놓치고 악순환 반복이었다니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밀루 : 아플 때 말고도 조퇴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아? 전에 우리 단체에서 조퇴할 권리라고 해서, 낮잠 자고 싶을 때라든지 친구랑 놀러가고 싶을 때라든지 그럴 때도 조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H : 좋다. 근데 내가 졸업하기 전까진 안 되겠지. 되면 대박. 그럼 학교 사랑할거야. 절대 지금은 아냐. 오해하지 마.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지?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공부 분위기가 형성 안 되면 싫어하겠지만 나랑 상관없어, (손으로 X표시를 만들며) 뻘!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

점심시간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강제학습... “고 3이라는 이유로”
다섯 번째 심층인터뷰 : 울산 일반고 학생

피면접자 : G (울산 소재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시 : 2015년 7월 19일 오후 3시 ~ 4시

면접자 : 공현

7시 50분부터 밤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도 하루 12시간 공부

공현 : 첫 번째가 그냥 기초질문으로 학기 중에 일주일 생활이 어떻게 되시는지..... 등교 시간이 몇 시고? 수업시간은 몇 시간 하고? 보충 자율은.... 뭐 이런 거?

G : 등교 시간은 일단은 7시 50분까지고요, 네, 오전. 그리고 정규수업시간은 7교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3, 4시쯤 끝나요. 그리고 7교시 이후에는 8, 9교시 혹은 보충수업.. 이렇게 있고.

공현 : 야간자율학습은 안 하시나요? 야자는 몇 시에 끝나죠?

G : 야자는 10시에 끝나는데요. 저 말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야까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심야야자는 12시까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토요일엔 학교에 또 나가는데 이걸 등교는 8시 반까지 했다가, 학교는 4시 반이나 5시 반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을 먹고 학원을 또 7시 반에 갔다가 9시에 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한 7시간 정도 자율학습을 하는데,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자습만.

공현 : 음.. 학원 다니세요?

G : 네. 학원, 뭐, 또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이전까지는 별로 학원의 힘을 받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대체로 학원은 그냥 영어나 국어 정도만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어학원 정도만 다니고 있고, 주말에만 나가고 있어요. 이따가도 또 가야 하는데. 근데 나름 이제 학원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그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또 가끔씩, 학원에 가더라도 숙제가 굉장히 많다거나 혹은 뭐 굉장히 체벌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대체로 학원 분위기 자체는 좀 널널한 분위기를 선호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주말 생활이랑.

공현 : 그러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야자까지 한다고 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도 한 11시간?

G : 야자까지 하면은... 12시간 정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점심자습이라고 해서 보통 계속 자습을 시키죠. 강제적으로. 고3이라는 이유로.

공현 : 거의 13시간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주말에까지 하면은, 주말에 나가서 학교공부하고 학원 공부하면은 한 그것도 9시간 정도?

G : 그렇죠, 9시간 정도

공현 : 그러면 일주일 학습시간이 65에다가 거의 한 80시간 되겠네요? 7, 80시간 정도?

G : 네, 네. 사실상 쉬는 날은 일요일 하나밖에 없긴 한데. 그것도 저녁에는 학원을 가야 하니까.

아침에는 1시간씩 자율학습, 9시 등교가 굉장히 부러운 이유

공현 : 울산은 지금 등교시간이 아까 7시 50분이라고 하셨나요? 1교시는 8시 반?

G : 1교시는 이제, 9시 반에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아침자습시간이랑.

공현 : 보충은 아니고 자습만 하는 거예요?

G : 자습만, 대체로 아침보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학교들마다 아침자습시간이 그 정도, 아마 50분인데 쉬는 시간 10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수업시간이 9시 30분에 시작하게.

공현 : 점심시간이 엄청 짧아요?

G : 점심시간이 50분인가 1시간인가 그렇게, 저녁시간도 마찬가지.

공현 : 밥 먹고, 그런데 자습까지 하면은 굉장히 점심시간이 뽀뽀하겠네요. 밥 먹기도.

G : 그렇죠. 원래 저희가 점심 자습이 1시부터 시작하는데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 땀 치면 달려가는 거고 그러게 되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밀려서, 밀려서 하다 보니까, 1시쯤에나 먹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쨌든 자습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공현 : 여쭙본 게 왜 9시 등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9시... 사실 지금도 아침자습만 안 하면 9시 등교는 충분할 것 같은데, 등교시간이 그렇게 좀 늦춰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G : 네, 저는 9시 등교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아우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들어오기 전부터 SNS 상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9시 등교가 시작된다하고 그런 얘기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아, 우리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 때 수도권이나 그런 데서 그 얘기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을 때 우리도 설마 그런 게 있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긴 했었는데. 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일찍 와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체로 다 피곤해서 쓰러져있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뭐 어차피 이렇게 쓰러져 잘 거면은 뭐 하러 이렇게 일찍 와서 앉아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일어나서 빨리 공부해라,

공현 :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9시 등교 찬성률이 별로 안 높아요. 그게 뭐냐면 하교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G : 아,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살짝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9시 등교가 딱 9시 등교는 아니구나. 그 경기도에 야간자율학습 그게 없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길어야 5년 그런데, 분명히 지금 학생인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겪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늦어져봐야 계속 어차피 학교에 남아있으니까, 뭐 1시간 하교 더 늦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1시간 더 자는 것 더 좋은 것 같은데.

공현 : 보충야자를 거의 다 하는 경우는 그렇죠.

G : 1시간 늦어진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게.

공현 : 경기도는 2010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고, 보충야자 강제로 안 하는, 지금도 강요하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안 하는 학교가 대다수가 된 게 한 4년 됐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사실 보충 야자 강제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경기도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보충야자 안 한다 치면 이게 등교시간 늦어지면 4~50분씩 늦어지니까, 학교가.

G : 근데 이제 9시 등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또 학교에서는 수능? 수능 시간에 패턴을 맞춰야 한다고,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공현 :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수능 하나만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간표를 다 맞춰서 간다, 이런 것들?

G : 그거는 그 때 당시 처음 들었을 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뭐랄까, 그게 수능시간이 문제되면 수능시간을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 단체로 3년 동안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죠.

보충수업 안 듣는 학생은 '학업에 뜻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공현 : 이게 고2 때에 비해서 확 좀 늘어난 건가요? 고3이란 이유로?

G :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뭔가 시키는 게, 강제성을 두고 시키는 게 늘어나다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점심자습도 없었고, 토요자습도 이제, 뭐, 희망자만 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까지도 휴일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3이라는 이유로 토요자습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수업을 하려면은 야자랑, 그리고 토요자습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는 쪽으로,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안 할 거면 다 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라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다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현 : 포기라는 건가?

G : 그렇죠, 사실상 거의 다 안 하면 포기한 사람처럼 대하곤 하는데, 또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게 보충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다 시키는 편이라서, 그냥, 특히 탐구 과목 쪽 그러면 보충수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진도를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탐 과탐. 사실상 이게 진도를 나가다보니까 보충수업을 안 들으면 수업진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도 뭐 이제 가끔 부모님이랑 그리고 또 선생님이랑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아예 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공현 : 그럼 뭐... 보통 학원을 간다든가 다른 진로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설득을 하는 거겠죠?

G : 그게 아니면 아예..... 학업에 뜻이 없다 이런 서약서를 또 작성하고,

공현 : 학교를 원망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 (웃음)

G : 네네, 그런 거요. 그런 거 써서 뭐 다 토요자습이라든가 야자 이런 거 보충 다 빼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다 손을 놓죠.

공현 : 뭐 지금 쪽 얘기 나오긴 했는데, 학습을 강요한 사례 이런 보충이나 야자? 이런 사례나 방금 말씀하신 거랑? 고1, 2 때에도 좀 보충수업이나 야자가 어땠나요? 강제성이나 그런 게.

G :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충수업이랑 야자랑 같이 합쳐서 강제적으로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방학보충수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띠고 있고.

공현 : 강제라는 게... 이렇게 선생님이 무조건 다 해라 이런 거?

G : 그렇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방학보충을 이제,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면서 대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문계? 전문계 대학교? 그런 쪽은 아무래도 일찍 끝나잖아요? 내신 같은 게. 그래서, 이번 방학보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택지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수능을 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친구 얘기지만 방학보충을 나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뺏아서 자기가 체크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저도 방학보충을 나가고 있는데,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요 자습도 나가고 있고 네. 그렇죠. 토요자습. 평상시랑 똑같이, 계속 8시 30분에 나갔다가 4시 30분에. 방학보충 같은 경우에 또 8시 20분까지 등교를 했다가 5시 30분에 하교를 하는 식으로. 근데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이런 강제학습 같은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보충수업은 그냥 안 듣고 야간자율학습 경우엔 제가 그냥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자율학습만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다 하는 쪽으로 그 게 안 되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니까.

공현 : 울산의 학교들이 대개 그래요? 고등학교들이?

G : 네, 여긴 대체로 다 그런 편이에요. 뭐 학교에 따라서 뭐,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그냥 저희 학교랑 일정이 비슷하고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야자가 12시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심야 같은 경우에는 12시 30분인가? 그 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공현 : 주변 학교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G :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할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공현 : 아까 보충 때 진도 나간다 하셨었죠? 고3이면은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진도 나가는 것보다 수능대비 하는 게 많아요? 어때요

G : 네 그렇죠. 그냥 수능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책도 처음엔 교과서를 사라고는 하는데 예전만큼 많이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 정도만 사고, 탐구 과목은 아예 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아직 책도 안 펴봤어요. 그냥 다... 교과서는 형식적으로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다 EBS 교재로 다 대체를 하는 거라서, 수능대비 한답시고 다 그런 걸로 사서, 돈은 이중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뭐.... 듣기로는 정부에서 그제.... 오로지 EBS 교재로만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교과서를 따로 사야 된다고,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교과서는 펴지도 않았어요. 사물함에 박혀있죠.

공현 : 그렇게 하려면 사실 고2 때까지 진도를 빨리 좀 빼야 하잖아요, 원래 정해진 것보다. 그러면 좀 진도에 쫓기는? 문과세요, 이과세요?

G : 저는 문과예요.

공현 : 그럼 막, 역사 과목이나 이런 것도 꽤 진도에 쫓기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G : 그렇죠. 진도에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 파트는 넘어가자, 그런 것도 많았고, 또 교과서에 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다 외워서 가고, 시간이 없다면서.

좋은 자습실 배정은 성적 좋은 학생 우선

공현 : 강요하는 것 말고 이제, 어떤 차별이나 폭력? 성적을 이유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이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가령 뭐 어떤 비교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학교의 교사가 뭐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어떤 게 있으세요?

G : 네 뭐 그런 거야 뭐.... 한,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일상적으로 많이 겪어왔던 거라서, 하도 많이 겪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집중적으로 듣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듣고 흘리는 식으로...

공현 : 그렇죠.

G : 뭐라고 사례를 딱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성적을 가지고 어떤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쳤는데 몇 점 이하로 나오면은 하나 틀릴 때마다 몇 대씩. 뭐 이런 거는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 딱 커트라인을 뒀던 것 같아요. 대체로 60점이나 70점 대였던 것 같은데.

공현 : 성적으로 인한, 야자실을 더 좋은 델 준다거나 그러는 학교들이 있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을 받을, 아니 공식 반이 아닌데 이제 따로 편성을 해서 뭐 야자실을 준다거나, 보충수업 같은 걸 할 때 따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다든가 뭐 서울대 준비반 이런 식으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건 없나요?

G : 저희는 이제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는데요, 자습할 때 정독실이라고, 따로 성적순으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한 몇 명 정도 따로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실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춰놓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야자 때나 토요일자습 하여튼 이런 자습시간 때마다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네 그런 공간이 따로 잇기는 하죠. 성적이 몇 등 이상이어야지 쓸 수 있는, 그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요, 뭐 또 자리가 어느 정도 남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 이용할 수 있게.

공현 : 성적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반에 게시판에 붙여놓고 확인하라고 하면서? 이런 게 있나요?

G : 붙여놓는 거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붙여놔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성

적을 과목별로 쪽 나열을 해줘요. 학년, 반, 이름 이렇게 있고, 성적 이렇게 나와 있고, 등수 나와 있고 석차 나와 있고 이런데. 그게 그렇게 비고란에 뭐, 성적을 확인하고 싸인을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수업 마치고도 집에 못 가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야자가 없다고 하는 날이 좋다.

공현 : 네 뭐, 기초적인 건 이 정도 물어보고. 그 이제, 학교에 14시간을 있는 마당에 묻기가 참 그렇지만. 학교생활 하면서 하루 중 가장 힘들다 불행하다 느끼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뭐 누구는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했는데.

G : 저도 그건 진짜 적응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참.. 힘들긴 한데. 이제, 매번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적응을 느끼기는 되는데. 간혹 좀 힘든 날이 있어요. 뭐랄까, 그냥 좀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또, 보충이나 야자 같은 거를 안 하는 친구들은 먼저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정규수업이 끝나고 마치는 시간에. 그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시쯤, 4시 쯤? 저 친구들은 가는데 나는 앞으로 7시간 정도 더 학교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막막하죠, 그럴 땐 참.... 그 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것 같아요.

공현 : 주말 토요일에 나올 때는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그것도 익숙해졌나?

G :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냥. 일단 토요일에 나온 건데도 아침에 일찍 굉장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 일단 힘들고. 가도 수업이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지만 다 자습하러 가는데 자습시간이 일곱 시간이나 되는 게. 그래서 대체로 가면 또 피곤해서 1, 2시간 정도는 잤다가 또....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습시간은 그렇게 7시간 정도 있어도 제가 공부가 제대로 되는 시간은 길어야 2시간? 3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공현 : 그리고 야자 때도 그렇긴 한데, 주말자습이나 그럴 때는 좀.... 토요일자습 때엔 분위기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G : 네, 좋진 않아요. 그냥 신청은 해놓고 안 오는 친구도 많고. 대체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나오라고는 하는데 점심에 급식을 안 주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급식이 따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방학보충 때 하는 경우에는 급식이 아예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강제로 나오는데 밥 때 되면 너희가 알아서 챙겨먹고 다시 들어와서 자습하라, 이런 식으론데. 그래서 점심 때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집에 가더라고요.

공현 : 그렇게 방학인데 토요일에도 나오라고 하면 좀.. 확실히

G : 그래서 그런가, 딱히 터치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학교에서도. 그래도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제가 지각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공현 : 그러면 반대로 학교에 있는데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좋아질 때는 언제일까요?

G : 학교에 있는데 가장 기분이 좋아질 때는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뭐, 야간자율학습이 없다는 거? 그런 때는 진짜 좋죠. 야자라든가 그런 게 없는 날에는 방송으로 얘기해요. 그럼 전 학년이 막, 학교가 떠나가라 와~~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방금 또 생각이 난 건데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저녁 석식 전에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무단외출이라고 해서 나가면 안 되긴 하지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친구들이랑 자주 다니고 있는데. 그럴 때엔, 뭐랄까 일단 교문을 벗어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들어서. 아까는...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공현 : 네 그러면 야자 다 끝나고 열 시에 나와서 집에 갈 때는 좀 어때요? 짐이 무겁다? 피곤하다? 아니면 그래도 끝나서 집에 간다?

G : 아~ 네, 뭐. 그래도 끝나서 집에 간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보다는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가면 이제 다시 8시간 뒤면 다시 학교로 온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있어요.

방학 때도 야자만 빼고 하는 건 다 한다.

공현 : 일단 방학, 뭐 아까 보충수업 자율학습 얘기는 했고, 여름방학기간이 며칠 정도예요?

G :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뭐. 말로는 한 달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충수업 끝나고 하다보면 2주일? 2주일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가 실제적인 방학이죠. 4주~5주. 이번에는 좀 방학이 길어서 5주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보통한 뭐..... 4주나 3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충 끝나고 나면 어떨 땐 실질적인 방학이 3, 4일 이렇게 남아있을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공현 : 방학일수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보충을 안 한다 치고.

G :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학이 좀 줄어들어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중학교 때가 좀 줄어들고 한 달 좀 안 되는 정도로 줄어들고, 고등학교 오니까 그마저도, 한 달 마저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방학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공현 : 거기다 이제 보충을 하면 실 방학일수라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짧겠네요?

G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자만 안 하지 학교에서 하는 건 다 하는 거니까.

10시 야자 마치고 12시까지 학원 다니기도 한다.

공현 : 음 학원에 아까 주말에만 다니신다고 했는데, 적게 다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주변에.

G :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하나밖에 안 다니니까. 좀 적게 다닌 편인데.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니는 친구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생을 학원에서 중학생들처럼 매일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불러요. 해서 뭐, 월화수나 화목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두 개, 세 개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에는 무슨 학원 가고 화목토에는 무슨 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사실상 일주일... 매주 이제, 학원을 가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죠.

공현 : 그러면 고3 되어서 학원가는 학생이 좀 줄어들 거는 포기를 해서? 또는 학교에서 워낙 야자까지 다 시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G : 어.. 시간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포기를 해서거나, 하나는... 저도 이제 학원을 그렇게 많이 안 다닌 것 같던 게,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주로 교과서? 교과서에서 시험을 많이 내는 게 고등학교에는 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될 것 같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작년 부터 많이 학원들을 끊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공현 : 일단 뭐 학원을 다니시니까, 좀 널널하다 하셨고. 학생들이 좀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인문계고 학생은 특히. 그러고도 학원을 또 다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G :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 같은 경쟁의식? 그런 게 있겠죠? 뭐.. 좀 더 개인적인 이유로 가자면, 어떤 대학교에 목표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수학 같은 거라든가. 아무래도 워낙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시간표 배치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보

충 때도 있는 편이고, 좀 많이 차지하는 편이고. 그래서 보충 안 듣는 학생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엔 학교 진도가 계속 뒤처지니까, 그거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학원에 서처럼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즉각적으로.

공현 : 이제 뭐. 야간자율학습 폐지나, 아니면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했을 때, 안 하면 그만큼 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야자라도 좀 강제로라도 시켜야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돼서 했을 때, 학원연합회에서 야자 강제로 안 하는 거 환영한단 입장도 얘기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 학생 당사자로서 보충야자 강제로 하는 게 사교육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학원을 안 다니기 위해서 보충을 듣고 야자를 해라라는 말이 어떤 정당성이 있는 말인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G :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하도 학교에서 잡아놓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순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주변에도 많이들 하고.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야자 마치면 바로 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10시부터 12시까지... 또 학원들도 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들 조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냥..... 주말에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공현 : 음... 저희 조사에서도 약간 강제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교육 참여 여부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근데 시간은 좀 차이가 나서. 뭐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야자를 강제로 안 하는 학생들은 1시간 정도 사교육을 일주일 전체로 봤을 때 1시간을 더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에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참여 자체에는 별.....

G : 참여 자체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공현 :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런 거.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학원을 안 다니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야자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 어떤... 정당하게 들리나 이게.....

G :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도 알겠지만 일단은 야자를 하는 거랑 학원을 안 다니는 거랑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어요. 야자를 안 하게 되면 학원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나니까, 뭐 혹은 가정에서의 압박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또 여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울에 비해서는 사교육이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는 아니기도 하고, 경쟁률도 그렇게 뜨거운 그런 편은 아니라서. 만약에 야자하다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독서실? 자습실?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갈 것 같기는 한데.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말 자체도 이상한 논리인 것 같은데. 보충수업도 다 돈 내요. 교재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친구에게 가르쳐주다가 '이러다가 애가 나보다 성적 잘 나오는 건 아닌가...'

공현 : 딱 이럴 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은? 있다면? 뭐 시험기간이든? 아니면.....

G : 네 아무래도 시험기간이 제일 심각하겠죠, 네. 그 때는 이제 뭐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힐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냥 쉬어도 맘 편하게 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공부하니까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는 건가, 또 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집 안에서도 맨날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남들은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다 온다는데 너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자냐, 뭐 그런 얘기.

공현 : 14시간씩 학교에 있다 오는데 너무하시네.

G : 그렇게 얘길 하면은 너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아라, 그런 얘기는 학교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다 듣는 편이죠.

공현 : 친구들 사이에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 또는 경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엄청 노골적인 게 아니어도 왜 그냥 친구한테 내 성적 말하기 좀 - 잘 봤어도 그렇고 못 봤어도 말하기 좀 그렇고, 뭐 그런 거라던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그런 성적이나 공부 문제가.

G : 네 그렇죠. 뭐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험 끝나고 나면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공부를 잘 하는 학교에 속한 게 아니라서, 뭔가 그냥 성적이 안 나왔다 해도 뭐 그냥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온대로 서로 비교를 하고 누가 더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성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기준에서는 되게 못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재 되게 재수 없어, 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시험기간 때는 시험기간대로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러 올 때냐? 그렇게 하면은, 되게 질문도 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걸 내가 계속 가르쳐주면 애 성적이 나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 네. 너무 자주 물어보면 공부가 안 되기도 하고, 귀찮.....은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친구의 성적이 눈에 띄게 크게 향상되거나 그러면....

공현 : 이 학습시간이 긴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부족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는 학습시간 대 자기생각으로 하면 약한 브이그래프로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깊은 브이자 그래프가 나오는. 사실 학습시간 적은 학생들도 내가 공부 적게 해 하고, 학습시간이 많은 학생들도 내가 적게 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특히 또 휴식 때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학습시간이 긴 학생들이 더 많고.... 그래서 특히 고3으로 갈수록, 학년 별로 보면 고1·고2·고3 중 고3이 제일 그런 게 심한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G :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나가서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뭐 14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무래도 좀 없다보니까, 야간자율학습 때? 그때에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학습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네.

공현 :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딱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모의고사 점수든 시험 점수든

G : 네, 아무래도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적도 있고, 대체로 그렇죠. 그 게 워낙 힘들다보니까 오래 안 가서 그렇지. 일단 다들 생각은 그렇게 해요. 공부 해야겠다, 막 이려고.

공현 : 저는 고3 때 생각해보면 3월달 한 달은 쉬는 시간에도 야자 시간에도 다 공부만 하고 엄청 조용했는데, 교실이. 한 4월 중순 되니까 막 또 쉬는 시간이면 다 떠들고.

G : 예, 저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막 주변에서 고3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많으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애들이 더, 고3이니 공부해야겠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니까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공부를 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진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손을 놓는 경우도 많이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좀 했던 경우가 있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좀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한 동안 계속 안 하게(?) 되고.

공현 : 그 좀 휴식할 때, 쉬는 시간에도 쉬거나 놀 때도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느낀다는 답이 꽤 높은데, 이것도 초중고 올라가면서 커지는데 그런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들어서?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이제 어떤 이럴 때에도 딴 애들은 공부를 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 때?

G : 저는 일단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는 계속 이럴 때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실제로도 보면은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재는 지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현 : 또 뭐가 쉬거나 게임하고 나서도 끝나면 죄책감이 들 때? 이럴 때.

G : 죄책감까지는 잘 안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하면서 맘이 그렇게 편치는 않죠.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분위기가.

학습스트레스 때문에 여가시간은 꼭 필요하다.

공현 : 자기가 좀 더 낮게 혹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시간과 휴식시간? 또 자유시간? 이런 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수면시간이 지금은 한..... 일곱 시간? 여섯 시간? 되시나요?

G : 뭐... 상식적으로 일단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수면시간이라고 학교에서는 말을 하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뭐랄까 그러면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휴대폰을 만지면서 그렇게 놀곤 하는데, 아무래도 밤늦은 시간이나 밖에 나가서 놀긴 뭐하고, 또 실제로도 나가서 놀 수 있는 곳도 없고. 뭐 PC방 같은 경우에 10시면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노래방도 아예 출입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집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나 텔레비나 휴대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시간은 뭐, 길어야 4시간이고 보통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되는데, 하루 중에 그 정도의 여가시간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작한 시간이 굉장히 늦다보니까 끝나는 시간도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는 걸 보시면 공부를 그렇게 해라,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밤을 새라 밤을 새,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렇죠.

공현 : 지금 아침에 한 7시 반? 언제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건?

G : 전 일어나는 건 6시 30분이나 7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실상 그런 여가시간을 갖고 자다보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물어보면은 수면시간은 대체로 4시간 5시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밤 1시인가 그 때쯤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도 그 때쯤에 자고.

공현 : 실제로 한 6시간? 5시간 반 이렇게 주무시는 건데. 적절한 수면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수면시간?

G : 그건 이제 뭐... 학생들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어서. 제가 느끼기에 개운하다, 싶은 건 한 11시간 정도. 수면시간.

공현 : 11시간? 반밖에 못 주무시네요.

G :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절대적인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원래 뭐 충분히 잤... 그냥 학교 마치고 바로 자도 피곤한 건데, 오히려 수면시간은 더 줄어드니까. 학교에 이제 일찍 가도 다들 쓰러져서 1교시 아침자습 시에. 대체로 선생님들이 학생들 깨우느라고... 각 반마다 다 그래요. 일어나라~ 이런 소리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다 들리고, 다른 반도. 저희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학년에 상관없이. 그냥 다 1교시. 자습시간부터 1교시까지 다 쓰러져서 자고.

공현 : 아까 뭐 잠깐 평일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좀 TV보고 이런 정도 얘기하셨는데,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이나 휴식시간이 평일에는 몇 시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주말에는 어떤지?

G : 저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시간 정도는 지금 제가 대체로 누리고 있는데,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주말에는 한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어디 여행을 짧게 갔다 올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웃음)

공현 :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이 시간도 중요한데 너무 밤 늦게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질적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G : 그렇죠. 낮이라고 해도 사실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저랑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디 놀러가자 그러면 돈을 많이 쓰면 그 때가 영화관이고 맨날 PC방, 노래방,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또 여가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또 돈도 없고. 다들 여행은 생각에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도 돈도 없으니까. 맨날 가던 데만 또 가는 거죠.

학교에서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현 : 네, 그럼 학교 수업시간 같은 경우는 좀. 수업시간 포함해서? 보충... 이든. 학교에서는 몇 시간 정도 있는 게 괜찮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럴 것 같아요?

G : 저는 그냥 정규수업시간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한, 대체로 7시간? 6시간? 그 정도. 3시에서 3시 반 정도 끝나는.

공현 : 그러면은 사교육 같은 경우는 또 뭐 좀 학교가 끝나고 받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는 포함해서,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G : 사교육은 뭐.. .필요에 따라 다르죠? 1, 2시간 정도? 2시간이 넘어가면 사교육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현 : 자기가 이제 특별히 더 공부해야 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에만 2시간? 하루에?

G : 네네.

공현 : 그리고 벌써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지금 공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딱 뭐 꼽는다면?

G :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강제학습? 강제학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공현 : 음... 뭐 또 그것 외에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하고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G : 일단은 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가 너무 학교의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라서. 학생회에 대해 학생회 권한이라든가 활동을 좀 권장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학교 진도로 대체되기도 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아예 동아리를.. 자체동아리를 꾸리지 않는 한, 따로 동아리 시간이 있어도 그냥 자습을 하거나, 뭐 다른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다들 형식적으로만, 어용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듯한? 고2 때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그런 여러 동아리를 만들어놓고, 작년엔 직접 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공현 : 아까 여가활동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동아리나 이런 게 여가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G : 학교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한정이 돼있어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뭐 거의 공부 관련된 그런 동아리가, 그런 게 받을 차지해서, 막상 할 수 있는 그런, 재밌게 즐길 수 있을만한 그런 동아리는 몇 개 없어서 그런 동아리는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 편이죠.

4장.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4장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학생 다수가 겪고 있는 학습부담]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학습부담에 관련된 문항에서 학습부담이 많다는 응답은 학교급에 따라 크게 많아진다. 학습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 31.7%, 인문계열고 학생 47.1%, 특성화고 학생 33.9%에 이른다. 학교에서의 학습시간과 양이 많다는 응답한 비율 등도 높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은 약 50% 안팎이다. 사교육의 경우도 정도는 덜하더라도 상당수가 너무 혹은 조금 많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심층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부터 ‘공부를 해도 불안하다’, ‘공부를 해도 해도 부족한 거 같다’, ‘숙제할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공부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성적을 내야 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는 피면접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과중하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다수 학생들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이것이 특별한 일부 학생들의 부정적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교육 체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 [저녁도 주말도 없는 학생들의 삶]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길었고, 저녁과 주말에까지 학습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과반수의 중고등학생들은 하교시간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인문계열 고등학생 중 72.6%는 저녁 6시 이후에야 하교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초등학생은 평균 저녁 7시 무렵, 중학생은 평균 저녁 9시 무렵,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평균 밤 10시 반 무렵에나 사교육 일정을 마쳤다. 고등학생은 정규수업과 이에 더해지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평균 10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평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총 11~12시간에 이르렀다. 인문계열고 학생은 평일 사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초등학생 피면접자들은 밤 7시나 8시까지 학원에 다녔고, 고등학생 피면접자들은 밤 10시 또는 새벽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하거나 그나마 비는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사교육에 참여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거나, 주말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늦게까지 머무는 학생들이 더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긴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학교, 학원, 가정 등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시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견을 남겼다. 과다한 학습시간이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

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오후와 야간, 그리고 점심시간과 주말에도 강요되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당하는 실태도 심각했다. 대표적으로 오후보충수업을 강요당하는 학생들은 오후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의 32.8%, 인문계열고 학생의 50.3%의 높은 수치였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강요는 인문계열고 학생에게서 두드러졌는데, 40.2%의 학생들이 학교에 의해 강제당하고 있었다. 인문계열고 학생은 두 명 중 한 명 꼴로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의 학습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또한 주5일제 시행 이후, 주말에 보충수업·자율학습을 하는 비율 등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고 학생 중 상당수가 주말에도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당했고,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다. 피면접자 중 고3인 학생은 학교에서 아침시간, 점심시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토요일 자습, 그리고 방학 중 보충수업 등까지 모두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실태를 이야기했다. 피면접자 고등학생 중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사교육을 참여하지 않고 쉴 수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학습 강요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과다하게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는 것이 일각의 통념과 달리 사교육 참여 여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부추길 위험성도 엿보였다.

■ [충분히 자지도, 편히 쉬지도 못하는 학생들]

긴 학습시간과 반비례해서, 수면시간과 자유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초등학생은 원하는 수면시간과 실제 수면시간 사이의 괴리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건강과 발달을 위해 권장되는 수면시간보다는 부족했다. 특히 심층인터뷰에서는 초등학생들도 학원과 숙제로 인해 수면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례들도 들을 수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더 줄어들어서, 중학생 중에는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인문계열고 학생은 무려 82.7%에 이르렀다.

평일 평균 자유시간도 2시간 ~ 3시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유시간이 과연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인지도 의문스럽다. 조사 결과 휴식 시에도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학생들, 공부하라는 잔소리 등을 듣는다는 학생들이 상당수여서 학생들이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잠시 잠깐의 휴식 중에도 핀잔을 듣거나 공부하라는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는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피면접자들은 방학을 하면 아무래도 여유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서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학교에서 각종 보충수업을 받아야 하거나 학원을 더 늘려서 정말로 자유롭게 쉴 수는 없다는 현실도 함께 말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최소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수면시간과 휴식·자유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아플 때도 조퇴를 할 수 없다는 응답도 무시할 수 없을 비율이었다. 장시간의 학습이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컸다.

■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 ‘보호자가 시켜서’, 그리고 ‘어려움’과 ‘두려움’]

이번 조사에서는 사교육 참여 이유 등도 함께 물었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는 보호자(부모 등)가 원해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성적과 경쟁에 뒤처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과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중학생과 인문계열고 학생 사이에서는 더 높아졌다. 심층인터뷰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위해서, 안 하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들이 나왔고,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하게 만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수업량과 빠른 진도, 그리고 학교 성적의 압박 등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간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보호자가 사교육참여를 강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와 시험에서 요구받는 학습량을 경감하는 것, 경쟁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강제학습을 줄이는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종합적 대책 필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을 볼 수 있었다. 학원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 역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여 심야 영업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추정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학생들도 ‘강제학습이 금지된 줄도 몰랐다’ 라고 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이나 학습에 관한 스트레스 등은 지역 사이에 그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이다. 피면접자 학생들도 ‘주변 학생들도 다 그만큼 하기 때문에’, ‘학생(고3)이니 이만큼은 해야 해서’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했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수능이나 대학입시를 개혁하거나 시험을 없애거나 줄이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등의 조치가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은 특정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며 종합적인 대책과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이후의 조사연구과제]

통계청의 조사를 비롯하여 사교육 실태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연구한 자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에 대해 종합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가 한국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조사설계에서 예산과 전문성의 한계나 표본 추출 방법에서의 한계 등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에 국가기관 등이 나서서 더 정확하게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연구해주시기를 바란다.

2부

학습부담 어떻게 줄일것인가 **토론 자료**

발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는 ‘학습시간 줄이기’의 의미와 실현 방안

공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12시간에 이른다.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이니, 그 이상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소리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80%나 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으로는 평균 6시간 20분과 8시간 3분이지만, 대신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중학생 경우엔 평일 5일간은 11시간이 넘는 사교육에 참여한다. 학교나 공부, 성적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있다”는 비율은 초등학생 13.6%, 중학생 31.7%, 특성화고 학생 33.9%, 인문계고 학생 47.1%로 크게 높아진다. 이번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에서 나타난 현실이다.

이와 함께 다른 자료를 살펴보자. 올해 통계청에서도 작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의 1일 평균 학습시간은 각각 8시간 28분, 7시간 16분, 5시간 23분이다. 이는 주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므로 7을 곱해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을 계산해보면 고등학생은 약 60시간, 중학생은 약 50시간, 초등학생은 약 38시간 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일주일 40시간, 연장노동을 합쳐도 최장 52시간이다. 이와 비교할 경우 이미 중학생부터 학습시간은 법정 최장 노동시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이러한 장시간 학습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학습	학교 학습	학교외 학습	전체 학습	학교 학습	학교외 학습	전체 학습	학교 학습	학교 외학습
요일평균	5:23	3:26	1:57	7:16	4:26	2:49	8:28	5:59	2:29
평일	6:49	4:35	2:14	8:41	6:01	2:40	10:13	8:21	1:52
토요일	1:42	0:19	1:24	3:39	0:12	3:27	4:52	0:55	3:57
일요일	1:05	0:07	0:58	3:03	0:02	3:01	4:03	0:16	3:47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초중고 학생의 평균 학습시간

이러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지난 6월에 발표된 것이었으나, 당시 학생들의 학습시간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거나 특별히 우려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초중고학생들의 학습시간이 노동시간보다도 길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가 가끔 눈에 띄었다. 이처럼 매우 긴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되지만 학생들의 시간은 교육 문제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장시간 학습’은 한국 교육의 중요 문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습시간’ 문제를 심각한 청소년인권 문제이자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로 보자고 제안한다. 학습시간의 문제로 접근하면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장시간 학습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요구하는 교육 환경과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학습들을 부과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다한 학습시간은 학생들에게 ‘시간빈곤’을 초래한다. ‘시간빈곤’이라는 개념은 한국고용정보원가 2014년 발간한 「소득과 시간빈곤 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정책 수립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소개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빈곤은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이 과부담 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할당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노동량”의 자리에 “학습량”을 대신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시간빈곤 개념을 참고한다면, 한국 학생들은 일종의 ‘빈곤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무적 활동의 강도나 피로감을 주는 정도와는 별개로 시간의 빈곤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유난히 짧은 수면시간과 부족한 휴식시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도 악영향을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면부족을 호소했고, 학습시간 때문에 자유시간이 부족해지는 점,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라고 재촉 받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험 등을 증언했다. 학습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리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 허리에 병이 생겼거나 장염과 두통이 생겼다는 학생도 있었다. 심지어 학교와 학원을 돌다보니 숙제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숙제를 못해가 혼날까봐 무섭다는, 학습시간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학생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곧 현재의 삶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습시간의 문제를 한국 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삼아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너무 긴 학습시간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수나로가 꼽은 5가지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 하루 학교수업량, 수업시수와 교육과정 축소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하루 학습시간은 다양한 형식의 학습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에서 학교 학습시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에서는 등·하교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쟀을 때, 중학생이 평균 8시간, 인문계고 학생이 평균 12시간을 학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학생들 중 절반가량은 등교시간은 이르고 하교시간은 늦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 학습시간 중에서는 정규수업시간은 가장 길고, 또한 수업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다른 보충수업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러 조사 결과를 살펴본 후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을 줄이는 것이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생들의 ‘시간 빈곤’ 해결을 위해 먼저 학교에서 더 많은 수업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드는 현재의 추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인문계 고등학생			특성화 고등학생		
스트레스	학교에 있는 시간		스트레스	학교에 있는 시간	
자주있다	평균	12:21	자주있다	평균	11:09
가끔있다	평균	11:59	가끔있다	평균	9:39
별로없다	평균	11:09	별로없다	평균	9:26
전혀없다	평균	10:41	전혀없다	평균	9:20

<2015학습시간부담조사> 결과, 인문계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고 답한 학

생들은 평균적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과 양이 너무/조금 많다고 느끼는 비율, 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 참여 이유 역시 초등학생 23.3%, 중학생 40.4%, 인문계고 학생 52.9%가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답하여 학교 교육의 부담이 사교육의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학교 수업의 진도와 교육과정, 수업량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학습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학생들이 1차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학교 수업의 내용이고 학교 시험에서 받는 성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부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적절한 시간 보장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서 내용과 양을 만들고 조정해야 한다. 아수나로는 OECD의 평균 학습시간이 주 30~35시간 선이라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오후의 다양한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9시 등교 3시 하교(수업 종료)'를 제한한다.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시간 1일 5~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수업시수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2015학습시간부담조사> 결과 역시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학습시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도 약 5~7시간 수준이었다. 오후 3시 무렵 학교 일과가 끝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저녁시간은 물론이고 낮 시간을 돌려줌으로써 사교육이든 문화활동이든 지역사회 활동이든 놀이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이미 현재 초등학생들은 이 정도로 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도 정규수업시수 자체는 약간의 조정만 이루어지면 되는 수준이다. 다만 그 수업의 내용과 밀도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수업시수부터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정규수업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7시간이나 8시간 이상씩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인문계고 학생들은 수업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입시 대비에 수업시간을 쓰거나 진도를 당겨서 나가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면접조사에서도 고3 학생은 3학년에 들어와서 교과서는 펴보지도 않고 EBS 교재로 수능 대비 수업만 하며, 진도를 무리해서 빨리 나가는 사례를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운영을 바로잡는다면 실제로 해야 할 교육과정 개편의 폭은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충분한 방학일수를 보장해야 한다

수업시수, 그리고 하루 수업시간은 수업일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수업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업일수를 늘리는 것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5일제 전면시행 이후 보고 있다. 적절한 방학일수가 어느 정도인지, 뚜렷한 사회적 교육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장시간 학습 문화 속에서 학생들의 방학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각종 강제학습으로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방학과 휴식일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학습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데 놓쳐서는 안 될 과제이다.

이번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에서는 6월 초에 개시한 조사 시점상 방학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의 면접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방학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엔 30일 이상 여름방학을 하는 초등학생 면접자들도 “40일 이상 방학을 하면 좋겠다”라고 답했고, “여행을 하고 숙제도 하기 위해서 한번 할 때 두 달 정도” 방학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방학기간 중에도 학교에 나가서 보충자율학습을 해야 하고 실제 방학일수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 셈인 문제도 있었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방학이 너무 짧다고 느낀다는 답도 있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방학일수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2009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에 이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치 변화는 특히 토요일 학교 학습시간이 줄어든 것, 즉 주5일제의 전면 시행 덕분이 크다. 하지만 주5일제의 시행 결과 학생들의 방학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생활시간조사가 9월을 표본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는 9월 시점의 학습시간 평균을 보여주는 하나 연간 일정 등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즉 통계청 조사에서 학습시간이 줄어든 것처럼 나타난 것은, 아쉽게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대다수가 190일을 넘겨가며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교들 대다수는 1년간 대략 70~80일 정도 방학을 하고 있다.(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의 2013년 보고서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78일이다.) OECD 평균 수업일수가 180~185일 정도인 것을 참고한다면 한국은 하루 수업시간도 많으면서 동시에 수업일수도 긴 국가에 속하는 셈이다.

국가	방학일수
한국	78일
일본	84일
영국	91일
미국	102일
핀란드	105일
프랑스	120일

방학은 학생들이 정규 수업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으로, 교육적으로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방학의 긍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방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수나로는 방학이 최소한 1년간 3개월,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기 중간에 휴일들도 충분히 필요하겠으나 방학을 짧게 여러 개로 쪼개는 것보다는 충분히 긴 방학 기간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충분히 길고 변화의 여지가 있는 방학 기간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3) 보충자율학습, 사교육 등에서 강제학습을 금지해야 한다

앞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중 저녁시간을 넘겨 가면서 학습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은 정규수업보다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보충자율학습이나 사교육 참여를 강요받곤 한다. 면접조사에서도 무조건 참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세트로 묶는 방법, 보충수업 때 수업 진도를 나가는 방법, 강제학습은 특히나 학생들의 직접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곤 한다. 원론적으로 학교 등에서의 강제학습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동의서만 제출하게 할 뿐 여전히 실재론 학교나 교사에 의해서 보충자율학습이 강요되거나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을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보호자의 뜻에 따라 참여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2015학습시간부담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보충수업/방과후학교를 강요받는다든 중학생은 약 30%, 그리고 인문계고 학생 중에는 40~50%의 학생들이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인문계고 학생은 강제 여부가 학교시간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을 시행하지 않는 학생들의 평균 학교 시간은 오후 5시대, 자유롭게 참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평균은 오후 7시 무렵이었으나, (참여하는 학생과 불참하는 학생의 중간 정도가 나온 걸로 추정) 강요를 받는 경우는 저녁 9시 이후가 되었다. 그밖에도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강제학습이 ‘침식’ 하는 것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면접조사에서도 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제하여 방학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주된 불만이었다. 강제적 보충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학교에서의 강제적 보충자율학습이 사교육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학습시간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기묘한 낙관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 자체는 학교 보충자율학습의 강제성과 큰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학교에서의 평일 학습시간이 길어서 사교육을 많이 참여하기 힘든 인문계고 학생들의 경우엔 주말에 사교육 참여율이 80%에 이르는 등, 전체 학습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보충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 집단이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강제성의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2015학습시간부담조사〉 결과, 사교육 부분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집단 사이에서 학교에서의 강제학습과는 반대의 추세가 나타났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중 51.4%, 중학생 중 41.2%가 “보호자가 원하고 시켜서”를 사교육 참여 이유로 꼽은 반면 인문계고 학생은 19.5%만이 “보호자가 원하고 시켜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중에서는 절반, 인문계고 학생 5명 중 1명이 보호자의 뜻에 따라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사교육에 참여 중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습이든 사교육이든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일이 이처럼 일반적이다. 강제학습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원인이며, 질적으로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학교나 가정에서 행하는 각종 학습강요가 학생들을 위한 것

이라고 포장되고 정당화되는 풍조까지 존재한다.

사실 현재 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라는 것이 공식적 지침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친권자/보호자에 의한 강제학습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강제적 보충자율학습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지역들 역시 여러 변칙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가령 보충수업 중에 실질적으로 수업 진도를 나가서 보충수업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나, 불참시 진학이나 생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역시 일종의 강제로 봐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서의 강제학습을 단속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제학습을 금지·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친권자/보호자에 의해서 원치 않는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런 문제를 교육·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권력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제학습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4) 야간학습, 주말학습은 ‘비정상’ 이다

학습시간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인지에 따라 학습시간의 질, 그 외의 여가시간의 질, 그리고 학생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야간과 주말·휴일에까지 이루어지는 학습은,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최소한의 여가시간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공교육 및 사교육에서 지금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야간학습과 주말·휴일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에 따르면, 야간과 주말에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은 인문계고 학생이 가장 심하고 이를 반영하듯 수면시간 등도 가장 짧다. 인문계고 학생은 약 72%가 저녁 6시 이후에야 하교했다. 인문계고 학생 중 67.3%는 주말에도 보충자율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답해서 주5일제를 무색하게 했고, 인문계고 학생 전체 5명 중 1명(시행하는 경우 중엔 29.9%) 꼴로 주말 보충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은 말할 것도 없다. 면접조사에 응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은 기숙사에서 새벽 1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증언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역시 사교육으로 인해 야간·주말의 시간을 침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초등학생의 78.3%, 중학생의 약 98.3%가 저녁 6시 이후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학생과 인문계고 학생은 밤 10시 이후에 사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각각 41.0%, 82.4%에 이르렀다.

이처럼 야간·주말에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수면시간과 자유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과 인문계고 학생들은 10%p 가량 더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주 또는 가끔 받는다고 답했다. 야간학습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을 마치는 시간을 살펴봤을 때, 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등학생·중학생들은 사교육을 밤늦게까지 하는 경향이 보였다. 인문계고 학생들 중에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있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높았으며 강요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고 답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평균 하교시간도 8시 이후로 훨씬 늦다. 면접조사에서 밤 10시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난다고 한 고등학생은, 그 시간에 하교를 하면 쉬거나 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설령 심야에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를 주간의 자유시간과 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교육 끝나는 시간 평균			
스트레스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자주 있다	19:30	21:22	22:40
가끔 있다	19:18	21:07	22:32
별로 없다	18:58	20:54	22:28
전혀 없다	18:52	20:34	22:32

인문계 고등학생	
스트레스	평균 하교시간
자주 있다	20:27
가끔 있다	20:07
별로 없다	19:14
전혀 없다	18:50

학습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있다”고 답한 비율			
인문계고 학생 야간자율 학습	시행하지 않는다	응답자 내%	31.1%
	자유롭게 참여/불참	응답자 내%	41.6%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킴	응답자 내%	51.9%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	응답자 내%	60.2%
	부모(친권자,보호자)가 참여를 강요	응답자 내%	56.1%

주말이나 야간에까지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한국에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특히 더 심하다. 주 2일의 주말과 야간은 사회 평균적으로 합의된 휴식과 수면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지적 욕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과 주말에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사회 공통의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아수나로는 밤 8시 혹은 다른 기준을 정해 공교육사교육을 막론하고 야간학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교육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밤 12시부터 규제를 하는 곳도 많은데 다가 여기는 비율도 높은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 명쾌한 기준으로 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한다. 또한 주말 사교육과 주말 보충자율학습 등을 금지해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휴일, 그리고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과잉학습으로 몰아넣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2015학습시간부담조사> 결과에서 특이했던 점은 학생들 중에 실제 학습시간은 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특히 심해서 10시간,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자신이 학습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학습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도 비례관계를 이루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것은 자신의 학습시간이 현재 ‘적절하다’고 느끼는 쪽이었다.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시간이 적거나 공부를 덜 하는 학생들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도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좀 더 공부해야 한다고,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 다른 응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등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이들은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휴식 시에도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도 대단히 높았고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성적을 이유로 잔소리와 압박을 듣는 경험도 많았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 역시 ‘다른 학생들도 다들 그만큼 공부한다는 불안감’, ‘입시에 대한 압박감’ 등을 호소했다. 중학생도 입시 때문에 실 때도 불안하거나 제대로 실 수 없는 감정을 이야기했다.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해도 시험을 보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육에 관해 바꾸고 싶은 것을 꼽아달라고 하자 ‘수능’을 말하고 부모가 벌써부터 수능을 잘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할 정도로,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대학 입시로 인한 압박감이 팽배해있다. 또한 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성적으로 인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군말 없이 장시간 학습에 나서게 하는 배경이자 장시간 학습을 유도하는 원인은 거시적인 입시경쟁 제도와 미시적인 입시 문화, 성적으로 인한 차별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로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을 덜어내고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시 및 학교 서열 구조 등, 교육 환경과 구조 자체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수나로는 상대평가 폐지, 시험 횟수 감축,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는 현상을 청산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습시간’ 논의는 학생들의 삶과 주체성을 위한 것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문제는 입시경쟁 교육 속에서 하나의 ‘현상’ 일 뿐이라고 여겨지곤 했다. 그래서 장시간 학습, 야간학습 등은 학생들의 힘들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 스케치 정도로만 위치를 가지곤 했다. 분명 너무나 긴 학습시간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는, 학교-가정 속의 권력관계와 입시경쟁 교육 체제, 노동시장과 사회적 차별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학습시간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학생들의 삶을 규정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장시간 학습’은 하나의 문화이고 제도로 스스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시간 문제 외에도 교육의 문제는 많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나 입시제도의 공정성, 교과와 적절성, 교과서 난이도의 문제 등은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제도 속에서 1차적 당사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삶에 교육 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학생들의 학습시간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것이다.

학생들 삶 속의 학습시간 문제에서부터 교육 문제를 해석해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수포자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학생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며,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지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너무 긴 학습시간이라는 문제를 좀 더 강조하고 그 문제의식에서부터 해결책을 만들자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온 학생들의 삶의 문제에 정당한 대우를 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아수나로는 학습시간[학생의 삶] 문제를 중심에 두고 다른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풀어갈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입시제도나 교육과정의 개편이라는 과제 역시, 이러한 인식 틀로 접근하면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학습시간의 문제로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준다. <2015학습시간부담조사>와 우리의 주장을 계기로,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학생들을 ‘시간빈곤층’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길 기대해본다. 길어도 너무 긴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 모든 교육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첨부자료1: 학습시간줄이기프로젝트 시작글]**"내 시간을 돌려줘!" 우리에게 학습시간 셋다운이 필요하다!****〈학습시간 셋다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한국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생 60%는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며,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턱없이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학습시간'이 하루 시간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약 70시간, 하루 약 10시간 이상 공부를 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학습 부담은 커지고, 학생들의 쉼 시간, 놀 시간, 자유시간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유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일주일에도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너무 긴 '학습시간'에.

학생들의 하루는 너무나 이른 새벽 등교로 시작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다 들으면 오후가 다 지나고, 거기에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학원, 과외 등이 더해집니다. 공부 부담과 경쟁의 압박 때문에 놀 때도 '딴짓' 한다는 주변의 눈치에 마음껏 쉬지도 못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교육'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수업시수와 수업일수도 너무 많고, 강제로 시키는 각종 학습과 입시 공부는 학원과 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을 조여 옵니다.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입시공부에 시간을 바치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무의미하게 긴 시간을 빼앗깁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시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쉬고 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돌려주고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경쟁과 성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는 교육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시간을 돌려받는 것은 학생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학습시간 셋다운 프로젝트〉는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폭주하는 학습시간을 사회적으로 규제하자는 운동입니다.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듯이, 적절한 학습시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고 학생들의 시간을 보장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쉼 권리, 놀 권리, 행복추구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자는 운동입니다. 학교와 학원을 규제하고, 학습을 강요하는 이 사회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교육이 문제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학습시간을 줄입니다. 너무 긴 학습시간이 문제이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통해, 수업부담과 학습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강요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학습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변화를 요구할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학습시간 셋다운 프로젝트〉에 함께해요!

2014년 12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첨부자료2: 학습시간줄이기프로젝트 5대 요구안]

<내 시간을 돌려줘! -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 5가지 주장>

◎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

달보며 학교 갔다, 달보며 집에 오는 팍팍한 삶... 학교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시키려고 하고, 학생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붙잡아둡니다. 학생들은 부담스러운 학습량에 허덕이거나, 무의미하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데 말이죠. 아침/오후 시간을 돌려받고, 충분한 여가 시간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학습시간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습시간을 줄이는 첫 단추는 바로 공식적인 학교의 수업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9시 등교, 3시 이전 하교(수업 종료), 수업시수 및 교과목 축소 등을 요구합니다.

※ 중고등학교 수업을 하루 5~6교시 정도 하여 3시 무렵에 수업을 마치고, 이후에 복습이나 과제를 할 시간을 더하면 하루 학습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학습시간이 일주일 30~35시간 정도이고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국가의 청소년 학습시간이 하루 평균 5~6시간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방학일수 늘리고! 수업일수 줄이고!

3~4주짜리 여름방학, 새해에야 맞이하는 겨울방학... 지금 한국은 방학도 너무 짧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학교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학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가지며 쉬어 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현재 한국의 실 수업일수는 현재 OECD 평균보다 10일 이상 깁니다. 휴일과 방학을 더 늘립니다.

이를 위해, 총 방학일수를 1년에 최소 3개월 이상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에 정해진 수업일수 역시 현재의 '190일 이상' 이 아니라 180~185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 보충, 야자, 학원 등 강제학습 금지!

'하루 6시간 학습'을 이루려면 정규 수업 외에도 강요되는 여러 학습을 줄여야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학원, 과외,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시간은 부모나 교사가 아닌 학생 자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학습을 강요할 수 없고, 본인을 대신해서 동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학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이든, 학교이든,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본인 대신 보호자 동의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의사에 반해서 강제학습을 시키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 야간/주말/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

밤늦게까지 불 켜진 학교/학원가의 풍경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슬픈 교육 현실의 상징입니다. 장시간 학습이 불러오는 '야간학습', '주말/휴일학습'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모두가 쉬어야 할 야간, 주말, 휴일에는 학생들도 눈치 보지 않고 푹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간노동, 휴일노동을 규제하듯이, 학교와 학원에서의 야간학습과 주말/휴일학습을 규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밤 8시 이후와 주말/휴일의 학원 영업을 법률로 금지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야자' (학교 야간자율학습)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 과잉학습으로 밀어 넣는 경쟁 교육 개혁!

끊임없이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다며 경쟁을 부추기고 압박하는 교육. 공부 아닌 '판짓'을 하면 게으르다거나 적응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 이러한 입시경쟁교육, 학력·학벌 차별, 무한경쟁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수업을 줄이고 사교육을 규제해도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차별에 시달리며 자신의 시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등수 매기기와 상대평가를 없애고, 학습 부담을 주는 시험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입시경쟁제도와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하며,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과 사회를 바꿀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이트: studyoff.org

토론1

학생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돌려주자.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지금 광주는 자율학습 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며 뜨거운 논쟁 중이다. 아마 적절한 이슈 소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간 대수롭지 않게 대해왔던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자율학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간 쌓여온 한국교육 문제의 단면이고, 그 인권침해 정도의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과제로 여겨진다.

특히 학교 측에서 자율학습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생의 동의서 없이 강제로 시키는 건 다반사이고, 신청서를 나눠주고 강제로 참여하게끔 겁박하는 교사도 있으며, 부모님의 서명까지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이번 광주의 시민단체의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명절연휴에 등교해 학습하는 경우, 예체능 진로를 두고 있는데 내신 성적의 불이익을 준다며 겁박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숙사생은 취침하기 전까지 무조건 학습해야 하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의 강제학습을 통한 부당함을 겪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강제학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감독기관의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며 각급 학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매년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학교장들이 다수 있고, 이를 동조하는 일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으로 인해 자율학습이 버젓이 강제 학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의 지침은 허사로 돌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해명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듯 선택권의 보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강제학습을 사실상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의 사례, 학교의 현실을 토대로 본다면 교육당국이 자율학습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이 이렇게 자율학습을 방치하며 지속하고자 하는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강제학습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광주시교육청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 속셈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은 학습공간이 필요한 소수 학생들의 배려를 위해 혹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문제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학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담겨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9시 등교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자율학습 추진은 건강권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의 확장이나 자유의 신장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당국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와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유일한 기관인지는 의문이 든다. 교육활동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학습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율의 의미라고 여겨진다.

이제껏 각종 학습은 학생이 아닌 기성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학교 문화로 인식되어 왔으며, 결국 지금까지처럼 자율이란 미명 하에 자유를 통제해왔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1]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내용에 부처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일환으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2015년3월28일부터 4월 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74개교 558명들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물론 표집인원이 광주 전체학생 인원에 비해 많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총67개교 중 60개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조사에 대한 필요충족이 되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1년간, 2015년 1학기의 정규교과 수업 이외 학습을 강요받는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의 정규교과 수업 자체도 충분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밖에도 보충수업·방과후학교·자율학습·논술반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오후, 저녁, 휴일, 방학 시간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가 최근 들어 상당수 있었고,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지침 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협의회에서는 이런 강제학습에 대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세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오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강제학습 뿐만 아니라 아침/점심/참여방식 등의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리고 연초에 논란이 되었던 주말/휴일 중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학교에서 학습을 무조건적으로 강요’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조건을 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을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제까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친권자(학부모, 보호자)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습을 강제당하는 경우’ 도 역시 문제라고 보고 조사했다.

먼저, 최근1년 이내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결과를 살펴보자면,

- <오후 보충수업>의 경우 응답률 83.8%가 강제적이었다고 답변하였고, 이 답변 중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켜서 참여하는 경우’,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하며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한 달 동안 필수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동의 없이 보충수업을 진행했다고 하였고, 광주제일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보충수업 시 수업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제로 오후 보충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6교시, 7교시가 아니라 사실상 오후 5시~7시까지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시간 대부분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도 ‘오후 보충수업’ 과 마찬가지로 응답률 86.3%가 강제적이었다고 답변하였고, 이 답변 역시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켜서 참여하는 경우’,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서석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은 아프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도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빠지기 힘들다고 하였고, 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껴 참여했다는 상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대다수 학생들이 해가 뜬 무렵부터 해가 진 이후까지 강제로 학교에 갇혀서 공부만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 야간까지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까지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침 자율학습>의 경우,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이 41.8%에 달했으나, 참여하는 학생 중 68.4%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

였다. 이 답변 중,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킨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행스럽게도 ‘자유롭게 참여 불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송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스쿨버스가 6시30분~7시 사이에 오기 때문에 8시에 등교하게 된다면 이 또한 반강제적인 등교라고 꼬집었고, 상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는 의견을 남기는 등 일부학교에서 등교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극소수 학교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점심시간 중에도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없게 자율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에 이 문항을 실태조사에 포함시켰다. <점심 자율학습>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하는 학생들 중 58.3%의 학생들이 강제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풍암고등학교 외 3개교에서는 점심 시간에 영어듣기를 실시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나 불참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자율학습 등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주말 휴일 자율학습/보충수업>의 경우, 참여하는 학생 중 57%/56.6%가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변하였고,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57.9%/70.7%를 차지하며, 일부학교에서 주말마저 등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주말 내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해 동아리 활동이나 고3을 제외하고는 일체 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구체적인 학생들의 의견으로 송원여자고등학교 외 7개교에서는 심화반, 성적순 위주로 주말 학습이 진행된다고 하였고, 최근 시민단체에서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부분 논술반 명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 학교에서는 찬조금을 걷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의 편법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참고로 주5일제는 학생들의 등교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실태처럼 주말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사례는 주5일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최소한의 휴일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다음, 2015년 1학기 중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 참여한 학생 중, 86.6% 학생들이 강제하였다고 답변했고, 이 수치는 앞서 정리한 <2014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참여의사를 묻느냐는 질문에는, 부모 친권자 보호자와 학생 본의의 의사를 함께 묻고는 있으나 강제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30.9%)들이 가장 많았고, 의사를 묻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도 29.1%에 육박하여, 최근의 실태 또한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첨단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의 경우 수강증을 가져와야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참여를 제외시켜주었고, 고려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참여의사를 묻는 신청서에 ‘거부란’이 없다고 하였으며, 동신여자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동의서를 주면서 동의란에 체크하라고 종용했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이는 사실상 학생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학습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이며, 부모의 의사는 보조적인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뿐 만 아니라, 화장실 용무·식사·휴식시간의 제한, 교외행사 참여 차단, 지도단속을 피하기 위한 학생회유, 방학 중 등교 등 강제학습과 관련한 파행사례가 실태조사 의견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자세한 통계정보는 별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시간에 학생들을 일제히 등교시켜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학습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보충자율학습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실시하며, 방학이나 심야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의 이와 같은 오랜 관행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이처럼 강제학습 문제가 빈번하게 매년마다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실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한 실태 확인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지독감독기관이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강제학습이 실시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와 학생·학부모의 형식적 동의만을 거치는 경우가 빈번하여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강력한 지침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번 실태조사 상에서 확인된 피해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우선적으로 중단할 필요도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습권, 시간권 등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응답을 받아낼 것이다.

2015. 5. 6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2015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통계자료

■ 개요

- 조사 대상: 광주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58명
- 조사 기간: 2015. 3. 28 ~ 2015. 4. 12
- 조사 방식: 오프라인 설문지 배포, 온라인 <http://goo.gl/7P7AuK>
- 조사 주최: 광주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협의회

■ 통계요약

- 반쪽짜리 휴일, 사라진 휴일

: 현재 한국의 방학일수는 다른 OECD 주5일제 국가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 휴일조차도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방학 중 등교 학생들 중 56.6, 57%는 휴일 중에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광주지역 학생들 중 절반 이상에게 휴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관련 부처에서 휴일 중에 학교가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수의 휴일을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아침부터 강요되는 학습, 등교시간 앞당기는 원인

: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 중 68.4%가 아침 1교시 이전부터 정규 수업 시간 외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불필요하게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광주에서도 9시정책(8시 30분으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9시 등교는 단순히 등교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아침부터 강제학습을 시키는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 문제를 학교장 자율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적인 아침 자율학습 등을 단속함으로써 등교시간을 늦추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 학생 의사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보충학습

: 보충수업 참여 학생 중 83.8%가 학교, 교사, 친권자에 의해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 후의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수업이 사실상 매일 7, 8교시씩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충수업’ 이 아니라 또 다른 정규수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충수업은 아예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강요되거나, 묻더라도 친권자(학부모)의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강요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확실한 금지 의사를 밝히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의사를 우선하여 존중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 야간 강제학습에 쉴 틈 없는 학생들

: 고등학생들은 야간에도 강제학습을 겪는 비율이 매우 높다.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 중 86.3%는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과연 하루 6시간이나 잘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하루 일과다. 야간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야간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참고자료2]

‘(가칭)광주지역 강제학습 금지 대책위원회’ 활동경과

○ 방학 중 강제학습 실태조사 실시

- 운영시기 : 2015년 2월
- 조사대상 : 동구관내 고등학교 (5개교 중 3개교 지침 위반)
- 기자회견 진행

○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 고발

- 적발시기 : 2015년 3월
- 적발학교 : 6개 고교 (수완고의 경우, 별도의 감사요청에 의해 행정처분)

○ 학기 중 조기등교 강제학습 고발

- 적발시기 : 2015년 3월
- 적발학교 : 6개 고교 (고교의 경우,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태반)

○ 강제학습 신고센터 운영

- 운영시기 : 2015년 3월~
- 조사방식 : 홈페이지, 팝업창, 전화

○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5년 3~4월
- 조사결과 : 60여개 학교의 520여명 학생 참여, 86.3% 야간강제학습 실시

○ 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

- 제안시기 : 2015년 4월

- 제안대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민주인권교육센터 소관)
- 위원회 회의소집을 무기한 연기

○ 학기 중 주말 강제학습 고발

- 적발시기 : 2015년 4월
- 적발학교 : 3개 고교 (논술반을 병자하여 강제학습 실시)

○ 강제학습 근절 거리 캠페인 실시

- 운영시기 : 2015년 5월 (레드페스타)
- 프로그램 : 거리 퍼레이드, 서명운동, 교육감 투서 작성

○ 민·관합동 공동조사 제안

- 제안시기 : 2015년 6월
- 제안내용 : 점검단 구성,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공유
-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제안 거절

○ 그밖에 상시적인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온라인 서명운동, 강제학습 대책마련 시위

○ 관계기관과의 회의

- 1차 간담회 (정책기획관 및 담당부서 실무자) : 2015년 2월
- 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으로 강제학습 문제 대책마련 촉구
- 2차 간담회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및 업무담당자) : 2015년 3월
- 각각 민·관에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 후, 향후 회의를 갖기로 약속
- 3차 간담회 (교육국장, 담당부서 과장) : 2015년 5월
- 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으로 강제학습 문제 대책마련 재차 촉구
- 4차 간담회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 2015년 8월
- 광주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 후, 시민단체와 협의하기로 약속

토론2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습 시간에 주목하는 것의 의미

- 지금까지 주요 교육 의제가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다분히 성인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고 학습자의 실제적 삶에 크게 주목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시간(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확대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경향이 나타남. 학생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정책 성과로 포장되어 나타남.
- 한편으로 학교의 교육 시간의 확대가 총량적 학습 시간을 확대하는 결과를 유발함. 즉, 평일의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학원 갈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말에 학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대됨. 그리하여 월화수목금금의 사이클이 형성됨.
- 고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의 시간을 공교육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차원의 표피적 처방이 아니라 사교육과 공교육의 시간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함.
-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삶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통의 지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시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이 신선한 접근임.

○ 무엇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 과도한 학습 시간의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면 결국 입시 경쟁과 불평등한 임금 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나올 것임. 조금 가까운 원인으로는 교육과정의 과다량과 고난이도 및 상대평가 체제 등의 문제가 있음.
- 사회 경쟁 구조를 단시간에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음. 현재의 운동 목표는 입시경쟁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경쟁의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으로 논리 구조가 되어야 함. 예컨대 선거라는 상황도 무한경쟁이지만 기간과 비용에 제한을 두듯이 입시경쟁에도 어떤 일정한 한도와 원칙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논의하여야 함.
- 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노력 또한 여러 교육운동단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각론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정임. 적정 학습 시간의 관점에서 적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운동이 필요함.

○ 수업 시간 감축의 과제

- 학교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과도한 학습 시간을 초래하는 학습량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야 함. 사교육 수요의 상당 부

분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선행교육규제법이 작동하지만 원천적으로 수능과 교육과정 자체가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 2시간 가르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1시간에 가르치라고 함으로써 1시간의 사적 보충학습이 필요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취기준에 대해 대다수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기 위해 몇 시간이 필요하며, 적정 학습시간에 맞추어서 교과 내용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필요함.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이익집단의 역학이 작용하므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힘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 될 필요가 있음.
- 운동의 목표는 '완전학습' 이 되어야 함. 90%의 학생이 90%의 성취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정상적 목표가 되어야 함. 현재는 넓게 잡아도 10% 정도의 학생만이 90%의 성취수준에 도달하는 구조임. 만약 성취수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면 일반적인 학생이 정상적으로 노력했다면 100% 이해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정상적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학생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교사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단지 교육과정이 비현실적인 목표 수준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학교 시스템이 못하는 학생을 돕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
- 수업 시수를 줄인다고 할 때 단지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보완 체제가 함께 가동하여야 함. 그리하여 방과후학교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정규 수업에서 보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교육비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요컨대 수업시수 감축의 과제는 전체 교육과정 및 학교 시스템의 개혁과 궤를 같이 하는 종합적인 그림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보충/자율학습의 강제성 문제

-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개혁해야 하고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정책적으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함. 이로 인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제화하는 경향이 발생함.
- 방과후학교에 진도를 나가는 것은 불법이므로 제대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에서 무작위 설문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
- 근본적으로 방과후학교는 교과 외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교과 수업은 정규 수업 보충을 위한 학교의 의무로 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현재 방과후학교 수업이 과도하여 교사의 과외 수입으로 적지 않아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 토요일 방과후학교에 교과 수업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 과제: 학원의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에 대한 제한

- 우선 한계 상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고들 필요가 있음. 이는 마지노선을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원심야영업에 대한 규제는 시도 조례를 통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음. (고등학교의 경우 22:00까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 23:00시까지: 부산, 인천, 전북, 24:00까지: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전남(23:50))




- 심야영업 규제를 시도조례 수준이 아닌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휴일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음. 1990년대 학원의 자율 규제가 존재하다가 무너짐.¹⁾
- 학원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음. 다만 법제화를 둘러싼 학원업계의 현실적 장벽이 존재함.

○ 학원 일요 수강 실태²⁾




- 설문조사(2014) 결과³⁾ ‘거의 매주 다닌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 고등학생은 29%를 차지했고 ‘가끔 다닌다’ 는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4%, 고등학생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학생 응답

◆ 일요일 학원 수강 현황			
거의 매주 다닌다	83	13%	
가끔 다닌다	202	33%	
한 번도 다니지 않는다	322	52%	
No Answer	9	1%	

② 학교급별 학생 응답

◆ 일요일 학원 수강 현황			
학교급	유효응답수	수강 현황	
초등학교	57		
중학교	325		
고등학교	224		

 거의 매주 다닌다
 가끔 다닌다
 한 번도 다니지 않는다

○ 서울 중고등학생 학원 수강 실태 조사⁴⁾

- “일요일에도 교과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매주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10.7%, 일반고 학생은 34.2%, 특목/자사고 학생은 51.9%로 나왔다. 필요한 경우 다니는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7.3%, 일반고학생은 61%, 특목/자사고 학생은 71.3%에 달한다.

1) 쉽이 있는 교육(2015),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2) 이하 내용은 쉽이 있는 교육(2015),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국회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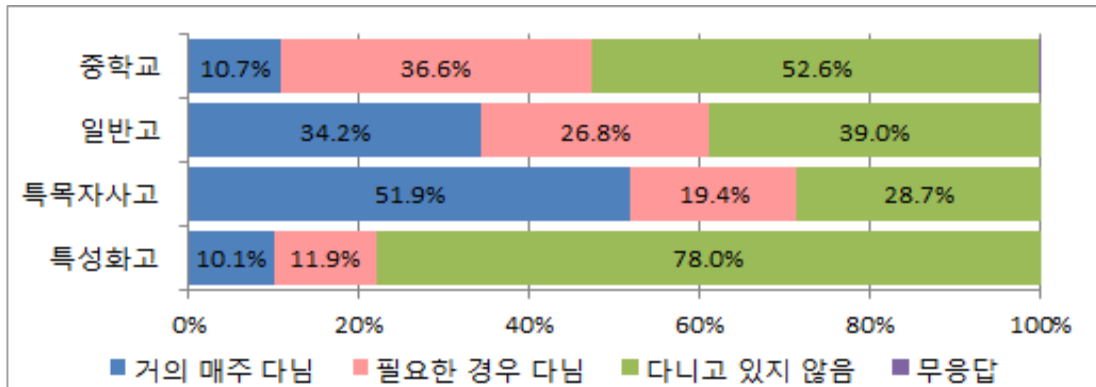
3) 좋은교사운동(2014)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645명 및 학부모 442명. 설문방법: research.joongang.com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4) 서울시 중고등학생 2774명(중학생 1,353명, 일반고 1,019명, 특목/자사고 162명, 특성화고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2014.12). 서울시의원의 협조를 통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샘플하여 조사함.

〈학교급별 일요일 학원수강 현황〉

		일요학원수강여부				전체	
		거의 다님	매주	필요한 경우 다님	다니고 있지 않음		무응답
학교	중학교	빈도	96	327	470	1	894
	학교 중 %	10.7%	36.6%	52.6%	.1%	100.0%	
	일반고	빈도	230	180	262	0	672
	학교 중 %	34.2%	26.8%	39.0%	.0%	100.0%	
특목 자사고	빈도	56	21	31	0	108	
	학교 중 %	51.9%	19.4%	28.7%	.0%	100.0%	
특성화고	빈도	16	19	124	0	159	
	학교 중 %	10.1%	11.9%	78.0%	.0%	100.0%	

〈학교급별 일요일 학원수강 현황〉



- 학원 수강 시간 실태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과 일반고의 경우 각각 평균값이 3.35시간과 3.8시간이고, 특목/자사고의 경우 4.61시간에 달한다.

〈학교급별 학원 일요 수강 실태〉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평균(①), 중간값(②) 최빈값(③), 표준편차(④)	전체
		학교	중학교	62 14%	284 66%	84 19%	1 0.3%	2 0.5%
일반고	20 5%		323 74%	74 17%	16 4%	5 1.1%	①: 3.8 ②: 3 ③: 2 ④: 2.67	438 100%
특목/ 자사고	0 0%		103 63%	51 31%	11 7%	0 0%	①: 4.61 ②: 4 ③: 3 ④: 2.5	165 100%
특성화고	2 14%		8 57%	2 14%	1 7%	1 7%	①: 4.25 ②: 2.5 ③: 2 ④: 4.28	14 100%

○ 서울 지역 학원 일요 영업 실태 조사

- 서울 시내 학원 중 구별로 임의 추출⁵⁾을 하여 전체 50개 학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1 수학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50개 대상 학원 중에서 15개 학원이 일요일 영업을 한다고 하였다. 비율로는 30%이다. 학생이 수강을 희망하면 일요일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구별 학원 일요일 영업 실태〉

순번	구	일요일 영업	
		0	x
1	강남구	x	x
2	강동구	x	x
3	강북구	0	x
4	강서구	0	0
5	관악구	0	x
6	광진구	x	0
7	구로구	x	x
8	금천구	x	x
9	노원구	0	x
10	도봉구	x	0
11	동대문구	x	x
12	동작구	0	x
13	마포구	0	x
14	서대문구	x	0
15	서초구	0	x
16	성동구	x	x
17	성북구	0	x
18	송파구	x	x
19	양천구	x	x
20	영등포구	x	x
21	용산구	0	x
22	은평구	x	0
23	종로구	x	x
24	중구	x	x
25	중랑구	x	0

○ 대치동 학원 일요 영업 실태 조사⁶⁾

- 2015년 7월 13일 전화조사를 통하여 대치동의 수학 학원을 중심으로 일요일 영업 여부를 조사하였다. 50개 소 중 18곳, 36%가 일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서울시 구별 학원 일요 영업 실태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5) 전국학원정보 앱을 통하여 각 구별 학원 중에 첫째와 둘째 학원을 추출하여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7월에 2차례에 걸쳐 전화 조사.
 6) 전국학원정보 앱을 통해 대치동의 수학 학원 427개소 중 가나다 순으로 50개 추출하여 조사함.

○ 학원장 사례

- 아래는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들면서 토요일에 강의를 얹기로 했어요. 단과에서도. 그리고 나니까 **일요일은 온전히 쉬어라. 왜냐하면 강사들을 너무 혹사시키니까. 강사들의 처우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학원연합회에선가 지정을 한 거예요.**

일요일에는 쉬어라. 웬만하면 특강 없다. 하려면 토요일에 해라. 토요일은 정규강의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규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은 쉬려면 쉬고, 강사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면 그때 하고 일요일날은 온전히 쉬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처음엔 지켰죠. 그런데 경쟁이란 게 그래요? 하다보면 야금야금, 다음이 시험이니까 시험대비 보충한다고 해서 자꾸만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학원이 완전히 자유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옆에 강사와만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동네학원까지도 경쟁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학원에서는 왜 안 하느냐는 식이죠.

예전에는 원장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강사 스스로가 원해서 (주말수업을) 했는데, 이제 학원이 막 생기면서 학원 간의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저쪽 학원에는 보충수업을 하는데 너는 왜 안하냐? 강사가 원치 않아도 이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달라진 거죠. 그러다보니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경쟁도 아니고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이 정규 프로그램을 '주말반'이라고 해서 깔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학원 내부에서 시작된 일요일 강의의 전말이 아닌가 싶어요.

- 90년대에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학원일요일휴무를 실시하였다는 증언은 흥미롭다. 학생에 대한 고려보다 학원 강사들의 근로 조건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수의 학원들이 이를 위반하면서 그것이 점차 경쟁적 상황 속에서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학원휴일휴무제가 학생들뿐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근로 조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원들의 자율적 결의만으로는 경쟁적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화된 제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국민적 여론

- 유럽은 대체로 일요일에 거의 모든 업종이 휴무를 하고 있다. 유럽에도 일요일휴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그 사회는 대체로 일요일에 상업 시설까지도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일요일에 어떤 업종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다수의 인식에 달린 문제다.
- 그런 차원에서 학원을 일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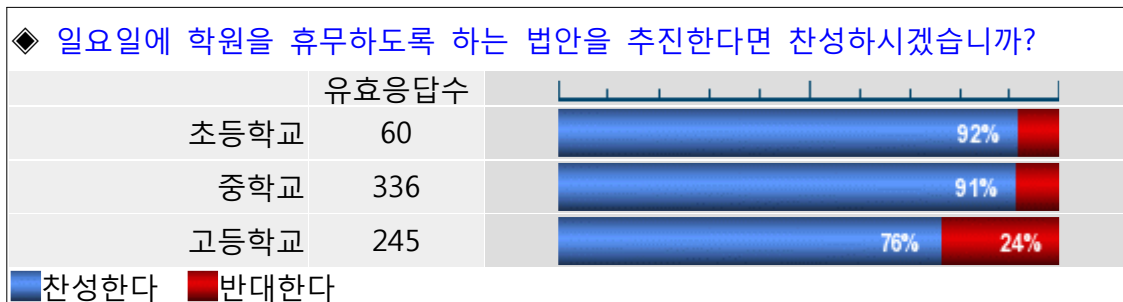
7) 앞의 조사, 좋은교사운동(2014)

▶ 일요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①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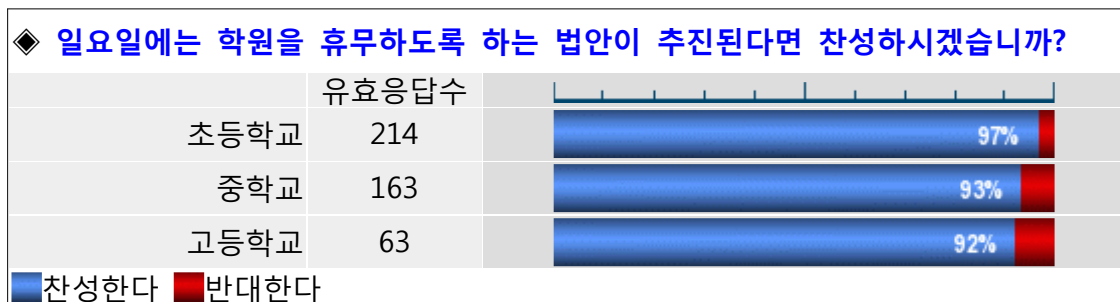
② 학교급별 학생 응답 차이



③ 학부모



④ 학교급별 학부모응답



- 일요일 학원 휴무 법안에 대한 찬성여론은 학생 85%, 학부모 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다. 학교급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찬반 여부를 분석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약 91%의 찬성이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응답을 분석한 결과, 찬성 응답이 92%, 93%, 97%로 학교급 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혼자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불안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찬성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합리성으로 인해 전체의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합의를 학원일요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쉽이 있는 교육 기자회견 성명서]**정부와 국회는 학부모 95%가 찬성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어제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학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강남의 모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12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원은 새벽 1시 20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였지만 그것은 학원에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성인들도 휴일에는 일을 쉬지만 학생들의 공부는 쉬를 모릅니다. 쉽이 없는 공부의 학생들의 건강, 정서, 관계, 창의성을 해치고, 정작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드는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 불꽃놀이를 구경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잔디로 된 언덕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을 넘어가서 전망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그 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요원이 제지를 하다가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너나할 것 없이 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뒤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학원영업시간도 이와 유사합니다. 심야나 일요일은 암묵적인 마지노선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체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고 경쟁의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요일영업자체를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힘들게 노력하지만 특별히 더 유리하지도 않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이 있는 교육’ 이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와 쉬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한경쟁을 유한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마치 선거도 무한 경쟁적 상황이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과열을 방지하는 것처럼 현재의 입시경쟁도 무한 경쟁적 상황이지만 경쟁의 한도를 정하여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심야와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과도한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입시경쟁의 압력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어떤 해결책이 나와도 경쟁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쟁 자체를 전제한 상태에서 경쟁의 룰을 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회적 합의의 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공동주최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자료집 최종 편집을 앞둔 지난 금요일 김상민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 지도부’ 의 반대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까지도 토론

회 측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배경은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김상민 의원실에 학원총연합회 쪽에서 토론회와 관련하여 반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하고, 김상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회를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토론회가 취소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들은 학원총연합회를 통하여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반대 압력이 전달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학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학원 심야영업마저도 무력화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영업제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는 가 하면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토론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는 거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학원총연합회는 토론회에 의견을 내는 것을 거부함)

현재 국회 토론회는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학원 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학원총연합회의 압력은 성공을 거둔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학부모 95%의 찬성률에서 보듯이 확고합니다. 곧 이 목소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하여 메아리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고통에 응답하여 쉽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 오늘 하기로 했던 토론회는 조만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파일로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고등학생의 10명 중 3명은 매주 일요일에도 학원 다님: 서울의 경우 중학생 10.7%, 일반고 학생 34.2%, 특목고/자사고 학생 51.9%, 특성화고 10.1%로 나타남.
- 서울 지역 학원의 30%, 대치동 지역의 36%는 일요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 95%, 학생 85% 찬성.
- 1990년대 학원 자율적으로 일요 휴무를 했던 역사가 있음.
- 학원휴일휴무제를 규정하는 학원법 12조 2항 신설을 제안함.

2015년 7월 29일

쉽이 있는 교육



아이건강국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쉽이 있는 교육은 무한입시경쟁으로 인해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된살을 사는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쉽고 학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3

학습 부담의 근본적 감축은 교육과정 개편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216명을 대상으로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과도한 학교 수업 시간과 보충수업, 강제나 거의 마찬가지인 자율학습, 주말 학습, 휴일·심야 학습, 과도한 사교육 시간, 부족한 수면시간, 과도한 수업일수로 인한 짧은 방학, 이른 등교와 늦은 하교, 수업 내용 고난이도로 인한 많은 학생들이 학업 포기, 과도한 학업과 경쟁 스트레스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하는 고통을 주는 교육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과도한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삶에 주목하여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의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우선 사교육 쪽에서 학습시간 줄이기 방법으로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한도 시간에 상관없이 거의 90% 정도가 21시 이전에 학원 교습이 종료되는 것으로 봐서 이 조례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학습시간 제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말 학습 규제를 들 수 있다. 주말 강제 학습 금지 운동은 지속적으로 벌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나 학생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말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학교에서 행하는 어떠한 학습도 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주중 강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강요, 일요일 학습이나 자율학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는 운동은 당연히 펴야 한다.

혹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의 하나로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어떤 시간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학교 문 닫기 운동 등은 성공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교육과정의 문제와 대학입시제도, 대학서열화 제도, 노동시장 구조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없는 어떠한 운동도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원인과 대안을 교육과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근본 해결방안으로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 교육과정의 문제

1.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내용 감축없이 압축함에 따라 교과 내용 갈수록 어려워져

주5일제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된 2007개정교육과정 시에 각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약 30% 정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 요소가 30%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존 4가지 소단원을 3개의 소단원으로 압축하여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줄이는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2011교과교육과정 개정시에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약 30% 정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4, 6, 8 단위 과목을 일률적으로 5단위로 맞추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기존 내용 요소는 별로 줄이지 않고 5단위로 압축하였기 때문에 실제 줄어든 것은 아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고1까지 공통교육과정이었었는데, 2011교과교육과정 개정시에는 고교 교육과정 전체를 선택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기존 고1 교육과정 중에 일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을 하고, 일부는 기존 고2~3 선택교육과정 과목으로 통합을 하였다. 그리하여 중학교 교과 내용은 고교의 내용이 통합되는 바람에 훨씬 어려워지게 되었다. 초등학교도 그 연쇄 반응으로 내용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초등학교 교과 수업시수가 늘고 내용이 더 어려워지게 되어 초등학생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안에서도 20% 감축한다고 말만 앞세우고 있지 내용요소를 압축하여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이 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OECD 최장의 수업 일수와 최장의 주중 수업시수와 더불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많아진 내용 학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 영·수·국 편중교육으로 인한 학습부담

내신에서 영·수·국 비중이 높다면 사회,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까지 고르게 이수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수능에서 영·수·국 비중을 그만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학교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사교육 등의 가장 큰 원인도 영·수·국 비중의 과다에 있다. 따라서 근본 해결 방안도 영·수·국 비중을 줄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과정은 거꾸로 진행되어 왔다.

고교 필수이수단위의 축소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라고 하지만, 그동안 영·수·국 편중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어 왔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 116단위와는 달리 특목고와 자사고, 자공고, 각종 자율학교에서는 필수이수단위 72단위, 학교자율과정 108단위를 활용하여 영·수·국 편중교육을 조장해왔다.

대학입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능에서 영·수·국 교과의 비중이 75%(가중치까지 고려하면 80~90%)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영·수·국 편중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고등학교의 불편한 진실이다.

〈 고등학교 교과별 이수단위 평균(2013학년도 1학년 대상 3개 년간), 17개 교육청 통합 〉

학교 유형	과정명	기초영역 45(30)				사회탐구영역 15(10)				과학탐구영역 15(10)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지리	역사	도덕	계	
일반고	인문	31.5	25.1	29.8	86.4	22.8	9.3	6.5	38.7	15.9
	자연	27.6	33.7	29.6	90.9	8.6	5.5	2.6	16.8	35.0
	예술,체육	22.7	16.1	23.9	62.7	12.8	8.1	4.9	25.8	12.9
일반고 (자율학교)	인문	32.1	26.2	31.3	89.6	24.0	10.0	6.9	41.0	13.7
	자연	28.2	35.4	30.8	94.4	7.3	5.8	2.1	15.2	36.8
	예술,체육	26.6	16.9	26.1	69.5	14.4	6.5	6.6	27.4	10.4
자율형 공립고	인문	33.8	28.2	33.1	95.1	23.0	10.3	6.7	39.9	12.2
	자연	29.2	37.5	32.1	98.8	5.6	5.8	1.8	13.2	36.6
	예술,체육	27.3	19.8	26.8	73.8	18.3	7.2	5.3	30.8	12.1
자율형 사립고	인문	34.4	32.7	33.9	101.0	19.8	11.3	5.6	36.7	10.3
	자연	30.5	41.4	33.2	105.1	5.3	5.0	1.3	11.5	36.4
	예술,체육	0.0	0.0	0.0	0.0	0.0	0.0	0.0	0.0	0.0
특수목적고	과학	18.3	13.0	19.3	50.6	4.6	5.6	0.4	10.7	14.8
	외국어	20.7	20.3	10.1	51.1	9.9	5.2	2.6	17.7	10.1
	국제	18.1	23.5	10.3	51.9	4.1	5.9	3.3	13.3	11.4
	예술	19.0	11.0	19.7	49.8	11.2	5.2	3.0	19.4	10.0
	체육	13.0	11.5	12.6	37.1	6.6	4.7	1.9	13.2	10.0
	마이스터	11.2	13.0	15.2	39.4	4.1	4.0	1.8	9.9	8.4

2009개정교육과정은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함께 전국의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일반고가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면 ‘일반고 강화론’이란 미명으로 일반고까지 영·수·국 중심의 입시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개악안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12월, 영·수·국 이수단위가 교과 총 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사고의 경우 권장한다고 하여 예외조치를 남겨 두었다.

2015개정교육과정안에서도 고등학교 기초영역교과(영·수·국·한국사) 이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자사고 등 교육과정 자율학교는 단지 실효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수·국은 수능에서 실제적으로 80~90% 비중을 차지하고 고교 수업에서 50%(자사고 등 특목고는 그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중학교에서도 40% 이상을 차지(기준에는 교과 총 이수시간의 37.8% 차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별로 교과별 20% 증감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영·수·국 시수를 늘림, 최대 45.3%까지 증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영·수·국 보충학습과 사교육이 성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영어 교과가 도입되고,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영어 수업 시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초등 영어 보충학습과 사교육이 늘어나고 이는 연쇄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수업을 유발하게 되었다.

3. 2015개정교육과정안에서 소프트웨어, 교과서 한자 병기, 안전 교과 신설로 학습 부담 더 심화될 것

2015개정 교육과정안에서는 초등5~6학년 실과 교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중학교 정보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초등 1~2학년 안전교과 신설과 그에 따라 연간 1시간씩 수업시수 증가, 한자교육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초·중등 교과서 한자 병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 통과된다면 학습 부담은 더 심화될 것이고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초등학생들은 3학년부터 영어 교과를 배우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정보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와 같이 학습부담을 더 지우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4. 서열 중심의 평가 체제

대학입시까지 이어지는 획일적 지식 암기식 평가와 상대평가 제도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사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창의력 개발을 저해한다. 상대평가 제도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사교육을 확대시키며 다수 학생들을 도태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린다.

입시에 종속된 획일적 상대평가 제도로 인해 주지 교과에 치중되어 균형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체협과 이해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대평가 제도하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사교육에 내몰릴 수 밖에 없으며, 열등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또한 변별력 때문에 더 많은 학습노동과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되고, 우월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1980년 이후 고교 평가제도 변화

	1981-1995	1996-2004	2005-현재																																																												
시기	7.30 교육개혁 (대입 내신제도 도입)	5.31 교육개혁 (창의적 인간 육성)	2008년 이후 대입개선안 (’04.11)																																																												
개 선 내용	상대평가체제(계열석차 → 전과목 총점기준.15등급 → 10등급)	서열화, 성적위주교육 탈피, 절대평가 요소 도입	상대평가 석차등급 9등급 평가제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등급 총리</th> <th>...</th> <th>총 점</th> <th>평 균</th> <th>학 업 석차</th> <th>계 열 석차</th> </tr> </thead> <tbody> <tr> <td>단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취도</td> <td>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준점</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환산점</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등급 총리	...	총 점	평 균	학 업 석차	계 열 석차	단위	1						성취도	수						기준점	5						환산점	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단위수</th> <th>성취도</th> <th>석차/재적수</th> </tr> </thead> <tbody> <tr> <td>A</td> <td>3</td> <td>수</td> <td>4(15)/532</td> </tr> <tr> <td>B</td> <td>2</td> <td>우</td> <td>50(·)/532</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A	3	수	4(15)/532	B	2	우	50(·)/532	: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 수</th> <th>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th> <th>석차등급 (이수자수)</th> </tr> </thead> <tbody> <tr> <td>4</td> <td>95/74.5 (18.6)</td> <td>2(539)</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4	95/74.5 (18.6)	2(539)	:		
	등급 총리	...	총 점	평 균	학 업 석차	계 열 석차																																																									
단위	1																																																														
성취도	수																																																														
기준점	5																																																														
환산점	5																																																														
과목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A	3	수	4(15)/532																																																												
B	2	우	50(·)/532																																																												
: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4	95/74.5 (18.6)	2(539)																																																													
:																																																															

5. OECD 국가 중 최장의 수업 일수와 최저 방학 일수

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2012.9.11, 교과부 보도자료) 초·중·고 수업일수를 보면, OECD 평균은 각각 187, 185, 183일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보통 195~197일 정도로 최장의 수업일수로 고통받고 있다. 그에 따라 방학 일수는 최고로 짧은 상황이다.

국가	방학일수
한국	78일
일본	84일
영국	91일
미국	102일
핀란드	105일
프랑스	120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수업일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13)

발제문에서 인용

6. 매일 과도한 학습 노동 - 초등 1학년부터 5교시 수업에 시달려!

그 이전 교육과정 시수는 제쳐두고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주5일 수업제에 맞게 연간 총수업시수를 제대로 줄이지 않아 오히려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이 추가되는 바람에 (1~3학년 각 학년당 1, 1, 2시간) 타 교과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 수업시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다.

토요일 모두 수업이 있었던 6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평일 수업시간이 모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수업시수와 비교해도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6차 교육과정 시의 평일 수업시수보다 더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학습 시간을 줄이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핑계로 학습 시간을 제대로 감축하지 않았다.

더구나 주5일 수업제로 변경함에 따라 그나마 중학교는 1시간, 고등학교는 2시간을 줄였는데, 초등 1~2학년은 그대로, 3~6학년은 오히려 시간씩 주당 시수를 늘려 놓았는데, 이는 초등 3~6학년에서 과목간 교과시수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영어 교과를 더 늘렸기 때문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초등 1~2학년에서 각각 1시간씩 더 늘려서 안전생활 교과를 신설하는 등 오히려 더 후퇴 하고 있다.

학년	6차교육과정 (92.9 ~ 2000.2)		2009개정교육과정 (2012 주5일제 전면시행시 원 교육과정)		2012 실제 운영-주중 수업부담 1시간 줄이기위해, 1주일 정도 수업을 늘리고 방학일수를 1주일 정도 줄임		2015개정교육과정(안) -원 교육과정	
	주당 시수	요일별 수업시간 (월,화,수,목,금, 토)	주당 시수	요일별 수업시간 (월,화,수,목, 금)	운영 시수	기타(스포츠클럽시간 반영) 현재 실행 수업 시간	주당 시수	요일별 수업시간 (월,화,수,목, 금)
초1	24	4,4,4,4,4,4	24	5,5,5,5,4	23	5,5,5,4,4	25	5,5,5,5,5
초2	25	5,4,4,4,4,4	25	5,5,5,5,5	24	5,5,5,5,4	26	6,5,5,5,5
초3~4	28	5,5,5,5,4,4	29	6,6,6,6,5	28	6,6,6,5,5	29	6,6,6,6,5
초5~6	31	6,6,5,5,5,4	32	7,7,6,6,6	31	7,6,6,6,6	32	7,7,6,6,6
중1~2	34	6,6,6,6,6,4	33	7,7,7,6,6	33	7,7,7,6,6	33	7,7,7,6,6
중3	“	“	“	“	34	7,7,7,7,6		
고1~3	36	7,7,6,6,6,4	34	7,7,7,7,6	34	7,7,7,7,6 (거의 그대로)	34	7,7,7,7,6

II. 대안

1. 수업 분량과 난이도 적정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교육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 수준, 평가활동 시간, 한 시간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분량을 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난이도 조정은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이면서 기존 교육내용의 분량을 고수한다면 더 짧아진 수업 시간동안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며, 학습 결손은 더 늘어나게 되어 사교육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주5일 수업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조정은 필연적으로 분량과 난이도의 적정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설령 임시부담이 완화되더라도 공교육에서 교육 내용이 과다하고 난이도가 학생들 발달 단계에 비해 높을 경우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일지라도 학습 포기자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충학습과 사교육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2. 내신과 수능에서 영·수·국 비중 대폭 축소, 각 교과별 고루 반영

중학교에서 영·수·국 비중을 늘릴 수 없도록 학교별 교과별 20% 증감권한을 폐지하고, 고교에서는 영·수·국 비중을 순차적으로 40% 이내로 줄이고 사회,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까지 고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각 교과별 필수이수단위수를 늘려야 한다.

또한 수능에서도 영·수·국 비중을 40% 이내로 줄이고 사회,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까지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

3. 초등 영어, 한자 학습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교과서 한자 병기·안전교과 신설 2015개정교육과정 안 폐기

학생들의 학습부담 심화와 사교육을 더욱 더 늘리게 되는 2015개정 교육과정안의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중학교 정보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초등 1~2학년 안전교과 신설과 그에 따라 연간 1시간씩 수업시수 증가, 초·중등 교과서 한자 병기 추진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 영어 교과 수업 문제는 평가를 한 후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한자, 정보 교육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4. 절대평가 체제로 평가 체제 전면 혁신⁸⁾

국가별 고교 평가제도 사례를 비교해보자.

[국가별 고교 평가제도 사례 비교]

국가	성적표 기재 방식	특이사항
미국	기재내용: 점수, 교과수준, 이수학점단위 점수산출: 절대평가	심화, 고급과정에 대한 추가점수 부여
핀란드	기재내용: 이수과정 수, 점수 또는 서술, 이수여부 점수산출: 절대평가	성적 평균 기재 안함 이수한 과정 수 기록
싱가폴	기재내용: 시험성적, 노력, 과제, 행동, 주의력, 교사의견 점수산출: 절대평가	평균, 석차 산출 안함 음, 미, 체, 도덕 필기시험 없음
프랑스	기재내용: 양적평가 - 성적, 최고점, 최저점, 평균 질적평가 - 교사의 분석적 평가(의견) 점수산출: 절대평가	평가는 진로결정과 연계되어 있음
영국	기재내용: 교과별 성취수준 + 학생 수행의 강약점 점수산출: 절대평가	국가수준검사와 교사 평가를 종합하여 사용

위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생들의 상대적 서열이나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절대평가에 의해 수준을 제시한다. 학력경쟁의 전통이 강한 동양권 국가에서는 교사별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편이라면,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중시해 온 구미국가들에서는 평상시 수업활동을 꾸준히 평가, 기록하는 교사별 평가가 주를 이루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생의 평가기록도 목표지향의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한다.

둘째, 학생성취결과 절충형 절대평가 기록 방식을 도입한다.

8) 20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혁신 정책자료집」내용 중 일부 발췌.

논술형·서술형, 수행평가를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취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절충형 절대평가 원칙을 마련한다.(내신 산출을 위한 획일적 평가체제(중간·기말고사) 대신, 과정과 활동 중심 수행평가 확대)

셋째, 교사별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교사의 과목별 교육과정 재구성(교육과정의 대강화 전제)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평가권(평가 횟수, 방법 등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학교 혁신과 교사별 평가를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 국가의 학생 평가는 전적으로 개별 교사가 교육적 맥락에서 시행하고 활용한다. 학생평가는 우리나라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제식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수시로 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물을 부과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전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결정되며,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편이다. 또한 객관식 시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논술형이나 구술형 시험이며 성적 기록 방식도 대체로 교사들의 전문적인 자율성에 맡겨져 있으며, 상대적 석차 대신 절대평가 중심으로 교사의 소견을 곁들여 기록한다.

5. 주5일제에 맞는 수업일수와 주당 시수의 적정화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는 목적인 주당 학습노동시간의 감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요일 수업일을 주중으로 옮기거나 방학일수를 줄여서는 안되며, 토요일 시간수 해당분을 전면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6일제 총수업일수 220일(204일 실수업 <34주×6일>, 16일 행사 <2주×6일+4일>)의 자연 감소분(36주×토요일 하루)을 계산하면, 총수업일수는 220일에서 36일 감축하여 184일이 되어야 하고(OECD 평균 183~187일), 실수업일수는 170일(34주×5일), 행사는 14일(2주×5일+4일)로 하면 된다.

또한 유럽과 같이 신체리듬을 고려한 하루 일과를 고려해 오전 교과수업, 오후 활동수업의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체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초등 1, 2학년은 오전수업만(20시간), 초등 3, 4학년은 중간 수준으로 운영(23시간), 초등5, 6학년은 5교시까지 운영(25시간), 중등학교는 6교시까지 운영(30시간)한다.

외국과의 연간 수업시수를 비교해보자.

<외국과의 연간 수업시수 비교>

단위 : 시간(60분 기준)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국	553	567	657	657	725	725	867	867	867	1020	1020	1020
대만	613	613	787	787	827	827	990	990	1020	1167	1167	1100
중국 (노동활동2주 제외)	769 (728)	798 (756)	855 (810)	855 (810)	855 (810)	855 (810)	965 (916)	965 (916)	965 (916)	1140 (1083)	1110 (1055)	1080 (1026)
일본	587	630	683	709	709	709	817	817	817	719	719	719
핀란드	542	542	656	656	684	684	855	855	855	713	713	713

주) 중국 :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신교육과정 기준(주당 33시간, 45분, 38주)으로 할 경우 941시간임

대만 :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으로 계산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편집자 주 : 우리나라 고등학교 1020시간(*60분)은 행사를 제외하고 실수업일수만 계산된 것임(34주*36시간*50분)

2009개정에서는 963시간(34주*34시간*50분), 총수업일수 195일로 계산하면
1105시간(*60분)(39주*34시간*50분)

참고로 프랑스와 한국의 초중학교 각 학년별 주당 수업시수만을 비교해보자.(수업일수와 난이도는 제외)

한국	학년	보육원	유치원	초1	2	3	4	5	6	중1	2	3	합계 (초1 제외)
	수업 시수				24	25	29	29	32	32	33	33	33
프랑스	학년	영아 반2	유아 반2	준비 과정 2	기초 학습 과정 1	기초 학습 과정 2	심화 학습 과정 1	심화 학습 과정 2	중학 교 적응 과정	중간 과정 1	중간 과정 2	진로 과정	
	수업 시수	유치원		초등 →	26	26	26	26	중 → 26	26	29	28~ 30	213 ~215
		유초 연계											

제도적으로 하루의 수업 시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등교 시간을 늦출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등교 시간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학교 시간이 늦어지게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긴다할지라도 등교 시간을 늦추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2014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시행한 등교 시간 늦추기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6. 학습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학년 단계부터 책임 보충학습

적정 학습량과 난이도를 전제로 하고 OECD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가장 적게 해야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황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결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규 수업시수의 적정화를 전제로 하고 학습에 뒤떨어지는 학생은 무료로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보충학습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가장 필요로 한다.

프랑스 교육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자.

첫째, 교육과정 분량의 적정화(주당 4.5일, 적정 수업시수), 기초학력 국가 보장, 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학년 진급 단계 유연성, 교과발견 안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우리나라 초등 6학년 단계) 과정에서 총 26시간 중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지원을 위한 시간과 심각한 학습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보충 시간에 2과목 이상의 교과 영역에서 각각 2시간을 배정하여, 초등 마지막 단계이며 중학교 적응과정 시기에 정규 수업시간 중 4시간이나 할애하여 학습결여를 보충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국한된 맞춤형 지원은 프랑스어와 수학에 재배정된 주당 2시간씩 할당되며 최대 8명의 집단으로 조직된다. 초과 할당 시간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계 및 기술계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개별지도 시간 2시간을 공통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필수 교과수업 시간을 줄이고, 국가가 학생의 학력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각 단계별 년도는 각 과정의 표준 수학기간이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1년 과정을 2년으로, 2년 과정을 3년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학생의 학습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결국 못 따라오는 학생은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됨) 학생의 상황에 따라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 처음 적응기간 단계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4시간이나 할애하여 학습결여를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과정은 ‘프랑스어나 과학과 기술 교과목(생명과과학 지구과학, 물리-화학 그리고 기술) 수업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분반 작업을 조직하는 등 학교에 부여된 모든 교육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중1단계(우리나라 초6)에서 프랑스어 4.5시간 중에 0.5시간은 분반 수업을 하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5시간 중 0.5시간, 기술 1.5시간 중 0.5시간은 분반 수업을 하며, 만일 학급 인원이 적은 경우는 분반 수업이 면제된다.

일반계 고교에서(기술학교 포함) 물리-화학 과목 3.5시간 중 1.5시간 분반, 생명과 지구과학 2시간 중 1.5시간 분반, 언어 과목 등에서 0.5시간(계열에 따라 1시간) 분반, 경제와 사회학 2.5시간 중 30분 분반, 경영 및 통신 정보 처리 과목 3시간 중 2시간 분반, 신체와 운동 교육 과목 5시간 중 1시간 분반, 환경-농업-토양-시민권 과목 4.5시간 중에서 3.5시간 분반, [시민, 법률 및 사회교육] 과목은 30분 시간 전체를 분반하여 수업을 한다.

이렇게 분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사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도 그만큼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중등에서 25명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2008년 기준, EU19 중학교 평균 22.2명) 이 숫자도 많다고 이렇게 많은 경우 분반수업을 하고 있다.

7.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신설로 교육과정 근본적 개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과정 개정 권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시로 개편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 교육과정이 되도록, 교사, 교육연구 전문단체, 학회, 시민단체, 노동 단체, 경제계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범국민적 교육협의 기관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이 위원회가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8. 고교 서열체제 타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개편하더라도,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입시중심 경쟁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중, 국제고, 특목고(과고, 외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자율학교, 일반고 등으로 귀족학교와 평민학교로 갈라치기하려는 힘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다. 설령 고교서열체제를 타파하더라도 상황이 약간 개선되겠지만, 대학 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서열체제를 부활하려는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입시중심 경쟁교육과 그에 따른 학습부담과 사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정상 운영의 전제 조건은 대학서열체제 타파이며, 그 체제가 타파되면 자연스럽게 고교서열체제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어 저절로 소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 개편없는 고교서열체제

타파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8. 대학서열체제 해체와 입시제도 개편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고교서열체제가 사라져 평준화가 된다고 해도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교육과정은 입시중심 경쟁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위 서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에 기초하여(내신과 병행), ‘통합교양대학’ (1년 의무교육, 지역별 자동 배정)을 설치 운영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통합국립대학’으로 바꾸어 공동학위를 부여하여 우선 국립대학부터 학벌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원하는 사립대를 아울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 희망하는 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독립사립대로 존재한다. (대학 체제 개편 방향은 현재 논의중)

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범국민적 참여와 합의하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초·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교육정책들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신설하여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을 통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